



4

1980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0. 4호

(루계 390)



## 차 례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 .....	4
만경대초가집에 태양이 솟아 .....	24
축원의 봄 .....	25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흠모와 충성의 노래 .....	26
작가들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높일데 대한 당의 방침은	
주체문학건설의 강령적지침 .....	30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	38
축원의 꽃바다 .....	40
축원의 마음 .....	41
사랑의 박우물가에서 .....	42
벗이 많은 사람 .....	43
위훈과 생활 .....	51
남녘땅에서 올려오는 흠모의 노래 .....	54
위대한 수령님께 경의를... ..	55
축배 (외 1 편)... ..	56
너병사가 가꾼 꽃 .....	57
노래하라 원화별이여! .....	57

어머니의 당부 .....	58
구름령 .....	59
나도 그 대오의 한 성원 .....	67
철의 대하여 흐르라 .....	67
새땅의 노래 .....	69
굴포의 처녀 .....	70

#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

△때 : 1920년대말 어느해 가을.  
△곳 : 북부조선의 어느 산골마을.

△ 나오는 사람들  
돌쇠…………지주의 머슴  
만춘…………구장의 머슴  
박씨…………마을녀인  
복순…………박씨의 딸  
서로인…………마을로인  
방서방…………지주의 인력거군  
장돌뱅이  
옛장사  
기타 청년들과 마을녀인들을 비롯한 군중들  
지주  
지주처  
구장  
구장처  
큰무당  
전도부인  
중  
작은무당들

## 서 장

△소개자가 막앞으로 나온다.  
소개자 —여러분!  
지금 지구우에는 200에 가까운 나라들이 있고 4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있습니다.  
그중에서 종교와 미신이 깨끗이 없어진 나라는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오직 하나뿐입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서는 혁명에 나서신 첫날부터 우리 인민을 착취와 압박에서뿐만아니라 종교와 미신을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도 해방되어 자기 운명의 완전한 주인이 된 새형의 주체적인간으로 꽃피워주실 원대한 구상밑에 이미 반세기전에 혁명연극 《성황당》을 비롯하여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창작공연케 하시였습니다다.

오늘 우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로 인류력사상 맨처음 온갖 종교와 미신에서 완전히 해방된 유일한 주체적인민이라는 높은 긍지를 안고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을 새로운 감격속에 관람하게 됩니다.  
△ 소개자 막을 열며 나간다.  
△ 먹장같은 구름을 헤치며 자막이 솟아오른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 성 황 당

△ 아직 무대 완전히 밝아지지 않은채로 성황당앞에서 박씨와 복순이가 손을 짹짹 비비며 빌고있는 모습만 보인다.  
△ 무대 완전히 밝아지면서 자막과 함께 박씨와 복순이는 사라지고 무대 1장으로 바뀐다.

## 제 1 장

△때 : 어느 가을날 오후.  
△곳 : 성황당이 가까운 강냉이밭.  
△무대 : 마을에서 거리로 통하는 낮은 고개길에 굽이돌아갔다.  
앞은 몽땅 강냉이밭, 강냉이가 익어서 가을을 하게 되었다.  
△뒤무대 : 한쪽으로 비탈진 부대밭이 보인다.  
저기서 서로인, 녀인 등이 가을을 하고있다.  
강냉이이삭을 따는 사람, 조를 낫으로 베어 묶는 사람, 지게와 팽zur리에 지고 이고 나르는 사람 등…  
뒤무대 다른쪽으로는 멀리 마을 들판이 바라보인다.  
저기서도 가을이 한창이다. 조를 베는것, 묶는것, 소바리들이 오고가는것도 보인다.  
온 마을 사람들이 떨쳐나와 가을에 배바쁜 로동의 풍경이 큰 화폭으로 보여진다.  
△ 돌쇠가 언덕우에 서서 가을하는것을 바라 보고있다.

△ 돌쇠에 대한 노래가 방창으로 흐른다.

천대받는 머슴살이 총각이지만  
야학에서 배우더니 눈이 떴다네  
인민을 속여먹는 온갖 원썬들  
웃음과 지혜로 족쳐버리네

△ 만춘이가 지계에 조단을 지고 들어온다.

돌 쇠 : 야 만춘아, 가을 나왔잖니?

만 춘 : 응, 건 뭐가?

돌 쇠 : 황지주가 오미자를 따오래서 산에 갔잖나.

만 춘 : 응.

돌 쇠 : 머슴살일 해두 요샌 나가 실컷 가을걷이  
나 해봤으면 좋겠다.

만 춘 : 해봐야 그렇지, 이자두 조를 베면서 이게  
다 구장놈거니 생각하니 손맥이 — 탁 풀려서...

돌 쇠 : 추수가을 한참 좋은 땐데 머슴살이 신세  
만 더욱 가련하구나.

△ 그들 지계를 세우기도 하고 산언덕에 기대눕  
기도 한다.

만 춘 : 언제면 이놈의 머슴살이를 면하구 소작이  
나마 제 농사를 한번 지어보겠는지.

돌 쇠 : 아, 너야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겠니, 복순  
이하구 잔치만 하면야...

만 춘 : 글썄, 참말 그렇게 되거나 하겠는지 원,  
부모 없구 땅 없구 머슴살이에 있다는건 천대뿐  
이지...

돌 쇠 : 그래두 넌 이제 색시 있구 장모 있구 괜  
찮다.

△ 돌쇠 무엇을 본듯 몸을 일으킨다.

돌 쇠 : 아니 저기 성황당앞에서 빌구있는게 복순  
이 어머니 아니가?

만 춘 : 그렇구나!

돌 쇠 : 어렵쇼! 복순이까지 따라와서 빌구있어.

만 춘 : 복순이야 저의 어머니가 죽으라면 죽기래  
두 하겠달 너잔데 별수 있니.

돌 쇠 : 흥, 장가두 들기전부터 색시 역성만 드네.  
어떻거면 저놈의 미신을 십년묵은 학질 떼듯 툭  
떼주나.

만 춘 : 흥, 십년묵은 학질은 떼두 복순이 어머니  
미신은 죽을 때까지 못뎀다.

돌 쇠 : 사위감이라는것부터 이러구있으니... 옳지,  
오늘 당장 복순이 어머니를 좀 끌려주자.

만 춘 : 어떻게?

돌 쇠 : 또 없는 곡식에 떡짜이나 해가지구 왔겠  
는데 ...

△ 이때 복순이와 박씨 다래끼를 끼고 성황당쪽  
에서 내려온다.

돌 쇠 : 만춘이 장모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구, 이  
거 만춘의 새색시감두...

△ 복순 부끄러워 돌아선다.

돌 쇠 : 야 만춘아, 장모님보구 절두 안하니?

만 춘 : 자식.

박 씨 : 돌쇠가 만춘이 장가가는게 부러운 모양이  
지, 요샌 만나기만 하면 놀려주는걸 보니...

돌 쇠 : 왜 안부럽겠어요. 샘이 나서 못견디겠수  
다.

△ 박씨 만춘에게 가서 옷이 꿰진것을 꿰매준다.

△ 복순이는 강냉이밭에서 강냉이이삭을 탄다.

돌 쇠 : 잔치두 하기전부터 저렇게 사위가 고우니  
이제 잔치만 하면...

박 씨 : 이제 만춘이 잔치나 하군 내 돌쇠에게두  
중매를 서주지.

돌 쇠 : 어이구 그만두슈, 누가 나같은 외톨 머슴  
놈에게 시집을 오겠소. 한데 복순어머니, 오늘  
은 성황당에 또 무얼 해가지구 왔됐어요?

박 씨 : 해가지구 올게 어디 있나. 이제 잔치두  
해야겠는데... 겨우 강낭떡 몇짝밖에 못해다놓았  
네.

돌 쇠 : 강낭떡이라...

△ 돌쇠 만춘이 보고 싱글 웃고나서 성황당쪽으  
로 어슬렁어슬렁 올라간다.

박 씨 : 어디를 가나?

돌 쇠 : 아니요, 저기 좀...

△ 돌쇠 노래를 흥얼거리며 성황당쪽으로 사라진  
다.

△ 뒤무대쪽에서 서로인과 녀인들이 들어온다.

박 씨 : 샘꼴집아버님 올라오셨습니까?

서로인 : 응, 임자네두 가을 나왔나?

박 씨 : 예, 가을을 하기전에 성황님께 지성을 드리  
려구요.

녀인 1 : 아이구 저런! 참말 정성이 지극하웨다.

우리는 그걸 생각두 못하구 가을부터 했으니 어찌나?

너인 2 : 그러게요.

서로인 : 앓는다더니 좀 어떤가?

박 씨 : 요새 마음이 기뻐서 그런지 가슴이 활랑거리는데 좀 나아.

너인 2 : 참! 복순이 잔치날을 받았다면서요?

박 씨 : 예, 건너마을 소경한테 가서 물어보니 래달 초이튿날이 아주 좋대요.

너인 2 : 어이구 이제 됐수다. 형님이 그새 남정손 없이 혼자 지내면서 고생이 많았는데 이제 잔치만 하면 만춘일 아들삼아 사위삼아...

너인 3 : 우리 모아붙어서 잔치를 잘합시다.

박 씨 : 잘할게나 있어요. 그래두 이 밭은 소작료를 안물어두 되겠으니 강낭국수나마 한그릇씩 겪을것 같아요.

△ 이때 뒤에서 돌쇠의 노래소리가 가까와온다.

너인 1 : 아이구 저기 돌쇠가 오누만.

서로인 : 저 돌쇠란녀석은 기운두 좋아, 아침부터 온종일 소리를 흥얼거리니.

너인 1 학교라곤 문앞에두 못가봤는데 야학엘 몇달 다니더니 아는것두 많구요.

서로인 : 하긴 제놈이 우스개소리를 탕탕 하는것 같아두 가만 들어보면 다 속대있는 소리들이야.

너인 2 : 예, 그러길래 황지주나 구장두 돌쇠를 은근히 무서워한대요.

서로인 : 다른 사람들은 할말두 못하는데 저 돌쇠란놈은 구장이구 누구구 제 할 소리는 탕탕 내소리 그러지.

△ 돌쇠 떡을 먹으며 성황당쪽에서 내려온다.

손에는 떡작을 담은 목기를 들었다.

서로인 : 입잔 뭘 그렇게 목이 메게 먹구있나?

△ 돌쇠 계속 먹느라고 말을 못하다가 다 넘기고 나서 손에 들었던 떡작을 만춘에게 내민다.

돌 쇠 : 야 만춘아 었다, 너두 배고프겠는데 강낭떡이긴 해두 너의 장모님이 만들어서 그런지 맛이 괜찮다.

△ 만춘 받으려고 안한다.

박 씨 : 아니 저런! 그럼 그새 올라가서 우리가 성황님앞에 가져다놓은 떡을 먹구 왔구만.

돌 쇠 : 먹구오지 않구요. 이 아까운 떡을 성황당까마귀한테 먹이겠어요? 배두 고프던 참인데 잘

먹었수다. 자 있었수다. (손에 들었던 목기를 박씨에게 준다.)

박 씨 : 아이구 이런 변이라구야! (목기를 뿌리치면서) 성황당앞에 놓은 음식을 먹으면 죽어!

돌 쇠 : 그러면 난 죽은지두 오랬겠수다!

박 씨 : 아이구 이런 변이라구야!

돌 쇠 : 복순이 어머니, 나하구 내기나 하나 할까요?

박 씨 : 내긴 무슨 내길 해! 어서 그 떡이나 도루 가져다놓으라구!

돌 쇠 : 내 이 떡을 먹구 죽으면 복순이 어머니 마음대루 성황당을 믿구요, 그대신 죽지않으면 그 성황당눌음 좀 그만두란말입니다. 자, 내기웬다. 어디 죽나 좀 보시우.

△ 돌쇠 떡 버티여앉아서 떡을 한입 베문다.

△ 모두 웃는다.

박 씨 : (황급히 달려들어 돌쇠에게서 떡을 빼앗으려 한다.) 이사람, 큰일나네! 죽어!

돌 쇠 : 아 글썽 죽는건 내가 죽는다지 않아요!

서로인 : 원, 저런 비우가 좋은 녀석이라구야.

박 씨 : 입자 그러단 이제 장가두 못가구 큰 벌을 받아!

돌 쇠 : 복순이 어머니! 복순이 어머니 그렇게 저두 꼭 못먹으면서 성황당까마귀한테는 떡을 해다 바치니까 앓기만 하지만 난 그제 성황당에 갖다놓은 떡, 고기, 술 다 먹었어두 벌은 새구 배탈 한번 안걸렸됐수다원! 자 보시켰소?

△ 돌쇠 사판뽀를 한다.

△ 모두 웃는다.

서로인 : 현대 돌쇠 이사람, 우스겐 그만하구 듣자 하니 황지주가 이 땅들이 제땅이라구 요새 군에 나가 무슨 수속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참말인가?

돌 쇠 : 예, 요새 황각쟁이가 인력거바퀴가 닳두룩 매일 군청에 드나드는건 사실이에요.

박 씨 : 아니, 이 땅이야 여태 묵어오던걸 금년 봄에 우리가 손바닥이 다 터지면서 부대를 일군 건데 황주사네 땅이라니...

서로인 : 황주사야 땅이라면 오금을 쓰나. 온 동리 땅을 다먹구두 이 부대밭까지 또 먹자는거겠지.

돌 쇠 : 땅뿐인줄 아시우. 중의 머리에 상투라구 그 주체에 황각쟁이가 요새 면장운동까지 하구있어요.

박 씨 : 아니, 그 사람이 면장을 해?

서로인 : 흥! 재물을 뭉더니 이젠 벼슬까지 하자구?

만 춘 : 구장두 요새 면장운동을 하구 다녀요. 그래서 오늘두 읍에 나왔어요.

돌 쇠 : 그러지 않아두 두놈이 개와 고양이 같은 사인데 이제 면장자리를 놓구 서루 으르렁 거리겠으니 불만하게 됐어요.

만 춘 : 아니 저게 오는게 구장 아니야?

돌 쇠 : 응, 구장이구나.

녀인 1 : 저거 웬 녀자까지 데리구...

녀인 2 : 녀자가 다 안경을 썼구만.

서로인 : 가만, 구장한테 좀 물어봐야겠다... 구장님!...

△ 서로인 나가며 구장을 찾는다.

《구장님, 나 좀 봅시다.》

만 춘 : 난 내려가야겠다. 구장이 보면 일안하구 이러구있다고 또 앵앵거릴텐데.

돌 쇠 : 아, 구장이 앵앵거리면 넌 좀 웅웅거리려무나.

△ 녀인들 모두 웃으며 나간다.

돌 쇠 : 애 저기 들어가 잠깐 기다려라. 구장이 뭐라구 하는지 좀 들어보구 같이 내려가자.

△ 만춘 나간다.

△ 구장이 자전거를 끌면서 앞서고 뒤따라 전도부인과 서로인이 들어온다.

구 장 : 뭐가 어쨌다구? 황지주가 이 땅을 제땅이란대? 흥! 황각쟁이가 땅욕심에 환장을 한계군.

박 씨 : 아니 그럼 황지주땅이 안되나요?

구 장 : 원, 천만에! 내 이 목을 내놓구 보증할수있소!

전도부인 : 구장님, 그럼 아까 말씀하던건 틀림없겠지요?

구 장 : 아, 틀림없지 않구요. 절대 넘려 마시우.

△ 전도부인이 손벽을 칠듯하며 기뻐한다.

전도부인 : 아이구 그럼 됐어요. 그분의 땅이 된다면 어땡거겠어요.

박 씨 : 아이구 저 선생님두 기뻐해주시네. 참말 고맙쎄다. 어디 계시는분인지...

구 장 : 저 거리에 계시는 전도부인님이시네.

전도부인 : 정마리입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박 씨 : 정말 이거 고맙쎄다.

서로인 : 서길수쎄다 :

전도부인 : 정마리입니다.

서로인 : 정말인가구요? 예, 제가 서길수가 틀림없습니다.

전도부인 : 그런게 아니라...

돌 쇠 : 저는 저 황갑쟁씨의 머슴사는 차돌쇠올시다.

전도부인 : 정마리아입니다.

돌 쇠 : 네, 정말입니다. 제가 황갑정... 아니 모르시겠으면 황갑쟁씨의 머슴이 틀림없습니다.

구 장 : 이놈, 버릇없이... 그런게 아니라 이 선생님이름이 성은 정씨구 이름은 예수의 어머니이름 마리아를 따서 정마리아라구 한단말이야.

돌 쇠 : 예, 그거 정말 대단한 이름이시쎄다. 예수의 어머니라니 원...

전도부인 : 우리 예수교는 여러분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두, 예수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구 죽어서두 천당엘 갑니다.

돌 쇠 : 나같은 사람두 천당엘 갈수 있습니까?

전도부인 : 아, 갈수 있지 않구요. 예수만 잘 믿으세요.

돌 쇠 : 거 예수를 안믿구 공짜루 가게는 좀 못해줍니까?

구 장 : 이놈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돌 쇠 : 난 예수는 사랑이 많다가에...

전도부인 :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제 이 언덕에 저 성황당인지 뭇지 하는 미신단지 대신 레배당을 세우게 됩니다.

박 씨 : 아니 이 자리예요?

전도부인 : 예, (멀리 앞을 바라보며) 참, 자리가 여간 좋지 않습니다. 앞에는 넓은 벌판, 아름다운 시내가 흐르구...

구장님, 이제 여기에 레배당을 지으면 저 원천거리에 와계시는 미국목사 《허방도》박사님을 한번 모셔오겠어요.

돌 쇠 : 《허방구》요?

서로인 : 거참 이름두 별났다!

전도부인 : 《허방도》예요. 본래이름은 《헐버드》인데 조선식으로 《허방도》라구 이름을 지으셨지요. 조선옷을 입구 다니시구...

돌 쇠 : 아니 그러면 거 조상이 분명치 않은계군

요. 혹시나 잡종이 아닙니까?

구 장 : 이놈! 허튼수작 작작 해라.

전도부인 : 저 구장님, 내려가보시지 않겠습니까?

구 장 : 예, (박씨를 가리키며) 내 이 사람하구 좀 간단히 의논할게 있습니다.

전도부인 : 그럼 어서 말씀하세요.

구 장 : (박씨에게) 그러지 않아두 임자를 만나려 했는데 복순이한테 좋은 일이 생겼네.

박 씨 : 우리 복순이한테요?

구 장 : 응, 다른게 아니라 아까 군청에 들려서 탁군수령감님을 만나보였더니 군수령감님소실이 멀지 않아 해산을 하는데 압전한 처녀를 하나 구해달라누만. 그래 내 고르다고르다 복순이를 보내 기루 했네.

박 씨 : 네?!

구 장 : 그런 태에 가면야—잘 얻어먹구 아마 옷 두 몇벌 해주실게야.

박 씨 : 구장님, 고맙긴 합니다만 우리 복순인 곧 잔치를 해야겠습니까.

구 장 : 잔치를 하다니?

박 씨 : 작년부터 하려던걸 못했는데 금년엔 이 부대발을 일궈서 강당말이나 거두게 됐으니 꼭 해야겠어요. 벌써 나이 스물인데...

구 장 : 그럼 만춘의 살림을 내가 차려줘야 한다는 소린데 날보군 의논두 없이 잔치를 한다만다 해?

박 씨 : 살림이래야...

구 장 : 살림이래야라니, 잔치만 하구 색시 새서방은 따루 살겠나?

박 씨 : 그거야 어떻게?...

구 장 : 그럼 잔치를 하구 복순이두 우리 집에 들어오던지...

박 씨 : 네?! 구장님두 아시다싶이 내야 저 딸 하나 믿구 살아오는데 나는 여태 남의 머슴두 살구 별짓 다해왔지만 저 애만은 황주사네가 벌써 몇 년전부터 머슴루 들여보내라는것두 끝내 들여보내지 않구 지내왔는데 이제와서...

구 장 : 그러게 이것저것 다 풀리자면 내 말대루 복순이를 금년 한해겨울만 군수령감네 집에 가서 지내게 하란말이야. 그러면 술한 돈두 벌어서 빚두 다 물수 있을게구 또 이런 기회에 군수님택 하구 친해만 두면야 아 만춘이두 장차 군청 《꼬

찌까이》자리같은것두 하나 얻어 할수 있지 않나. 돌 쇠 : 아이구 그러면 만춘이가 벼락출세를 하게 되겠수다. 군청 《꼬찌까이》면야 대단하지요. 아마 구장님보다두 좀 높을가?...

구 장 : 저런! 이 버르장머리 없는놈!

△ 구장 돌쇠에게 달려드는데 돌쇠 언덕으로 피한다.

구 장 : (박씨에게) 잘 생각해보게. (전도부인에게) 자, 그럼 어서 내려가십시다.

전도부인 : 예, 그럼 어서 내려가서 레배당 세우는 문제를 의논하십시오. 자, 여러분, 다시 뵈겠습니다, 이제 여기 레배당을 지으면 모두 꼭 나오셔서 예수를 믿으세요. 그럼 복 많이 받으세요.

△ 전도부인은 머리 숙여 인사하고 구장과 같이 나간다.

돌 쇠 : 흥, 참새를 볶아먹었나. 재잘거리긴...

△ 만춘이 시무룩해서 나온다.

복 순 : 어머니!

서로인 : 한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아닌밤중에 홍두깨라더니...

박 씨 : 이게 다 성황당에 치성을 드리는게 부족해서 그래요. 이 돌쇠가 오늘은 떡까지 집어먹었으니 글썄...

돌 쇠 : 복순이 어머니, 내가 성황당떡을 먹어서 그런게 아니라 저 지주, 구장놈들의 욕심이 항아리갈아서 그래요.

박 씨 : 임자네들이 몰라서 그러지 사주팔자두 신령님두 다 있는거야. (서로인에게) 애당초 여기 부대를 일궈 때 큰 제사를 지냈어야 하는건데, 글썄 생각해보시우, 성황당이 저렇게 코앞에 있는데 여기다 불을 질렀으니 산신령님이 왜 놀라구 노하시지 않았겠어요.

돌 쇠 : 하하하... 그놈의 산신령들이 몽땅 불에 타죽었겠는데 아직 남아서 지랄인가?

박 씨 : (성황당쪽을 보며) 아이구, 이사람! 어디라구 그런 소릴 탕탕 하나? 임자는 다 좋은데 그런 거 하나는 나빠!

서로인 : 이거 참말 무슨 제살 지내두 지내야지.

△ 서로인 나간다.

박 씨 : (만춘에게) 여보게, 그러지 않아두 내 부탁을 하려했는데 이제 제격 올라가서 성황당기둥을 좀 갈아달라구.



만 춘 : 성황당기둥이요?

박 씨 : 성황당기둥이 하나 썩어서 넘어져가는데  
아까 올라가보니 이젠 아주 넘어지겠어. 그러니  
신령님두 왜 노하시지 않겠나. 자, 어서.

돌 쇠 : 복순이 어머니, 성황당기둥 갈 생각 하지  
말구요 돼지우리기둥이래두 바루 세우는게 나아  
요.

박 씨 : 누가 임자보구 세워달라나?

(만춘에게) 어서!

△ 만춘은 머리만 푹 숙이고 서있다.

박 씨 : 정 싫으면 그만두게, 나 혼자서는 할수가  
없으니 그러지... 복순아, 가자.

△ 박씨는 노여워서 혼자 성황당쪽으로 올라 간  
다.

복순이도 뒤따르려 한다.

△ 뽕, 산비둘기들의 울음소리.

돌 쇠 : 복순이! 어머니가 저러지 않게 좀 타이르  
란말이야.

복 순 : 어머니가 그러시는걸 어떻게...

돌 쇠 : 복순이두 야학에 나왔됐으면 세상에 귀신  
이 있는지 없는지, 미신이 어떤건지 다 좀 배웠을  
게 아니야...

△ 박씨 성나서 찾는 소리가 들려온다.

《복순아, 뭘하구있니?》

△ 복순 머리를 수그리고 성황당쪽으로 올라간다.

돌 쇠 : 이젠 야학선생이 잡혀갔으니 야학두 못하  
구.

만 춘 : (돌쇠에게 기운없이) 먼저 내려가.

△ 만춘 도끼를 뽑아들고 어슬렁어슬렁 복순의  
뒤를 따른다.

돌 쇠 : 색시가 고우면 처가집말뚝을 보구두 절을  
한다는데 별수 있니. 어서 갔다와. 내 여기서 기  
다릴게.

△ 만춘도 성황당쪽으로 사라지고 돌쇠만 우두커  
니 서있다.

돌 쇠 : 저놈의 성황당에 불두 탁 못지르구...

△ 돌쇠 발머리에 누워서 흥얼흥얼 노래를 한다.

빈다고 잘살면 못살놈 없구요

절해서 된다면 걱정이 없겠다

△ 황지주가 인력거를 타고 들어온다.

돌쇠 그것도 모르고 노래를 흥얼거리다가 벌떡  
놀란다.

지 주 : 돌쇠야! 너 이놈 여기서 뭘하구있느냐?  
(인력거에서 내린다.)

돌 쇠 : 아 저것 좀 보게요. 주사님이 오미자 한말  
이면 산삼 한뿌리보다 낫다구 하면서 오미자를  
따오라구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렇게 한자루  
따가지구 오다가 좀 쉬었습니다.

△ 지주 가서 돌쇠가 따오는 오미자 자루를 살펴  
본다.

돌 쇠 : (방서방에게) 할아버지, 수고했겠어요.

방서방 : 뭘.

지 주 : 빨리 내려가 일이나 해.

돌 쇠 : 예.

지 주 : 방서방, 임자두 인력거를 끌구 먼저 내려  
가게.

방서방 : 그러면 주사님은 무얼 타구 내려오시게  
요?

지 주 : 거 인력거바퀴가 자꾸 닳는게 아까워서  
그러네. 이제 내가 면장이 되면 면에 나가서 매일  
인력거를 타야 할게 아닌가?

돌 쇠 : 주사님이 참말 면장이 되십니까?

지 주 : 그렇다! 오늘 수비대장님이 반승낙은 했  
으니 이제 탁군수만 합의되면 문제없다. 그렇게  
되면 방서방은 면장님 차부야 면장님 차부! 하  
하... 대단하지!

돌 쇠 : 그러면 난 면장님 머슴이 되겠군요?

지 주 : 그렇다 그러면 너두 대단하다.

돌 쇠 : 야, 이거 참말 대단하게 됐는데...

지 주 : 어서 먼저들 내려가봐라, 내 여기 발들을  
돌아보구 내려가야겠다.

돌 쇠 : 여기 발들두 참말 주사님 발이 됩니까?

지 주 : 되지 앓구! 어서 내려가 버 한단이라두  
더 베여라.

돌 쇠 : 예.

△ 방서방 인력거를 끌고 나가려 한다.

지 주 : 살랑살랑 끌구가라구, 살랑살랑.

방서방 : 예.

△ 방서방 나간다.

△ 지주 돌아서서 흥얼흥얼하며 발들을 바라본다.

△ 돌쇠도 자루를 지고 따라나아가다가 힐끗 돌아  
보고 자루를 벗어 인력거우에 올려놓고 자기는

강냉이밭속으로 들어간다.

지 주 : (강냉이밭을 돌아보며) 거 강냉이가 잘두 뻘뻘.

△ 기분이 좋아서 흥얼흥얼하며 강냉이밭을 돌아 보다가 강냉이이삭 판것을 보고 떠든다.

지 주 : 아니, 이거 벌써 이삭들을 땀다! 응, 아직 두 제땅이거니들 생각하구... 가만있자, 몇이삭이 나 따갔나 조사를 했다가 타작때 계산을 해야겠다.

△ 지주는 복순이가 놓고간 바구니속에서 강냉이 이삭 판것을 꺼내놓으며 센다.

지 주 : 하나이라 둘에 가서 셋이라 하니 넷이로 구나...

△ 지주는 강냉이이삭 세는데 정신이 팔려 박씨와 복순, 만춘이 성황당에서 내려오는것도 모른다.

박 씨 : 아니 주사님, 거기서 무얼 세십니까?

△ 황각쟁이는 와 뜰 놀랐으나 박씨인줄 알자 허세를 부린다.

지 주 : 어, 임자네들, 여기서 강냉이를 함부루 따서는 안되겠네.

박 씨 : 이제부터 가을을 하려는데요.

지 주 : 가을? 안돼.

박 씨 : 아니 제땅에서 가을을 하는데...

지 주 : 제땅? 이건 내 땅일세. 내 땅이야!...

박 씨 : 아니 뭐요?

지 주 : 수비대, 군청 다 말했어, 이제 측량을 나와 측량!

박 씨 : 아까 구장님말씀이...

지 주 : 뭐 구장?

박 씨 : 예, 구장님말씀이 이 땅은 황주사님네 땅이 아니라구...

지 주 : 구장이 이 땅하구 무슨 상관이야? 구장우에는 면장이 있구 면장우에는 군수가 있다, 군수!

박 씨 : 그래두 구장님이 자기 목을 내놓구...

지 주 : 목이 열뒀게 되면 내놔보래! 제까짓놈이... 임자두 내 논밭 계속 부치구 내 집쓰구 살려면 구장, 구장 하지 말구 내 말을 들으란말이야 내 말을!

박 씨 : 제가 언제 황주사님말씀 거역한적이 있습니까?

지 주 : 그러면 복순일 금년겨울 읍에 나가 지내

게 하계.

박 씨 : 예? 아니 저 군수네 작은택예요?

지 주 : 그걸 어떻게 아나?

박 씨 : 아까 구장님이...

지 주 : 뭐 그것두 구장이?

박 씨 : 예, 작은택에서 아이를 낳게 뻘다구...

지 주 : (방백) 야! 요 구장놈이!

(박씨에게) 그래 보내줬다구 했나?...

박 씨 : 아니요.

지 주 : 그것 잘했네. 보내긴 보내되 내 말대루 보내야 해, 알겠나?

박 씨 : 누구 말이구 당장 잔치날을 받아왔는데요. 래날 초이튼날...

지 주 : 응, 그렇다면 좋네! 잔치를 하겠으면 하구 말겠으면 말구, 그대신 내 빚진거랑 장리 가져다 먹은거랑 갚을건 다 갚구나서 잔치를 해두 하계.

박 씨 : 아니, 그걸 다 갚구나서야 어떻게 대사를 치르겠습니까?

지 주 : 그럼 잔치를 못하는거지. 임자가 제폭만 제폭이라는데 내라구 임자사정 보겠나, 잘 생각해 보게.

△ 지주 나간다.

박 씨 : 아이구!

복 순 : 어머니!

만 춘 : 저런 날도적같은놈!

박 씨 :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아이구, 또 가슴이 활랑거리누나.

△ 박씨 가슴을 친다.

복 순 : (울듯한 목소리로) 어머니, 어서 내려가시자요.

△ 박씨 대답을 못하고 숨이 차하며 땅바닥에 주저앉은채 일어서지 못한다.

△ 돌쇠가 나온다.

△ 박씨가 숨을 헉헉하며 말한다.

박 씨 : 그런데 지주, 구장이 왜 서루 들어붙어서 우리 복순일 군수네 집에 못보내서 저러나?

돌 쇠 : 식모나 아이보게 같은거야 읍에서두 구할 수 있겠는데. (만춘에게) 암만해두 무슨 꿈꿨이가 있다.

△ 돌쇠 무엇인가 잠시 생각한다.

돌 쇠 : 복순이 어머니, 어서 내려갑시다.

복 순 : 어머니, 내려가시자요.

박 씨 :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짓기에 한평생 이 설음을 당해야 한단말인가. (복순을 껴안고 쓸어 주며) 스물전 과부가 되가지구 울기는 얼마나 울구, 수모는 얼마나 받았겠니, 철없는 너를 안구 물에 빠져 죽자구 강가에까지 나갔댔다. 그래두 너하나 믿구 이날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이제는 시름을 놓는가 했더니... 세상이 무정두 하구나 복순아!

복 순 :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 서로 붙들고 운다.

△ 박씨 눈물을 닦으며 일어서서 성황당쪽으로 가련다.

복 순 : 어머니, 어디루 가세요.

박 씨 : 성황님께 빌자! 우리한테야 성황님밖에 믿구 의지할데가 있니. 어서 너두 가서 빌자!

△ 방창이 들려온다.

이 세상 넓다해도 믿을곳 없어

불쌍한 어미딸은 눈물로 비네

그 누가 저들을 구원해주랴

△ 박씨 방창속에 비칠거리며 성황당쪽으로 가서 빈다.

△ 복순 어머니를 따라가 같이 빈다.

박 씨 : 성황님!

△ 만춘 돌아서 눈물짓고있다.

△ 돌쇠 그들을 바라보며 무엇인가 생각하는데 무대 어두워진다.

## 제 2 장

△때 : 전장에서 며칠후 아침

△곳 : 지주집트락.

△무대 : 큰 기와집이지만 어딘가 음침해보인다.

죄악에 찬 지주의 생활을 느끼게 한다.

트락 한구석에 구새먹은 큰 나무가 한그루 서있다.

△ 무대 밝아지기전에 돌쇠와 만춘이 서로 마주 서서 이야기하고있다.

돌 쇠 : 가만히 생각해보니 좋은수가 있다.

만 춘 : 어떻게!

돌 쇠 : 땅이구 복순이구 어느 한놈이 달려들면

방법이 없겠는데 지주, 구장 두놈이 량쪽에서 서로 같이 달라붙으니 오히려 빠져나갈 구멍이 있단말이다.

만 춘 : 그래서?

돌 쇠 : 우리 두놈을 서로 싸움을 붙여놓구 수를 써보자!

만 춘 : 응! 그러자.

돌 쇠 : 복순이보구 너무 걱정하지 말라구 그래라.

만 춘 : 알겠다. (나간다.)

△ 무대 완전히 밝아지면 돌쇠가 커다란 트락비로 수북이 쌓인 나무잎을 뱅뱅 쓸면서 흥타령조로 노래를 한다.

이놈의 트락은 흥

넓기도 하여서 흥

온종일 쓸어도 흥

끝이나 없구나 흥

△ 돌쇠는 트락을 쓸다말고 비자루를 휘휘 저으며 가볍게 춤을 춘다.

△ 지주처가 방에서 찾는 소리가 들린다.

《야 돌쇠야!》

△ 돌쇠는 못들은체하고 다시 비자루질을 하며 일부러 더욱 큰소리로 노래를 한다.

요놈의 종자야 흥

팔세를 말아라 흥

내라고 한평생 흥

머슴만 살테나 흥

△ 지주처가 악에 반쳐 문을 벌컥 열고 나와 《야 돌쇠야!》 하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마루를 구른다.

돌쇠는 그제서야 노래를 그치며 지주처를 돌아보지도 않고 증얼거린다.

돌 쇠 : 아이구 깜짝이야, 간 떨어지겠네.

지주처 : 귀구멍이 막혔어? 지금 주사님은 일이 안돼서 속이 상해 그러는데 넌 뭐가 좋아서 트락은 안쉴구 소리만 해, 소리만?

△ 지주가 뒤뜰에서 나온다.

돌 쇠 : 주사님이 구장놈때문에 속이 상해서 그러니 나두 속이 상해서 소리를 하는데 공연히 그러시네.

지 주 : 옳다, 네 말이 옳아! 이렇게 끝이 지끈지끈하는것두 다 그 구장놈때문이다. 구장놈!

돌 쇠 : 주사님! 아, 구장이 요전날 성황터발머리에서두 술한 사람들을 모아놓구 주사님욕을 개욕하듯하는데...

지 주 : 뭐, 내 욕을 개욕하듯해? 뭐라구 하던?

돌 쇠 : 거 말하기가 좀...

지 주 : 어서 말해봐라. 그놈이 날더러 뭐라구 하던가...

돌 쇠 : 거... 좀...

지 주 : 아, 일없다. 그저 보태지두 숨기지두 말구 그놈이 말한 고대루 해봐라, 고대루!

돌 쇠 : 고대루요?...

지 주 : 응, 고대루!

지주처 : 고대루!

돌 쇠 : 그럼... 이거... (머리를 굽적거리다가 구장의 흥내를 내는척하면서)예, 황각쟁이라는게 배때기에 욕심만 가득 차서 동리백성들이 손이 닳도록 일군 이 부대발까지 제 발이라니 환장을 해서 개뻔같은 뱀이 쏙 나왔지...

그런 도적놈이 어디 있나 응?

지 주 : 아, 아니 뭐 개뻔? 도적놈?

돌 쇠 : (여전히 구장 흥내를 내는척하면서)

그 주제에 면장을 해보겠다구, 잔치날까지 다 받아놓은 남의 외동딸을 군수네 집에 보내겠다니 그런 악귀같은놈이 어디 있나. 이제 그러다가야 동리사람들한테 맞아죽어서...

지 주 : 듣기 싫다! 그만둬라!

돌 쇠 : (못들은척하고 계속한다.)

개대가리같은 대가리가 저 성황당꼭대기에 걸려가지구 까마귀가... 까웁! 까웁!

지 주 : 이놈아, 그만두지 못해!

지주처 : 그만두지 못하겠어?

△ 지주와 지주처는 악에 받쳐 죽자하고 소리를 친다.

돌 쇠 : 아, 그러게 글썄 내가 뭐랍디까. 그런데두 자꾸 고대루 말하라니...

지 주 : 구장 이놈! 어디 보자! 날보구 개뻔? 도적놈? 개대가리?

지주처 : 아이구 분해! 어떻거면 고 쥐새끼같은놈을 짓이겨놓아요?

지 주 : 그까짓놈 언제 이 프락같은 조용한데서

한번 만나면 아예 뼈다귀 분질러놓겠다.

돌 쇠 : 그래두 구장이 이전에 유돈가 했답디다.

지 주 : 제간놈이 유돈를 했다면 난 한때 박달목침을 세길씩이나 받아올리던 사람이다. 어디 한번 만나기만 해봐라.

돌 쇠 : 그렇게래두 해놔야지. 그러단 이제 주사님이 큰 봉변당합니다.

지 주 : 아, 하지 앓구, 만나기만 하면야 당장에 그쳐...

△ 돌쇠 나무잎 쓴것을 삼태기에 담아가지고 나간다.

지주처 : 여보, 요새 령감일이 사사모사루 자꾸 꼬이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오래동안 성황당에 제사를 안지냈어요. 그래서...

지 주 : 이 쓸데없는 미신의 소리 좀 그만둬! 난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야 부처님! 원래 우리 어머니가 부처님을 독실하게 믿는분이었는데 나를 낳자마자 절간에 찾아가 불공을 드리구 나를 부처님에게 바쳤어. 말하자면 나는 부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나무아미타불!

지주처 : 그래서 덕을 본게 뭐요?

지 주 : 왜 덕을 본게 없어? 내가 지금 이렇게 제산똥구 사는것두 다 부처님덕이야. 그러니 운흥사에 찾아가 불공두 드리구 무슨 땅이든 땅두 좀 바쳤어야 했을걸 벌써 늦은가부네.

지주처 : 그보다두 거리에 덕산큰무당이라구 새무당이 내렸는데 점두 딱딱 맞히구...

지 주 : 아 그까짓 무당이 뭘 안다구?

△ 돌쇠가 지주를 부르며 뛰어들어온다.

돌 쇠 : 주사님, 구장을 데리구왔습니다.

지 주 : 뭐? 구장? 누가 널더러 구장을 끌어들이래?

돌 쇠 : 아, 아까 이 프락안에서 만나면 (머리로 받는 시늉을 하며) 이렇게 하겠다구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싫다는걸 끌어들였는데, 주의는 하십시오. 구장이 유돈를 합니다.

△ 지주가 당황해하는데 구장부처가 들어선다. 둘 다 나들이차림이다.

구 장 : 이 택에선 무얼 차렸기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을 일부러 청하시우?

지 주 : (방백)야, 요놈이 밋다니까 모루 기누나.

지주처 : 아니 어딜 이렇게 아침부터 동부인을 하

시구서...

구 장 : 예, 군수령감을 좀 만나봐옵자구...

지 주 : 군수령감을요?

지주처 : 적은이두?

구장처 : 아니요. 나는 덕산큰무당한테 좀 불일이 있어서요.

지주처 : 그 무당이 그렇게두 신통히 맞힌다면서요.

구장처 : 아, 산에 들어가 십년동안 도를 닦구 신령님이 내렸다는데 더 말할게 있어요.

지 주 : 참, 듣자니까 구장이 요새 면장운동을 하신다두만요.

구 장 : 운동은 무슨 운동을 하겠소. 군수령감이 자꾸 그럴 의향이 없느냐구 하기에 내 좀 생각해 보겠다가는 했습니다.

지주처 : 아이구 그럼 이제 그 택에선 면장마나님이 되시겠구만?

구장처 : 아이구 나같은게 어떻게 다 면장마나님이 되겠어요. 주인량반이 면장은 될것 같지만.

△ 구장처 들가방에서 담배를 한대 꺼내 피운다.

△ 돌쇠가 지주에게 가서 수군거린다.

돌 쇠 : 저 주사님, 아까 그거...

지 주 : 뭐말이냐?

돌 쇠 : 거 있지 않아요. (받아넘기는 흉내를 한다.)

지 주 : 가만 있거라. (돌쇠를 툭 치고 구장에게) 그러지 않아두 저 성황터발때문에 내 구장을 한번 만나려했는데...

구 장 : 예, 그 땅은 엄연히 국유지기때문에...

지 주 : 뭐? 국유지?

구 장 : 국유지 아니구 그럼 황주사땅이요?

지 주 : 그우의 산림과 그밭의 조밭두 다 내 땅인데 그 땅이라구 내것이 아니겠소?

구 장 : 원래 그 조밭두 임자 없는 땅을 황주사가 군하구 끼구 자기 소유루 만들었는데 이번엔 그렇게 안될거웨다.

지 주 : 뭐가 어째? 구장이 전번에 저 싸리재땅들을 국유지루 만들어가지구 결국은 자기 땅으루 만들더니 이번에두 그 숨쉴 보이자는가분데 그렇게 안될걸!

구 장 : 개논엔 뭇만 보인다더니 제가 그러니까 남두 다...

지 주 : 아니 뭐야? 내가 그럼 개란말이야, 개?

그래서 개뽕이라구 했구나? 이게 어디서...

구장처 : 아니 누구보구 이제 저게 해요?

지주처 : 아니 결가마는 왜 끓어?

구장처 : 안끓구, 원가마가 끓는데 결가마가 안끓을가?

구 장 : 여보, 어서 가거나 합시다. 우리 인품이 떨어지겠소.

△ 구장과 구장처 나가려고 한다.

지주처 : (그들을 향해) 되젠 인품이 높다. 그 주체에 면장이 되겠다구? 흥!

구장처 : (되돌아와서) 왜 못될것 같니? 너같은것 좀 부러워하라구두 기어쿠 면장이 돼야 하겠다. 움두꺼비같은넌!

△ 구장과 구장처 나간다.

지주처 : 뭐 움두꺼비? 저 구미여우같은년이...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멍청하니 서만 있어요. 서만?

지 주 : 어디 보자 이놈! 내 아예 네놈의 모가질 비틀어놓을테다 이놈!

지주처 : 어이구, 어이구 듣기두 싫수다. 모가질 비틀진 못해두 비틀리우지나 마시우!

지 주 : 이놈! 어디 보자. 내 이 재산 몽땅 다 팔아서두 기어쿠 면장이 돼서 네놈을 내 궁둥이 밑에 깔구앉구야말테다.

지주처 : 아이구 깔리우지나 마시우.

지 주 : 이 방정맞은 소리 그만둬! 내게두 다 생각이 있다. 돌쇠야, 너 가서 당장 복순이 에미를 데려오나.

돌 쇠 : 요새 잔치준비때문에 집에 있거나 한지 원...

지 주 : 어서!

△ 돌쇠 나간다.

지주처 : 구장은 군수만 만나러 나가는데 당신은 그까짓 복순이 에미나 가지구 그러니 아이구 벌써 싹이 노렸어요. 싹이...

지 주 : 모르는 소리 좀 그만두라구! 문제는 이제 군수령감을 누가 삶는가 하는건데 군수령감한테는 인삼록용두 중요하지만 복순일 셋째첩으루 보내는거야. 셋째첩!

탁군수가 내 생일날 우리 집에 왔다가 복순일 보구서 훌쩍 했어! 훌쩍!

지주처 : 그래 복순이 예미가 말을 들겠대요? 며칠 있으면 당장 만춘이하구 잔치를 하는데.

지 주 : 이제 두구보거나 해. 제까짓게 어디라구 감히...

내가 한마디만 올려보지. 단박에 《예.》할걸 가지구!

지주처 : 지금까진 그랬어두 이번 일이야...

지 주 : 잔말 말구 들어가 장부나 꺼내와!

△ 지주처 방안으로 들어간다.

지 주 : 가만있자... 옳지! 집문서두 꺼내놔야겠다.

△ 지주도 뒤따라 방으로 들어간다.

△ 돌쇠 박씨를 데리고 들어온다.

돌 쇠 : 이자 내가 하란대루만 해요.

박 씨 : 아, 그러다 구장이 알면...

돌 쇠 : 알긴 뭘 알아요?

박 씨 : 그래두 그런 거짓말을 어떻게?...

돌 쇠 : 아, 거짓말은 무슨 거짓말이에요. 사실 또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면 구장은 얼싸좋다 할텐데요.

박 씨 : 그런다구 황지주가 말을 들겠나?

돌 쇠 : 자 이거, 죽는것보다 까무라치는게 낫다구, 그럼 복순일 군수놈네 집에 내보내겠어요?

박 씨 : 그건 그런데...

돌 쇠 : 그러니까 나 하라는대루만 하세요.

박 씨 : 난 또 가슴이 방망이질을 해서...

돌 쇠 : 복순이 어머니, 이래두 죽구 저래두 죽을바엔 한번 죽을셈치구 나 하라는대루 해보세요.

△ 돌쇠 대청앞으로 가서 지주를 찾는다.

돌 쇠 : 주사님, 복순이 어머니를 데려왔습니다.

△ 지주와 지주처가 장부며 문서들을 들고 나온다.

박 씨 : 주사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지 주 : 여러말 할것 없네. 임자 복순일 몇달동안 군수렴감네 집에 가서 일을 봐주구 오게 하겠나 아니면 내 논, 밭, 집 다 내놓구 빚값에 예미딸이 콩밥을 먹겠나? 응?

두가지가운데 한가지를 택하게!

박 씨 : 주사님, 그러지 말구 사정을 좀 봐주시우.

△ 지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지 주 : 사정은 무슨놈의 사정? 다 저희들 좋게 해주자구 하는 일인데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더 길게 말할게 없어! 가타든가 부타든가 대답을

하란말이야. 어느쪽인가?

박 씨 : (주저주저하며 말을 한다.)

예, 주사님이 정 그러시다면...

지 주 : 그럼 보내겠단말이지? 허허...

△ 지주와 그의 처는 마주보며 좋아한다.

박 씨 : 그렇게 아니라 저...

지 주 : 저 뭐야? 말을 해야 알지? 말을!

박 씨 : 그럼 저 구장님이...

지 주 : 뭐? 구장이? 구장이 어쨌단말이야?

박 씨 : 돈두 주구 땅두 주겠단데...

지 주 : 구장이 돈두 주구 땅두 줘? 그게 참말이야?

△ 지주가 소리를 버럭 지르는통에 박씨 더 말을 못하고 물러선다.

△ 돌쇠가 나선다.

돌 쇠 : 저, 구장님이 논두 주구 밭두 주구 주사님네 장리쌀 먹은거, 빚진거 다 물어주겠다고 한대요. 그래두 복순이 어머니는 이 집 빚을 지나 그 집 빚을 지나 빚지기는 매한가진데 그래두 기왕 지던 집이 낫지않겠나 해서 그러는데, 주사님이 정 그러시다면 할수없이 이제 구장한테 가서 돈이구 쌀이구 가져다 물구 주사님네한테 매운게 없이 하는수밖에 없다구...

△ 지주 억이 막혀 말을 못하고 서있다.

돌 쇠 : 복순이 어머니, 주사님이 더 노하시기전에 어서 구장네 집에라두 가보시우, 빚을 몰라면야 물어야지요.

△ 박씨 나가려 한다.

지주처 : 아니 여보게! (당황하여 나가 붙들며) 내 밭 들으라구, 우리 령감 성미를 몰라서 그러나, 임자가 너무 제고집만 부리니 령감님두 화김에 그런게지...

박 씨 : 글썄 저두 뭐...

△ 지주는 입맛만 쩔쩔 다신다.

지주처 : 임자가 정 그렇다면 복순일 안보내두 좋아. 어디 우리가 탄욕심이 있어서 그러나 다 복순일 생각하구 임잘 생각해서 그러지. 논밭두 집두 다 내놓지 않아두 좋구 장리두 당장 안값아두 좋아. 그러니 공연히 그 교양이같은 구장네 집에 찾아다니지 말구...

박 씨 : 예, 이거 참 고맙습니다. 저두 화김에 버릇없이 군것을 용서해주시우.

지주처 : 응, 어서 가보라구.

△ 박씨 절하고 나간다.

△ 돌쇠도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집뒤로 들어간다.

지주처 : 어이구, 그 꼴 참 좋다.

지 주 : 아이구, 구장 이놈! 아이구 그 원썬놈을 어떻게면 좋단말인가? 고 쪽제비같은 놈을!

지주처 : 그놈이 지금 구장을 하면서두 그러는데 이제 면장까지 돼보우, 우린 죽지요 죽어요!

지 주 : 아, 죽다마다 그놈의 악사에 내가 말라 죽지. 아이구, 이 일을 어떻게면 좋단말인가.

저주처 : 그러게 내 말대루 하잔말이예요.

지 주 : 어떻게?

지주처 : 거리에 나가 덕산큰무당을 데려다 성황제를 지내구...

지 주 : 거 정신 썩 빠진 소리 좀 그만하라구. 남은 지금 가슴에서 불이 이는데 무당같은게 다 뭐야, 무당?

지주처 : 그럼 마음대로 해보구려, 면장은 커녕 된장두 안되겠수다. 된장! 구장너편넬 보구려, 덕산큰무당네 집만 찾아다니니 일이 척척 풀려나가지 않나.

△ 잠시 사이

△ 지주가 무엇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무릎을 치며 소리를 지른다.

지 주 : 큰무당! 큰무당! 허허 옳지! 됐다! 됐다!

지주처 : 아니 뭐가 돼요?

지 주 : 큰무당을 불러오자구, 그 덕산무당인가 한결말이야!

지주처 : 예? 큰무당을 데려오자구요?

지 주 : 그래!

지주처 :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령감이... 아이구 좋아! 그러게 내가 뭐래요.

지 주 : 누가 임자 점이나 치라구 부르자는줄 알아?

지주처 : 그럼?...

지 주 : 복순이 예미가 무당이요 성황당이요 하는데 꼼짝 못하지?

지주처 : 예, 이틀이 멀다하구 성황당에 올라가unk해요.

지 주 : 그러니 됐단말이야, 그러니 이것봐. 큰 무당을 데려다 복순이 예미가 점을 치게 해서...

△ 지주 자기 처의 귀에 대고 무어라 수군거린다.

△ 지주처도 좋아서 어쩔줄 모른다.

지주처 : 그거참! 령감의 궁냥이 제갈량보다 낫다. 어서 덕산큰무당을 데려옵시다. 예, 돌쇠야, 돌쇠야! 방서방 불러라, 방서방!

지 주 : 방서방! 빨리 인력거 대라구, 인력거!

△ 지주와 지주처 떠들면서 나간다.

△ 뒤따라 방서방 인력거를 끌고 나오는데 무대 어두워진다.

### 제 3 장

△때 : 같은날 오후.

△곳 : 지주집대문앞에 있는 마을길.

△무대 : 사방으로 갈수 있는 마을의 중심길. 부대앞쪽 측면으로 지주집 대문이 있고 뒤쪽으로 마을집들이 보인다.

대문 맞은편 동구밖으로 통하는 길옆에는 해묵은 느티나무가 한그루 서있다.

△ 간막앞으로 구장처 지나가며 혼자 떠든다.

구장처 : 만춘아! 만춘아! 이젠 왜 아직 안오나?

△ 구장처를 따라 간막이 열리고 무대 밝아지면 지주집 대문밖.

△ 돌쇠가 앞뜨락을 끌고있는데 구장처 들어온다.

△ 농민들이 가을걷이를 해가지고 오고간다.

구장처 : 돌쇠야, 우리 만춘이 못왔나?

돌 쇠 : 아까 참기름을 사러 간다구 가던데요.

구장처 : 그러게말이다. 이젠 큰무당이 오게 됐는데 만춘이가 안오니 그러지 않니? 딱두 처야겠는데.

돌 쇠 : 구장님네두 큰무당을 데려옵니까?

구장처 : 데려오구말구. 내가 나가서 특별히 말해서 같이 오다가 저 큰꼴에 잠깐 들렸어.

돌 쇠 : 하... 우리 황주사님두 큰무당을 데리러 나갔는데요.

구장처 : 제까짓것들이?... 우리 일 다 본 다음에 보겠으면 보래.

△ 구장처 나간다.

돌 쇠 : 응 이젠 또 무당싸움까지 붙었구나.

△ 장돌뱅이가 나온다.

장돌뱅이 : (땀기름 든 손을 흔들며)  
자, 갑사땀기에 모본단조끼, 담배쌈지에 주머니끈,

박하분에 동백기름, 한번 사면 당대 쓰는 하꾸라 이빈침에 참빗, 도이칠란드물감에 등피알, 성냥, 귀쭈시개, 없는것 내놓구는 다 있으니 마음대로 골라잡으시오. 살가말가 어물어물하다가 때를 놓치지 말구 추수가을 좋은 이때에 눈딱 감구 제각 제각 삽시다. 자!

△ 돌쇠 대문에서 나와 그것을 보다가 주머니를 뒤진다.

십전짜리 한알을 만져보고 장돌뱅이에게 가서 기웃거린다.

돌 쇠 : 이 분이 얼마요?

장돌뱅이 : 예, 삼십전인데 이십전만 내슈.

돌 쇠 : 돈이 모자라는데... 이 거울은 얼마요?

장돌뱅이 : 20전인데 15전만 내우.

돌 쇠 : 10전밖에 없소.

장돌뱅이 : 였다. 마수거리니 본전이나 하지. 자!

돌 쇠 : 색시한테 거울을 주면 좋다지요?

장돌뱅이 : 좋다마다요. 거울같이 밝은 마음 번치 말라는거지요. 장가를 가우?

△ 돌쇠 거울을 받아 자기 얼굴을 비쳐본다.

돌 쇠 : 아니요. 새색시구 뭐구 나부터 좀 비쳐봐야 겠다. (거울을 보며) 아니 이게 누구야?

장돌뱅이 : 누구말이요.

돌 쇠 : 이 거울안에 비친 사람말이요.

장돌뱅이 : 아, 그거야 당신 아니구 누구겠소!

돌 쇠 : 오래간만에 거울을 봐서 그런지 너무도 얼굴이 환해서 그렇니다.

장돌뱅이 : 아닌게아니라 신수가 환한게 관상은 지주집아들감이 되겠는데...

돌 쇠 : 여보, 그까짓 지주집아들에게 비기겠소. 어서 가서 많이 팔기나 하슈.

△ 장돌뱅이 나간다.

△ 지주가 인력거를 타고 들어온다.

돌 쇠 : 주사님 지금 오십니까?

지 주 : 응.

돌 쇠 : 그래 큰무당은 안옵니까?

△ 지주 입이 쓰다는듯 대답을 안한다.

△ 지주처가 나온다.

지주처 : 아 지금 오시우? 그래 어떻게 됐소?

지 주 : 어떻게 되는게 뭐야? 고 구장놈이 무당 데려오는것까지 우리 앞말치기를 했던말이야.

지주처 : 아니 그럼?

지 주 : 야, 너 큰무당 오는것 못봤니?

돌 쇠 : 아직 안왔어요. 이자 구장녀편네두 큰무당이 오나 하구 여기까지 왔됐는데요.

지 주 : 그럼 아직 큰무당은 오지 않았구만. 하 이거 어떻게건다?

지주처 : 아니령감은 어떻게 했게? 그러게 내가 나가겠다는데 군청이요 뭐요 하면서 우기구 제가 나가더니...

지 주 : 임자가 나갔어두 별수 있어? 나가보니 벌써 큰무당이 구장녀편네하구 같이 떠났는데 ...

지주처 : 아이구 이걸 어떻게면 좋소?

돌 쇠 : 아 걱정할게 있어요?

지 주 : 네까짓놈이 뭘 안다구 그래?

돌 쇠 : 자 이거, 큰무당이 구장네 집으루 가려면 이 집앞으루 해서야 갈텐데 먼저 가로채면 될게 아닙니까? 나원!

지 주 : 그렇지! 여보 어서 들어가 좀 의논을 하자구.

지주처 : 야 돌쇠야, 넌 여기서 지켜섰다가 큰무당이 오는게 보이면 알려라!

돌 쇠 : 예.

△ 지주와 지주처 들어간다.

돌 쇠 : 흥, 우선 무당싸움부터 붙여놓구 보자.

△ 만춘 들어온다.

돌 쇠 : 야 만춘아, 마침 잘 만났다.

△ 돌쇠 가서 만춘의 귀에 대고 수군거린다.

만 춘 : 그래? 그거 불만하게 됐구나.

돌 쇠 : 그런데 구장놈이 요새 갑자기 그 전도부인인지 한결 왜 끝구다니는지 좀 알아봤니?

만 춘 : 응, 그 녀자가 탁군수네 첩하구 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의형제를 맺었대.

돌 쇠 : 의형제?! 웬아 그러니까 구장놈이 그 전도부인에게 붙어서 면장벼슬을 해볼 심사로구나. 지주놈이 그걸 알면 또 예수를 믿겠다구 달려들겠는걸!

만 춘 : 하긴 그럴수두 있어.

돌 쇠 : 야 무당뿐아니라 그 전도부인이란것까지 두 두놈의 싸움에 끌어넣자.

만 춘 : 그러자! (나가려 한다.)

돌 쇠 : 야 었다, 이거. (거울을 준다.) 복순이 한테 줘라. 마음갈아서는...

만 춘 : 이거 참말 고맙다.



△ 돌쇠와 만춘이 나간다.

△ 옛장사 나온다.

옛장사: 옛사시오. 옛이요! 헌 고무신이나 머리칼, 누데기에 손가락 부러진것도 받습니다.

△ 복순 나와 머뭇거린다.

옛장사: 옛사려우?

복 순: 아니요. 뭘 좀 물어보려구요.

옛장사: 뭔데?

복 순: 많이 다녀보셨겠는데 혹시련꽃 있는델 보시지 못하셔어요?

옛장사: 련꽃은 왜?

복 순: 우리 어머니 병에 련꽃열매가 좋다구 해서요.

옛장사: 응, 저 산너머 절골이라구 있는데 거기에 련꽃이 있더군, 한 삼십리 뿔가...

복 순: 그곳에 련꽃이 많던가요.

옛장사: 그럼 많지 았구.

복 순: 고맙습니다. (나간다.)

△ 옛장사 나간다.

△ 돌쇠 큰길에서 들어와 뽕밭에 앉는다.

지주처: (창문을 열고 내다보며) 돌쇠야!

돌 쇠: (그의 텃밭에서) 예.

지주처: 큰무당이 안오니?

돌 쇠: 오라는 딸은 안오구 외통눈이 사위만 온다더니 무당은 안오구 옛장사만 옵니다.

지주처: 아니 그럼 그새 농친게 아니냐?

돌 쇠: 내가 뭐 심청이 아버진줄 아시유.

지주처: 여긴 내가 지킬테니 넌 저 동구밖에 나가서 지키구있다가 덕산무당이 오는 기색이 보이면 인차 와서 알려라. 어서!

돌 쇠: 예.

△ 돌쇠 나간다.

△ 박씨가 사발을 들고 어데론가 간다.

△ 지주처 박씨를 보자 대문을 열고 나온다.

지주처: 사발은 들구 어딜 가나?

박 씨: 예, 잔치라구 하려면 두부를 좀 앳아야겠는데 서술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지주처: 아, 서술이야 우리 집에두 없어서? 내 주지, 한데 서술은 서술이구 입자 궁합이나 맞춰 보구 잔치를 하자구 그러냐?

박 씨: 예, 궁합은 지난봄에 혼사말이 났을 때 건너마을 소경한테 물어보니 좋대요.

지주처: 그까짓 소경이 뭘 안다구, 그렇게나 점을 치라면 나두 치겠네.

박 씨: 글썄, 저두 그 소경은 좀 미타해서 있다가 구장택엘 가볼가두 하는데...

지주처: 구장네 집엔 왜?

박 씨: 듣자니 그 집에서 저 읍의 덕산큰무당을 데려온대요.

지주처: 잘못 알았네. 덕산큰무당이 구장네 집으로 오는게 아니라 우리 집으로 오네. 우리집에.

박 씨: 아니 이자 구장택이...

지주처: 글썄 이따 와서 점두 치구 궁합두 보거나 하라구.

박 씨: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무당은 복채가 비싸다면서요?

지주처: 아, 그거야 우리 굿이나 한거리 한 다음에 봐주도록 내 말해주지 않으리. 아, 또 복채를 내두 좋구...

박 씨: 꼭 좀 그래주세요.

지주처: 아, 글썄 거리의 강부자네가 돈을 잃은걸 경찰서에서 암만 찾아두 못찾았는데 그 덕산무당한테 가서 점을 치니 야가야가 하겠다 해서 그대루 하니 찾았다지 았나.

박 씨: 저런! 참말 신령님이 있어요. 글썄 나두 혼사말이 났을때 우리 어머니가 무당한테 물어보니 궁합이 안맞는다고 혼사를 하지 말라는걸 우리 아버지가 무당같은 소리를 한다구 하면서 억지로 혼사를 시키더니 한해두 못살구 파부가 되구...

지주처: 그러게 이번 덕산무당이 오면 꼭 복순이 궁합이랑 보구 잔치를 해두 하라구.

박 씨: 잔치는 아무래두 할거지만 날이래두 푹푹히 받자구 그러니다.

지주처: 아, 그래야지. 서술은 이따 주지.

박 씨: 예.

△ 박씨 돌아간다.

△ 이어 지주가 나온다.

지 주: 그런데 큰무당이 왜 안올가?

별씨 구장네 집에 온게 아닌가?

지주처: 그러게말이에요.

돌 쇠: (천천히 들어오며) 옵니다.

지주처: 큰무당이 온단말이지?

돌 쇠: 예, 저걸 보시우.

△ 지주와 지주처 마을어구를 바라본다.

지주처: 훑아 참! (돌쇠에게) 야 돌쇠야, 넌 냉큼 들어가서 낚상을 내오너라, 낚상!

돌 쇠: 낚상은 또 해서 뭘하나...

△ 돌쇠 혼자 중얼거리며 대문으로 들어간다.

지주처: (돈주머니를 풀며) 여보, 돈 좀 내우, 돈 이요.

지 주: 그래 얼마면 되겠나?

지주처: 적어도 오십원은 낚아겠는데 내 이십원을 났테니 령감은 삼십원만 내우?

지 주: 삼십원이면 소가 한짝이야 소가!

지주처: 삼십원이 아까우면 면장이구 뭐구 다 견어치우구맙시다. (들었던 돈을 쥔진다.) 면장은 령감이 하지 내가 한다구 그러우?

지 주: 아, 이거 가만 가만. (떨리는 손으로 돈을 센다.)

지주처: (돈을 나눠채며) 아이구 답답해라. 큰무당이 코앞에 왔는데 세기나새나.

△ 지주부처는 서로 돈들을 움켜쥔다.

지주처: 야, 돌쇠야!

돌 쇠: (낚상을 들고 어슬렁어슬렁 나오며) 네, 나갑니다.

△ 무당들이 탄 인력거가 들이닥친다.

△ 마을사람들이 모여든다.

△ 지주처 낚상을 빼앗아 그우에 돈을 놓고 인력거앞으로 나가 길을 막으며 뚫어엮인다.

지주처: 선돌마을 황지주 황갑정이네가 덕산신령님을 맞이하러 나왔습시다.

큰무당: 하! 우리는 여기 구장네 집으루 가는길 인데...

지주처: 신령님은 굽어살피소서. 이 선돌마을에 행차하시어 어찌 황주사 황갑정의 집을 그저 지나려 하시옵니까?

△ 지주처 지주에게 눈짓 손짓으로 뚫어엮으리라고 한다.

△ 지주 허겁지겁 처옆에 뚫어엮인다.

지주처: 신령님을 받드는 마음이 이 황갑정네를 내놓구는 선돌마을에 더 큰 사람이 다시 없는줄 아옵니다.

△ 지주처 낚상을 보라는듯이 치켜올려든다.

△ 큰무당 지전이 널려진 낚상을 내려다본다.

녀인 1: 저것 좀 보우, 시퍼런 십원짜리가 다섯장

씩이나...

녀인 2: 그러게말이웨다.

큰무당: (작은 무당들에게) 신령님의 분부니 모시러 나온 집부터 들리자!

작은무당들: 예!

지주처: 황송하옵니다.

△ 지주처 무당들을 데리고 대문으로 들어간다.

지 주: 자, 인력거들은 저리 돌아 뒤편에다 대게.

△ 지주도 뒤편에 들어간다.

녀인 3: 타작할 때는 좁쌀 한줌을 가지구두 양양 거리면서 오십원이라니...

녀인 4: 그러게 저렇게 돈놓구 살지요.

△ 구장처가 뛰어든다.

구장처: 돌쇠야, 우리 집으루 오는 큰무당을 이놈의 집에서 가로챘다는게 사실이나?

돌 쇠: 글썽요. 가로챘는지 모로챘는지 큰무당이 이 집으루 들어간것만은 사실이에요.

△ 구장처 대문을 박차고 들어가려는데 지주처가 나오다 이마를 마주친다.

지주처 구장처를 밀어던지고 대문을 건다.

구장처: 훑지, 이년놈들이! (걸린 대문을 두드리며 악을 쓴다.) 이년아, 문을 열어라! 이 돼지같은 년놈들아, 문 열어라!

△ 이때 구장이 전도부인과 같이 오다가 자기 처를 보고 달려간다.

구 장: 아니 왜 이러우? 무슨 일이요. 이게 응?

구장처: 여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소. 글썽 우리 집으루 오는 큰무당을 이 도적놈의 집에서 백원짜리를 상에다 놓구 나와 가로챘으니 아이구 분통이 터져요. 분통이!

구 장: 하, 이거 동리 한복판에서 남부끄럽게 뭘 이러우?

구장처: 그래 당신은 분하지도 않소. 분하지도 않아요? 내가 청해오는걸...

△ 구장처 구장을 붙들고 늘어져 녀두리를 한다.

구 장: 뻘소, 뻘소.

전도부인: 참으세요. 점잖은 구장사모님이 그까짓 무당을 놓고 싸워서야 되겠어요, 참으세요!

구장처: 아이구 분해, 아이구 가슴이야.

구 장: 여보, 그러지 마요. 그까짓 무당 아니래두 내가 이제...

△ 구장 자기 처의 귀에 대고 수군거린다.

구장처 : 아니 뭐요? 당신이 참말 면장이?

구 장 : 그렇게 어서 집으루 갑시다.

△ 구장 자기 처를 끌고 나간다.

구장처 : 이년아, 어디 두구보자!

△ 구장처 지주집을 돌아보고 버르며 나간다.

전도부인 : (눈을 감고 합장을 하며) 오 주여! 요 사스러운 마귀의 꾀임에 빠져 헤매는 불쌍한 양떼들을 구원해주옵소서... 아멘! (눈을 뜨고 마을 사람들을 돌아보며) 여러분, 서로 싸우지 말구 사랑합시다. 원쑤가 왼뺨을 치면 바른뺨을 내뺨시다. 예수를 믿읍시다. 예수를! 이제 기부금을 모아서 이 선돌마을에두 례배당을 짓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두 다 하느님의 복을 받구 행복하게 됩니다.

△ 전도부인 구장이 나간쪽으로 따라나간다.

돌 쇠 : (전도부인의 흉내를 내면서)

오! 주여 나는 원쑤가 왼뺨을 치면 그놈의 왼뺨 바른뺨 다 치겠습니다. 아-맨!

하하하...

△ 동리사람들 웃으며 나간다.

△ 뒤이어 중이 목탁을 두드리며 들어온다.

돌 쇠 : 저건 또 뭐야, 부처님까지 달려드는군. 아이구, 이거 스님 오십니까?

△ 중은 간단히 합장하고나서 대문앞에 가 넘볼부터 외운다.

남무 미간백호 상아미타불

남무 미제수양 상아미타불

남무 안목정쟁 상아미타불

남무 이문제성 상아미타불

△ 중이 넘볼을 다 외우고나서 비로소 돌쇠에게 말을 건다.

중 : 그새 황주사택에서 모두 무고하시옵니까?

돌 쇠 : 예, 아 왜 이제야 오십니까?

중 : 저 웃동리에 타작밭을게 있어서 갔다가 늦었습니다.

돌 쇠 : 절에서두 타작을 합니까?

중 : 아 하다마다요. 지금 우리 절에 논이 한 삼십만평 되구 밭은 한 오십만평 됩니다.

산림은 수천정보나 가지구있지요.

돌 쇠 : 아, 그런데 동냥은 왜 하구 다닙니까?

중 : 그거야 다 신도들의 정성을 받아들이는겁지요. 그런데 황주사님은 지금 계십니까?

돌 쇠 : 예, 마침 잘 오셨습니다. 지금 주사님택에서 큰무당을 데려다 십원짜리, 백원짜리를 열장 스무장 내놓구 점을 치구있구 이제 전도부인두 와서 땅을 기부받겠다는데 그러단 절간에서 동냥 받아갈것은 남지 않겠수다.

중 : 아니 이런 변이 있나?

돌 쇠 : 어서 들어가보시유.

△ 중이 대문을 두드린다.

△ 지주가 문을 열고 나온다.

지 주 : 아이구, 스님 어서 오십시오.

중 : 그새 안녕하셨습니다까?

지 주 : 어서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 중 안으로 들어간다.

돌 쇠 : (따라들어가려는 지주에게)

저, 주사님!

지 주 : 뭐야?

돌 쇠 : 전도부인이 탁군수님의 처제랍니다.

지 주 : 뭐? 탁군수님의 처제?

돌 쇠 : 예, 그래서 지금 구장이 전도부인에게 성황터밭을 주구 면장자리를 벌려구...

지 주 : 응, 고놈이...

돌 쇠 : 내 이제 전도부인을 주사님한테루 끌어들 일테니 (귀에 대고 수군거린다.)

지 주 : 응 그렇지! 네가 참 궁냥이 이만저만 아니구나. 꼭 그래라!

△ 지주 문을 닫고 들어간다.

△ 만춘이 들어온다.

만 춘 : 야, 전도부인이 여기루 온다.

돌 쇠 : 그래? 그것까지 끌어넣자!

이놈의 집에서 소작인들한테서는 풋강냉이 한이삭 따다 먹은것까지 박박 계산해서 빼앗아다가 중이요, 무당이요한테는 금뎡이두 아끼지 앓구 섬기는데 한번 꼴타를 멕여놔야겠다.

만 춘 : 그래두 전도부인은 점잖은체하는데 싸움판에 걸려들겠니?...

돌 쇠 : 그것들이 사람들앞에서는 사랑이요 뭐요 하면서 그럴듯한 수작을 하지만 저희들끼리는 만나기만 하면 싸움질이다.

만 춘 : 야, 저기 온다.

△전도부인이 《찬송가》를 부르며 들어온다.

돌 쇠 : 어서 오십시오. 저 례배당 지을 땀때문에 그러면 우리 주사님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내가

다 말씀올렸는데 땅을 기부하겠다고 그랬다.

전도부인: 그래요? 그럼 한번 만나보겠어요.

돌 쇠: 지금 중까지 와서 땅을 기부받겠다는데  
어서 들어가야지 남을게 없겠습니다. 요뒤루 돌아가면  
뒤대문이 있습니다.

△전도부인 다리를 헛짚으며 빠른 걸음으로 뒤문을  
향해 나간다.

돌 쇠: 하하하... 자, 이래놓으니... 이놈의 도깨비  
당안에 온갖 귀신이 다 모여들었다. 어디 무슨 판  
이 되나 좀 두고보자!

△돌쇠 만춘이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방창이 들려  
온다.

저저마다 신성한체 날뛰는 무리

지혜 많은 총각한테 걸려드누나

무당도 부처님도 하느님도

모조리 모조리 걸려드누나

△방창속에 무대 바뀐다.

## 제 4 장

△때:전장에서 련달아

△곳:지주집프락

△무대: 2장과 같다.

△무대 바뀌면 황지주가 프락에서 중과 이야기를  
하고있다.

중: 우리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머님께서 생전  
에 약속하시기를...

지 주: 아 알고있습니다. 다 알고있습니다. 그러  
게 저 성황터밭들이 내 땅으로 되지만 하면 그  
땅의 절반을 절에다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 황주사님이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다 어머님대로부터 부처님을 깊이 믿어왔기때문  
이라는것을 잊지 마시구 해마다 꼭꼭 불공을 드  
려야 합니다.

지주: 아, 여부가 있습니다.

△돌쇠가 전도부인을 데리고 들어와 황지주와 중  
이 이야기하는것을 잠깐 같이 듣는다.

△돌쇠는 전도부인에게 고개로 재촉하고 나간다.

△전도부인이 잔기침을 하며 나선다.

전도부인: 안녕하십니까?

지 주: 예, 누구신지요?

전도부인: 저는 거리 레배당에 있는 전도부인입

니다.

지 주: 예, 아이구 이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도부인: 저 찾아온건 달래서가 아니라 이 마을  
에두 레배당을 지어야 하겠는데 저 성황당인가  
한것이 있는 그 땅을...

지주: 예, 예! 그 땅이 제거루 되지만 하면 틀림  
없이 레배당 짓는데...

중: 가만 그 땅이야 이자 약속하기를 우리 절에  
바치기루 하지 않았습니까?

전도부인: 가만 좀 계세요. 저 우리 레배당 짓는  
데...

중: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소. 남이 먼저 와서  
이야길 하는데 도중에 뛰어들어가지구 이런 실례  
가 어디 있소?

지주: 저... 저... 이거...

전도부인: 실례는 누가 실렌지 모르겠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는 제가 구장님을 통해서 벌써 오래  
전부터...

지주: 저, 저...

중: 오래구 옛날이구 백성들이 농사하는 땅을 갈  
아 몽개구 거기다 레배당을 짓겠다니 그게 어디  
만민을 사랑한다는 예수교로서 할 일입니까?

△지주가 어찌할바를 몰라하는데 돌쇠가 쪽걸상  
을 내다놓고 앉아 구경이나 하라고 한다.

△돌쇠도 프락에 앉아 새끼를 꼬며 구경을 한다.

전도부인: 여보세요, 거기 레배당을 짓자는것두  
다 이 동리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  
구 불쌍한 령혼들을 구원하자는겁니다.

중: 농사할 땅이 없어져서 배가 고프면 천당은  
고사하구 그 높은 언덕에 짓는 레배당엔 무슨 기  
운으로 찾아 오르겠소.

전도부인: 주 예수께서는 가르치시기를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중: 그거야 예수가 말 안했어두 나는 빵만 먹구  
는 못살겠수다. 조밥이래두 밥을 한 그릇씩 먹어  
야지.

돌쇠: 그 말은 옳수다.

전도부인: 빵이랜다구 참말 서양빵을 말하는게  
아니라 우리루 말하면 밥을 말하는겁니다.

중: 아 그것두 뻔한 일이지요. 사람이 밥만 먹구  
야 어떻게 살니까. 간장, 된장두 먹구 김치에 나  
물, 기름과 두부두 먹어야지요.

돌쇠: 그것두 옳구요.

△지주 돌쇠와 같이 밭장구를 치려다가 흠칫하며 그만둔다.

전도부인: 매일 경만 읽는다면서두 참말 무식하군요.

중: 누가 참말 무식한지!

전도부인: 사람에게에는 정신의 양식이 있어야 한다는겁니다.

중: 그건 예수가 태어나기 천년전에 우리 석가모니께서 벌써 다 가르치신것입니다.

돌쇠: 한대 저 부처님은 어디 사람입니까?

중: 저... 인디아라구 남쪽에 있는 나라의 왕아들입니다.

돌쇠: 예, 예수는요?

전도부인: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땅에 태어난 유대사람인데요...

돌쇠: 이스라엘이라는게 어디쯤 있는가요?

전도부인: 저 머나먼 서양나라입니다.

돌쇠: 다 머나라 사람들이군요. 한데 어느쪽이 더 우리같은 사람들을 위하구 사랑합니까?

전도부인: 그거야 물론 우리 예수님이지요.

중: 그거야 물어볼게나 있소. 우리 부처님의 귀생긴것만 보시오.

전도부인: 우리 예수님은 원쑤두 사랑하라구 하셨습니다.

중: 그럼 나두 사랑하시우.

전도부인: 뭐예요?

중: 나하구야 지금 싸우고있지 않습니까?

전도부인: 예수님은 원쑤가 왼뺨을 치면 바른뺨을 내대라고 하셨습니다.

△중이 목탁을 한번 툭 친다.

△전도부인이 흠칫하며 한걸음 물러선다.

중: 그렇다구 참말 뺨을 쳐볼 생각은 없습니다.

전도부인: 쳐보세요. 맞아드릴테니요.

중: 우리 부처님은 원쑤는 새두 개, 돼지나 벌거지들두 불쌍하다구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돌쇠: 그럼 참말 고기를 안잡숫나요?

중: 아 안먹다뿐이겠소.

돌쇠: 하 이런! 지금 부엌에서 스님이 오셨다구 점심을 차리는데 통닭으루, 돼지발쪽으로 잔뜩 상에 놓습니다. 그럼 그만둬야지요?

중: (마지못해) 그야 물론 그만두지 않을수 없지

요.

돌쇠: 그럼 빨리 알려야겠군.

△돌쇠 나간다.

전도부인: 그런 위선은 좀 걷어치우세요.

중: 하 벌거지두 죽이지 말라는게 어째서 위선이란말이요.

전도부인: 그렇게 모든 욕망을 버리구 산속에 들어가 도를 닦는다면서 왜 자꾸 나와가지구 땅은 걷어들이는겁니까? 지주가 되려는가요?

중: 아 그럼 지주가 되는게 나쁠니까? 여기 황주사님두 지존데.

△황지주가 벌떡 일어선다.

전도부인: 누가 나쁘다고 했습니까? 지주가 되려는가 물었지요.

중: 그게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구 뭐요?

전도부인: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자들가운데는 지주두 많구 장사하는 사람두 많습니다. 레배당에 오시는분들은 돈없는 사람보다 돈있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황지주 도로 앉는다.

중: 아 뭐 우리 절간에 찾아오는 사람은 안그런줄 아시우? 재산 없이야 어떻게 러비쓰구 수백리 절간에까지 찾아와서 불공까지 드리겠소. 저 황주사님만 해두 보시오.

전도부인: 황주사님은 이제 여기 레배당이 서면 우리 예수교의 독실한 신자가 될것입니다. (지주를 바라보며) 그러시지요?

△지주 열결에 《예, 예》하며 일어선다.

중: 여보시오. 남의 신도는 왜 빼앗으려 하오? 황주사로 말하면 어머님 선대로부터 우리 절의 독실한 신도올시다. 본래 황주사 어머님이 아이를 못낳아서 우리 절간에 와서 백일동안 기도를 올리구 황주사를 낳았는데...

전도부인: 그런 비과학적인 말을 누가 믿습니까? 그건 무지한 여성들을 유혹하는겁니다.

중: 여보시오. 그럼 예수는 아버지두 없이 처녀가 신령을 받아 낳았다는건 과학적이요? 허 참!

전도부인: 아니 남의 신성한 종교에 대해서 비방증상은 왜 합니까?

중: 비방증상은 누가 먼저 했소, 우리 불교는 예수교같이 그렇게 간사하고 요사스럽지 않습니다.

전도부인: 우리 예수교는 불교같이 그렇게 음흉

하구 미개하지 않습니다.

△지주는 도로 주저앉는다.

중: 여보시오, 우리 불교는...

전도부인: 여보세요, 우리 예수교는...

중: 존엄하구 유구하구

전도부인: 문명하구 현대적이구.

중: 자비자비 대자비하구.

△돌쇠가 나온다.

전도부인: 그렇게 대자비해서 사람을 죽여요?

중: 아니 무슨 소리요? 우리 불교에서 언제 사람을 죽였단말이요?

전도부인: 절간의 종을 만들 때 남의 어린애를 빼앗아다가 쇠물에 녹여 종을 만든건 무엇이예요?

《에밀레종》을 모르세요?

중: 그거야...

지주: (말리며)가만... 이거 이러단 해가 다 지겠는데 이렇게 합시다.

전도부인: 주사님하구 의논이 잘 안되면 저는 구장님과 하던 일을 성사시키겠습니다. (나가려 한다.)

지주: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레배당짓는 건 하나두, 조금두, 절대 걱정 마시구 군수령감님한테 말씀이나 좀 잘해주십시오.

전도부인: 예, 그것두 절대 넘려 마세요.

중: 하여튼 그 땅은 우리 절에 바치기루 방금 언약한것이니 그리 아시우. 부처님앞에서 거짓말을 하면 지옥에 가서 집게로 혀를 뽑히웁니다.

지주: 예, 수리수리사바하

△지주처가 나오며 소리친다.

지주처: 여보 령감! 큰무당이 령감두 빨리 들어오래요.

중: 아니 황주사님두 점을 치시우?

지주: 가만 가만... 참 인사하오. 거리 레배당의 전도부인이시오, 저의 아낙입니다.

지주처: 어서 오시우.

전도부인: 처음 뵈겠습니다.

지주처: (지주에게) 점괘 다 식겠수다. 빨리!

전도부인: 한데 어떻게 훌륭한 집 사모님이 무당이나 성황당같은 미신에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중: 옳습니다. 더우기 황주사야 부처님께 바친 몸인데...

△큰무당이 문가에 나와 서있으나 전도부인은 모

르고 설교를 계속한다.

전도부인: 무당이나 점쟁이들은 촌구석으루나 찾아다니며 거짓말루 사람들을 홀려가지구 돈이나 빼앗아먹는 마귀들입니다.

중: 옳습니다.

큰무당: 야 뭐가 어째? 마귀? 너희들 오늘 잘 만났다.

△큰무당은 전도부인의 멱살을 틀어잡는다.

큰무당: 그러지 았아두 네년이 미신이니 뭐니 하면서 나를 비방하구 다닌다는 말을 내가 들었다.

전도부인: 이게 무슨 무례한짓이야, 남이 전도를 하는데... (지주처를 보며) 저런 사기군들에게 속아서는 안됩니다.

중: 옳습니다.

큰무당: 야 그래 난 사기를 한다. 그럼 너는 뭘하니 감사한년!

전도부인: 누구보구 년이래? 누구보구? 나는 신성한 교리를 전도하는 전도부인이다.

큰무당: 교리? 응 죽어서 천당에 가라는 소리? 천당이 그렇게 좋으면 어서 빨리 죽어서 천당에나 갈게지 뭐 밥벌이할게 없어서 전도니 교리니 하면서 거짓말만 하구 돌아다니니? 련애질이나 그만둬라.

중: 허허! 그건 옳은 말이요.

△마을사람들이 들어다본다.

전도부인: 아! 저 마귀들을 쫓아버리세요. (지주에게) 전 이 사실을 군수님에게 모두 말하겠습니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주: 아 노를 참으십시오. (처에게) 여보 당신네는 어서 안으로 들어가우.

큰무당: 좋아요, 들어갈게 있소, 아주 갑시다그러.

지주처: 아이구 큰무당님 왜 이러십니까? (지주에게) 여보 당신은 정신이 쑥 나갔소?

당신이나 저 너자를 데리구 어서 나가요. 별걸 다 끌어들여가지구 이 야단이 아닌가.

전도부인: 좋아요, 가겠어요. 후회하지 마세요.

지주: 아 선생님! (처에게) 임잔 뭘 안다구 그래?

저분이 군수령감의 처제분이시야.

지주처: 예?! 아이구 그래요? 여보 전도부인님!

큰무당: 좋다! 이 집에서 군수처제요 중이요 하면서 온갖 잡귀신을 끌어들이는데 신령님 무서운줄은 모르누나. 굿이구 떡이구 난 간다. 어디 보자!

△큰무당 활개치며 나가려는데 앞에 선 중과 마주친다.

중: 아니 이게 무슨 버릇이요?

큰무당: 이젠 또 다 뭐야? 응 너땡구나, 중대가리 같은게!

중: 뭐요? 좀 점잖게 구시오. (지주에게) 황주사님은 독실한 신도로서 어찌하여 저런 미신을 집안에 끌어들이는지 부처님을 욕되게 하십니까?

전도부인: 옳아요. 무당이나 성황당은 믿는것은 우매한 미신입니다.

큰무당: 야, 우리보구 미신미신 하는데 부처님이요 예수요 하는 너의 종교들은 더 큰 미신이더구나.

중: 우리 불교가 무슨 미신이요?

전도부인: 우리 예수교가 왜 미신이야?

큰무당: 우리는 조그만 점상이나 농구 점이나 치지만 너희들은 사람들을 얼마나 속였으면 그 많은 돈을 끌어모아서 가는곳마다 그렇게 큰 절간이요, 례배당이요 하는걸 짓구 거드럭거리니, 그래두 더 큰 미신이 아니야?

전도부인: 미신은 왜 미신이야? 이 세상을 창조한 건 우리 하느님이시다.

큰무당: 우리는 신령님의 힘을 빌어 사람들의 사주, 팔자, 신수를 판단하구 복과 화를 주게 한다.

중: 우리 불교는 누구든지 모든 욕망을 버리기만 하면 극락세계에 가서...

큰무당: 흥! 그러니 너는 극락세계에 가기는 코집에 굴렀구나.

중: 내가 왜 극락세계에 못간단말이요?

△작은무당들 나온다.

큰무당: 욕망을 버리라는 사람이 요전날 우리 뒤집 개장집에서 와서 몰래 개고기에 술까지 먹구 갔으니말이다.

△중 갑자기 큰소리로 웨치며 목탁을 요란하게 두드린다.

중: 부처님에게 죄를 지으면 죽어 지옥에 가서 류황불가마에 들어가리라!

△지주가 중앞에 가서 합장한다.

△중이 녀불을 외운다.

남무 문수보살

남무 보현보살

남무 관세음보살

남무 대세지보살

남무 금강장보살

△그것을 보고있던 큰무당이 중한테 질세라 방울을 흔들며 소리높이 녀두리를 한다.

큰무당: 오호네야! 신령님을 노엽히면 백만금도 허사로다.

△지주처가 그 앞에 가 엎드린다.

△큰무당과 작은무당들 어울려 주교받으며 굿소리를 한다.

큰무당: 오늘날에 황지주집에

작은무당들: 오늘날에 황지주집에

큰무당: 온갖 귀신이 날치는데

작은무당들: 온갖 귀신이 날치는데

큰무당: 신령님은 굽어보시사 마른벼락, 불벼락을 머리우에 내리소서!

△전도부인도 멍청하니 섰다가 정신이 든듯 마루에 올라서서 성격책을 높이 들고 소리를 지른다.

전도부인: 여러분! 최후심판의 날이 가까와옵니다.

모두다 회개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지주가 그의 앞에 가 꿇어엎딘다. 전도부인이 찬송가를 뽁뽁 불러댄다.

전도부인: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에 찬송부르니

그 소래 높도다 그 소래 높도다

그 소래 소래 높도다

△중, 무당들이 다시 떠들기 시작하여 셋이 제각기 고아댄다.

△지주와 지주처 얼혼이 나간듯 갈팡질팡하는데 돌쇠의 폭소속에 막이 내린다.

(다음호에 계속)

# 만경대초가집에 태양이 솟아

김학연

온 누리의 창문과 창문들이  
이 초가집 방문을 우러러  
속연히 열린다  
온 인류의 가슴과 가슴들이  
이 초가집 뜨락에 이르러  
뜨거이 불란다  
이 시대  
이 하늘  
이 땅의  
첫 문이 열린 집이어

추녀낮은 집  
저 방문과 사립문이 열리기전에  
하늘도 먹구름에 덮여있었다  
대지도 눈얼음에 덮여있었다  
봄은 지구우에  
몇천만번 오고갔건만  
녹을줄 모르는 언 가슴  
피는 꽃을 보고도  
나는 새를 보고도  
봄을 몰랐다

위대한 태양이 집에 솟아  
빛발은 우주를 비치어  
산도 강도 들도  
봄을 안고 기쁨에 목매여 울고울었다  
어버이수령님 저 문을 나서시여

자욱자욱 백두만년설을 녹이시며  
걸음걸음 높이 휘날리신 주체의 붉은기  
그 빛발아래  
운명의 길 열어가는 삶의 숨결  
세상에 처음 굽이치기 시작하였다

저 문이 열리어  
우리 사는 행복의 창문들은 푸르고  
그 창문가마다엔  
밝은 미소 밝은 노래 넘쳐나라  
우리모두의 가슴과 가슴  
인간의 긍지와 존엄으로 고동쳐라  
저 문이 열리어 조선은  
인류리상의 상상봉  
그우로 오르는 휘황한 길우에  
찬란히 빛나는것 아닌가

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우러러 은혜로운 태양으로 받드는  
만민의 가슴  
이 초가집문에 들어서며  
뜨거이 젖는다  
혁명의 새 력사가 시작되고  
세계의 미래가 열린  
삶의 존엄과 자주의 큰길 펼쳐준  
이 숭엄한 문 넘어  
인류는 새세기의 아침을 바라본다



# 축원의 봄

변홍영

한떨기 꽃을 피워도  
이 트랙가에 피우고싶어라  
한그루 나무를 가꿔도  
이 울바자가에 옮기고싶어라

봄  
4 월의 봄날에  
언제나 그리워 찾아오는  
소나무 푸르른 만경봉기슭  
만경봉기슭의 정든 초가집

경건한 마음으로  
초가집 트랙에 들어서면  
풍상에 찬 세월을 헤쳐넘으시며  
주체조국의 이 봄날을 꽃피워주신  
수령님의 사랑이 가슴 뜨겁게 안겨와라

아, 인민의 가난이 서린  
이 초가집에 탄생하시여  
인민의 행복이 만발하는  
락원의 강산을 펼쳐주신 수령님

광막한 백두산야  
타오르는 우등불가에서  
멀리 별들이 흘러가는  
조국의 하늘가를 바라보시며  
그 얼마나 그리시던 이 봄날이던가

첨첨 고난의 행군길을 헤쳐오신  
조국진군의 강언덕에서  
떨기떨기 피어난 진달래를 보시고도  
인민의 천만소원이 꽃필  
영원한 조선의 봄을 안아보시지 않으셨던가

수수천만년  
짓밟히고 수모 받던 인민의 가슴에  
처음으로 세계의 주인된 존엄과  
참된 삶의 기쁨을 안겨주시려  
그 몇천몇만리

오로지 이 봄을 위하여  
20 성상 총검을 비껴드시고  
백두의 만년장설을 녹이시며  
일제의 백만대군을 쓸어눕히셨고

오로지 이 봄을 위하여  
전쟁의 불구름을 헤치시며

강대한 미제국주의를 타승하시고  
재가루 날리는 폐허우에  
주체의 나라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셨나니

그토록 멀고도 영광에 찬 길우에서  
세월이 알지 못하는 풍상고초를  
한평생에 다 겪으시며  
수령님 가꿔주신 봄이기에  
인민이 그리도 바라던 봄이기에

봄이면 봄마다 찾아오고싶고  
찾아오면 올 때마다 뜨거움에 젖어  
목메여 우러르는  
혁명의 고향집

이 봄을 안으시고  
이 조국을 안으시고  
수령님 걸어오신 자육자육에  
천만송이 꽃을 피워드리고싶어  
불타는 인민의 마음  
끝없이 만경대로 굽이쳐흘러라

아, 가난하고 설음 많던 조선을  
락원의 햇빛 넘치는  
인민의 새세계로 빛내시고  
온 누리에 주체의 봄을 펼쳐주시는  
위대한 인민의 태양 **김일성**동지!

우리러  
천년을 따르고  
만년을 받들어갈  
이 가슴에 넘치는 깨끗한 충성심  
이 가슴에 넘치는 다함없는 고마움

한떨기 꽃을 피워도  
이 트랙가에 피우고싶어라  
한그루 나무를 가꿔도  
이 울바자가에 옮기고싶어라

오직 한마음  
위대한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누리에 끝없이 설레이는  
4 월의 봄  
축원의 봄이여!

#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흠모와 충성의 노래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에 대하여-

최언경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의 첫시기에 창작보급된 혁명송가 《조선의 별》은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첫 송가이다.

송가에는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를 민족의 찬란한 향도성으로,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려는 우리 인민들과 청년공산주의자들의 불같은 념원과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이 뜨겁게 차넘치고있다.

민족수난의 암담한 시기 탁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한 탓으로 하여 조선인민의 혁명투쟁은 일대 시련을 겪고있었으며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있었다. 이 항방없는 방황의 길에서 우리 인민에게 차례진것은 참혹한 살해와 피의 교환뿐이었다.

이리하여 수령을 모시지 못한 민족의 고통과 불행을 온몸으로 통감한 조선인민은 숨겨가는 조선혁명을 위기에서 구원하고 조선인민이 나아갈 참된 진로를 밝혀줄 위대한 령도자의 출현을 목마르게 기다리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시기에 위대한 사상과 탁월한 령도력, 강철의 의지를 지니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께서 간고하고도 준엄한 혁명투쟁의 중하를 한몸에 안으시고 조선혁명의 진두에 거연히 나서시였다.

그렇게도 애타게 그리며 기다리던 위대한 수령을 맞이한 뜻있는 조선의 애국자들과 혁명가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안고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와도 같이 그이께서 혁명활동을 벌리고계시는 길림으로 모여왔다.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이를 혁명의 수령으로,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영원히 따르고 받들려는 이천만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을 담아 우리 인민을 어둠속에서 해방의 새벽길로 이끄시는 새별이 되어달라는 뜻에서 그이의 존함을 《한일》자와 《별성》자를 쓰는 **김일성** 동지 또는 한별동지라고 불렀으며 그후에는 것처럼 위대하신 민족의 령도자를 어찌 새별에만 비기라하여 조선의 밝은 태양이 되어달라는 념원에서 다시 《날일》자와 《이름성》자를 쓰는 **김일성** 동지로 고쳐부르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이토록 흠모하여 높이 우러러모신 영광스러운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첫 대오속에는 열혈 혁명시인 김혁동지도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초기혁명활동시기에 몸소

발간하시고 지도하신 혁명잡지 《불세워크》의 주필이었던 혁명시인 김혁은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간직하고 혁명적시가와 출판물을 통하여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방침들을 인민들의 가슴속에 뜨겁게 심어주었으며 혁명의 지조를 지켜 장렬한 최후를 마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자기수령께 변함없이 충직했던 조선의 참된 청년공산주의자였다.

그는 바로 걸출한 인민의 수령이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 조선혁명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향도의 별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우리 인민 모두의 절절한 소망과 그이에 대한 자기자신의 것처럼 맑고 깨끗한 충성의 마음을 담아 삼가 충성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을 심장으로 높이 불렀던것이다.

이렇게 하여 지금으로부터 50여년전 주체의 혁명위업이 처음으로 개척되던 그 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나날에 위대한 수령님을 이처럼 경모하여 조선의 첫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심장으로 높이 부르던 이 영광의 송가, 충성의 노래가 오늘 주체의 혁명위업이 활짝 꽃피어나고있는 락원의 강산에 다시 힘차게 울려퍼지게 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날 지하투쟁과 항일무장투쟁을 할 때 많은 동지들이 곤난과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도와주고 보호하여 주었습니다. 동지들은 나의 건강을 넘려하여 자기들은 통강냉이를 먹으면서도 나에게 **좁쌀**을 구해주느라고 무진 애를 썼으며 온갖 성의를 다하여 나를 보살펴주었습니다. 항일유격대원들기운데는 적들로부터 사령부의 안전을 보위하기 위하여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바친 동지들도 많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동지들의 사랑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혁명송가 《조선의 별》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를 혁명의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끝까지 믿고 따르며 그이께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이께서 이끄시는 혁명위업에 영원히 충성을 다하려는 우리 인민들과 청년공산주의자들의 확고한 의지와 신념이 뜨겁게 반영되어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라나 참다운 혁명의 길에 나선 조선의 첫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를 수령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것을 조선의 영광, 조선의 행복으로 생각하였으며 수령님을 충성으로 받들고 싸워나갈때 조국해방의 새아침도,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찬란한 미

래도 맞이할수 있다는것을 확신하고있었다.

송가는 바로 이러한 사상, 이러한 충성의 감정을 3 개의 절에 담아 뜨겁고 절절하게 노래하고 있다.

송가는 먼저 제 1 절에서 캄캄한 밤하늘에 찬란히 솟아 삼천리강산을 밝게도 비치는 빛나는 새별과도 같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길에 거연히 나서시여 조선혁명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를 혁명의 수령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의 끝없는 감격과 기쁨을 감명깊게 노래하고있다.

조선의 밤하늘에 새별이 솟아  
삼천리강산을 밝게도 비치네  
짓밟힌 조선에 동은 트리라  
이천만 우리 동포 새별을 보네

망국의 비운이 온 삼천리강산을 뒤덮은 그 참담한 시기에 얼마나 애타게 그리고 바라던 민족의 태양이시며 그 얼마나 간절히 모시고 싶던 위대한 수령님이신가!

태양이 없는 우주와도 같이 수령을 모시지 못한 조선혁명은 암흑의 나락속에 떨어져 몸부림치고 있었다.

풍랑사나운 파도에 떠밀리는 한척의 쪽배와도 같이 갈길을 잃은 조선혁명은 막막한 피바다를 헤엄쳐갔고 가련한 조선민족은 피멍든 가슴에 당국노의 치욕을 안고 피를 토하며 쓰러져갔다.

이제 조선은 과연 어디로 가야 하는가?

삼천리강산에 내려덮인 암흑의 장막을 헤칠 위대한 태양은 과연 언제나 솟아오르려는가?

이천만 겨레가 가슴치며 통곡하며 안타까이 수령을 부를 때 캄캄하던 조선의 밤하늘에 새별이 솟아오른것이다.

새별, 그이는 민족의 슬기와 념원, 찬란한 조선의 미래를 한가슴에 안으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

유서깊은 만경대초가집에서 탄생하시여 신음하는 겨레의 고통을 온몸으로 통감하시고 일찌기 열네살 어리신 나이에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은 맹세다지시며 압록강을 건느시였고 아버지께서 심어주신 조국해방의 원대한 뜻을 품으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 영생하는 조선혁명의 기치, 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시고 혁명의 수령으로,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솟아오르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활동의 개시, 이는 조선인민의 진정한 혁명력사의 첫 출발이었으며 우리 인민이 수천년 유구한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민족최대의 경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통찰력으로 우리 나라 민족주의운동과 초기 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교훈을 비판적으로 총화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인민 자신이며 따라서 조선혁명은 조선인민자신이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밝혀주시였고 조국도 없었고 당도 없었으며 민족의 운명마저 생사존망의 위기에 처하였던 그 준엄한 시기에 몸소 진두에서 시련에 찬 조선혁명의 가시덤불길을 헤쳐나가시였다.

참으로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게 됨으로써 민족수난의 오랜 력사를 영원히 끝장내고 혁명의 새시대를 맞이할수 있었으며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의 혁명로선을 따라 영광스러운 투쟁과 승리의 길을 걸어나가게 되였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께 맡기고 의지하였으며 충성의 한마음을 다바쳐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었고 그이께서 반드시 조국해방의 위업을 이룩해주시리라 굳게 믿었다.

짓밟힌 조선에 동은 트리라  
이천만 우리 동포 새별을 보네

이 얼마나 확신에 차고 희망에 넘치는 심장의 노래인가!

여기에는 그이께서 잃어진 조국과 빼앗긴 민족의 존엄을 반드시 찾아주시리라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기대와 념원, 확고한 신뢰의 감정이 세차게 맥박치고있다.

제1절에서 이처럼 앙양된 우리 인민의 감정은 송가의 제2절에서 더욱 고조되고있다.

캄캄한 밤하늘 바라다보니  
신음하는 조국산천 어리여 오네  
변치말자 혁명에 다진 그 마음  
이천만 우리 동포 새별을 보네

여기서는 일제에게 짓밟혀 갈기갈기 찢기우고 피멍든 삼천리조국강산을 부둥켜안고 한숨짓고 통곡하는 인민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오로지 희망의 별,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그이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한길에 변심없이 충성다할 굳은 결의를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조선의 청년공산주의자들과 우리 인민들은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을 따르는 그 길에 조국의 해방도 민족의 찬란한 미래도 있다는것을 굳게 믿었기에 그이께서 이끄시는 길이라면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다바쳐나섰으며 죽어도 영생하는 충성의 이 한길에서 혁명의 절개를 굳게 지켜 나섰던것이다.

변치말자 혁명에 다진 그 마음

이천만 우리 동포 새별을 보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맞이한 조선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영원한 신념이고 의지였으며 이천만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결심이었다.

송가의 제 3 절에 이르러서는 벌써 그토록 위대한 수령님을 오늘에서만 노래할수 없는 우리 인민들의 감정이 용암처럼 솟구치고있으며 그리하여 1 절과 2 절에서 축적되어온 수령님에 대한 흠모와 충성의 열정은 그이를 해방된 조국강산에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실 희망과 념원에 차넘치고있다.

간악한 강도 일제 쳐물리치고  
삼천리에 새별이 더욱 빛날제  
조선아 자유의 노래 부르자  
이천만 우리 동포 새별을 보네

송가는 간악한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국해방의 새아침을 맞는 그날 이천만 조선동포가 삼천리 자유의 강산에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 모시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더욱 빛나게 수행해나갈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원대한 리상과 우리 인민의 절절한 념원을 희망에 차서 랑만에 넘쳐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그들은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영상에서 일찌기 그 어느 인민도 맞이한적 없는 결출하고 탁월한 혁명의 수령, 만민이 한마음으로 우러러모실 혁명의 찬란한 태양을 뵈옵게 되었던것이다.

이 위대한 태양의 빛발아래 이천만 우리 인민은 삼천리금수강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지상락원을 건설할것이며 경애하는 수령님을 천만년 길이길이 높이 모시고 살아갈것이다.

이처럼 혁명송가 《조선의 별》은 작품전반을 줄기차게 관통하고있는 사상의 철학적심오성으로 하여 혁명송가로서의 정치사상적풍격을 훌륭히 갖추고 있다.

송가의 이 깊은 철학성은 읽는 사람의 마음을 끝없는 사색의 세계에로 이끌어가며 시는 끝나도 오래도록 끝나지 않는 여운을 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념원과 희망의 상징인 새별에 대한 형상적 비유는 종자의 무게와 작품의 철학적깊이를 사상미학적으로 확고히 담보하는 기본요인으로 되고있다.

새별, 그것은 대공에 반짝이는 못별들중에서도 제일 크고 유난히 밝게 빛나는 찬란한 별이며 뜨고 지는 무수한 별들중에서도 서광을 안고 광명을 안고 첫새벽에 높이 뜨는 희망의 별이다.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

고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이시야말로 감감한 밤하늘에 높이 솟아 삼천리강산에 해방의 새벽을 안아오시고 해방된 자유의 강산에 태양으로 영원히 빛날 조선의 새별이신것이다.

《새별》속에는 작품의 철학적인 종자가 뚜렷이 함축되어있으며 가사전반에서 반복되고 강조된 《새별》로 하여 작품의 사상적지향성은 하나로 줄기차게 일관되고 마디마다 구절마다 심오한 철학적깊이를 체현하고있다.

《새별》에 의하여 형상적으로 담보된 작품의 철학적깊이는 특히 송가의 매 절마다에서 반복되고있는 절구 《이천만 우리 동포 새별을 보네》에 의하여 더욱더 심화되고있다.

절구는 우리 인민의 희망의 새별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숭고한 영상에서 조국의 해방도, 공산주의미래도, 자신의 행복도 확고히 바라다보며 오직 그이만을 믿고 살아가려는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한결같은 지향을 뚜렷이 반영하고있다

혁명송가 《조선의 별》은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흠모와 충성의 감정으로 충만되어 있는 투철한 사상성과 철학적심오성에 있어서뿐만아니라 송가적풍격을 훌륭히 갖춘 고상한 예술성에 있어서도 또한 혁명송가의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혁명송가 《조선의 별》은 무엇보다도 형상의 소박성과 진실성으로 특징적이다.

송가는 캄캄한 밤하늘에 높이 솟아 동터오는 새벽을 밝혀주는 새별과도 같이 수난에 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진두에 거연히 나서시어 조선혁명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신뢰와 흠모의 감정을 꾸밈없이 소박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생활그대로의 감정으로 자연스럽게 노래하고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요란한 정치적술어도, 인위적으로 가공된 《시적》 표현도 화려한 미사려구도 없으며 시적표현과 시어들은 한결같이 소박하고 생활적이며 간명하면서도 통속적이다.

혁명송가 《조선의 별》은 또한 바로 이러한 소박성과 진실성속에 장중하고 숭엄한 송가적풍격을 훌륭히 체현하고있다.

송가의 감정은 처음부터 뜨겁고 절절하게 그러면서도 크고 넓은 사상정서적폭을 가지고 정중하고 숭엄하게, 그리고 장중하고 웅심깊게 서서히 굽이쳐흐르고있다.

송가의 이러한 감정조직은 긴 호흡의 리듬을 기본으로 하고있는 노래의 선률구조와 훌륭히 조화된 운률조성으로 하여 송가로서의 풍격을 더욱 뚜렷이 하고있다.

혁명송가 《조선의 별》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뜨거운 흠모의 감정을 주도

적인 감정으로 하면서도 그것을 어디까지나 구체적인 생활감정과 밀착시켜 정서적으로 형상함으로써 서정시의 본질적특성인 풍부한 서정성을 잘 체현하고있다.

송가에는 단순하고 소박하며 한없이 유순하고 부드러운가운데 사람들의 가슴을 은근히 파고드는 뜨거운 정서가 절절하게 흐르고있으며 그러면서도 때로 장중하고 웅심깊은 걱정이 세차게 파도치고 있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우리 인민의 첫혁명송가인 《조선의 별》은 그 높은 정치사상적풍격과 예술적가치로 하여 우리 인민이 영원히 간직할 귀중한 혁명적재부로, 대를 이어 영원히 높이 부를 불멸의 혁명송가로 되며 참으로 우리 혁명과 송가문학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혁명송가 《조선의 별》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을 어떤 자세와 립장을 가지고 우러러모시고 높이 받들어나가야 하는가를 우리 인민들에게 가르쳐주며 우리 나라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이룩해놓은 충실성의 빛나는 모범을 따라배우게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초기혁명활동시기에 몸소 키우신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수령에 대하여 가장 철저한 혁명적립장을 가지고있었다.

그들은 생사기로운 놓였던 조선혁명의 앞길을 처음으로 개척해나가시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는데 혁명가로서의 자기의 제일생명으로 간직한 조선의 진정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운명을 위대한 수령님께 전적으로 의탁하였으며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수령님을 옹호보위하였다.

열혈혁명시인 김혁동지자신도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혁명임무를 끝까지 수행하는 충성의 한길에 자기의 청춘과 고결한 생명을 마친 참다운 청년공산주의자였다.

혁명의 수령을 충성으로 높이 모시려는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이러한 립장과 관점은 그들자신이 스스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위대성을 심장으로 체득한데 기초하여 생겨난것이였으며 탁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한 혁명가의 고통을 운명으로 통감하면서 그처럼 안타까이 가다리며 그리던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게 된 그때부터 생겨나고 준엄한 혁명의 불길속에서 철석같이 굳어진것이였다.

참으로 시련에 찬 조선혁명의 첫 새벽길을 헤

쳐간 청년공산주의자들의 걸음걸음마다에는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의 수령을 어떻게 충성으로 높이 모셔야하는가 하는 빛나는 모범이 뚜렷이 아로새겨져 있다.

지금으로부터 반세기전 조선혁명의 길이 처음으로 개척되던 그 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시기에 청년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이룩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의 이 고귀한 모범은 오늘도 우리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고귀한 정신적재부로 되고있으며 또한 앞날의 공산주의사회에 가셔도 영원한 감화력과 무한한 힘을 발휘하게 될것이다.

우리는 충성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을 높이 부르며 반세기전 그날의 청년공산주의자들처럼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변함없이 충성의 한길을 걸어나가야 할것이다.

혁명송가 《조선의 별》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을 노래한 우리 인민의 첫 혁명송가로서 귀중한 문학사적재부로 된다는데 있다.

일찌기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의 력사는 자기 수령에게 바친 인민들의 송가를 적지 않게 창조하였지만 혁명송가 《조선의 별》처럼 위대한 수령을 맞이한 그 첫시기에 자기 수령에 대한 그토록 절대적인 신뢰와 뉘그러넘치는 충성심을 담아 이처럼 뜨겁고 절절하게 수령을 노래한 혁명송가는 없었다.

우리의 주체문학력사에 충성의 첫 송가로 영원히 아로새겨질 혁명송가 《조선의 별》을 가지고 있는것은 우리의 주체문학의 영광이고 자랑이며 우리 인민의 끝없는 행복이며 긍지이다.

참으로 혁명송가 《조선의 별》은 그 사상적내용의 철학적심오성, 형상의 소박성과 진실성, 숭고하고 장중하면서도 한없이 부드럽고 유순한 송가적풍격의 원숙성, 시 전편에 흘러넘치는 풍부한 서정성 등 그 정치사상적풍격과 예술적가치에 있어서 혁명송가의 고전적본보기로 그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이 영광스러운 혁명송가의 빛나는 모범은 오늘 위대한 수령님께 바치는 우리 인민의 끝없는 충성심과 함께 대전성기를 맞이하고있는 우리의 혁명적송가문학속에 활짝 꽃피어나고있다.

우리는 불멸의 혁명송가를 가진 인민으로서의 크나큰 긍지를 가지고 위대한 수령님께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여 우리의 주체문학을 충성의 문학으로 더욱 활짝 꽃피워나가야 할것이다.

# 작가들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높일데 대한 당의 방침은 주체문학건설의 강령적지침

차균호

우리 당 발전에서 새로운 력사적전환이 이룩되고 혁명이 더 한층 심화발전되고있는 오늘 영광스러운 우리 당에서는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우리 문학을 주체의 인간학의 높은 경지에 올려세우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작가들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우리 문학을 주체의 인간학의 높은 경지에 올려세우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작가들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한 당의 방침은 우리 혁명과 문학예술 발전의 성숙된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에 과학적해답을 준 독창적방침이며 우리 문학 발전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준 위대한 방침이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이 내세운 이 방침은 공산주의문학건설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투적기치이며 우리 문학을 주체의 인간학으로 더욱 개화발전시키게 하는 혁명적문학건설강령이다.

모든 작가들은 최근 당이 내세운 이 방침의 혁명적본질과 내용, 그 독창성과 의의를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무조건 철저히 옹호관철하기 위하여 온갖 정력을 다 바침으로써 주체문학건설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켜나가야 할것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문학예술의 중요한 사명은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개조하며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것입니다.》**

우리 문학이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개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자기의 사상예술적수준을 한계단 더 높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제사상을 빛나게 구현하고있는 우리 당은 오늘 문학을 더욱 발전시키는 문제를 매우 절박한 시대적과업으로 내세우고있다.

문학을 더욱 발전시키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전면적으로 다그쳐지고 있는 장엄한 현실을 문학에 진실하고 심오하게 반영하기 위한 요구로 된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단결된 우리 인

민들은 오늘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사회주의건설을 힘차게 다그쳐나가며 정치와 경제,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일찌기 있어 보지 못한 찬란한 개화발전을 이룩하고있다.

이르는곳마다에서 주체형의 새 인간 전형인 숨은 영웅들이 많이 나오고 그를 본받기 위한 운동이 거세차게 타번지고있는 우리 현실은 지금 충성의 열정과 전투적기백이 흘러넘치는 일대 혁명적앙양의 시기, 민족적통성번영기를 펼쳐놓고있다.

오늘의 이 벽찬 현실을 옳게 그리고 그 주인공들인 주체형의 새 인간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적면모를 제대로 그려내기 위해서는 문학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참으로 문학을 발전시키므로써만 로동당시대의 이 거대한 서사시적화폭과 새 인간 전형을 심도있게, 진실하게 반영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힘있게 이바지할수 있고 후대들에게도 길이 전할수 있다.

문학을 발전시키는 문제는 또한 문학예술전반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제기된다.

주체적문제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영화와 가극, 연극을 비롯하여 음악과 무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술을 발전시키려면 우수한 문학작품이 선행되어야 한다.

영화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먼저 영화의 사상예술적기초로 되는 영화문학의 창작을 앞세우고 그 질을 높여야 하며 연극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희곡문학창작에서 먼저 혁명을 일으켜야 하며 가극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가극문학창작에서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이것은 지난시기 우리 나라에서 일어난 영화혁명, 가극혁명, 연극혁명의 기초에 문학의 혁신적성파가 안받침되어 있었다는것만 봐도 잘 알수 있다.

사실 영화문학같은것은 소설문학을 앞세워 발전시키고 그 성과에 기초할 때에 더욱 빨리 발전할수 있다.

명가사가 나와야 명곡이 나오고 명곡이 나와야 좋은 무용이 나올수 있는것처럼 문학예술전반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학을 앞세워 발전시켜야 한다. 이것은 문학예술발전에 작용하는 하나의 법칙이라고도 볼수 있다.

오늘 문학을 더욱 발전시키는 문제는 우리 문학의 현실태로부터 흘러나오는 요구이며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사상미학적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절박한 요구로 된다.

은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역사적위업이 힘있게 추진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날로 심화됨에 따라 우리 인민들의 사상미학적요구는 더욱 비약적으로 높아지고있다.

사상미학적요구가 높은 인민들에게 사상적내용이 깊지 못하며 단조롭고 무미건조한 소설을 끝까지 보라고 요구할수는 없다. 또한 주제분야가 다양하지 못하고 사건전개와 인물설정에서도 개성이 느껴지지 않으며 개념화된 상식적인 생활이 지루하게 라벨되어 흥미가 없는 소설은 인민들의 정신문화생활에 별로 도움을 줄수 없다.

읽으면서 사색할 여지가 없고 뒤대사가 느껴지지 않으며 읽은후에 여운이 없는 소설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을수 없다.

원래 사람들이 소설을 보는것은 하나의 문화사업으로 되는것만큼 그것은 한번 보기 시작하면 다 읽을 때까지 손에서 책을 놓지 않게 스스로 끌려들어가게 되어야 할것이다. 그런데 소설이 지루하고 따분하다면 소설을 읽는것이 하나의 큰 부담으로 될것이며 이렇게 억지로 읽는데서 사람들이 얻을것이란 무엇이겠는가.

소설에서는 응당 시대발전의 요구에 맞게 다양한 인간생활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그리며 이야기를 대담하게 꾸리고 세부묘사의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주제와 인물 설정, 사건전개에서 작가의 독창성을 남김없이 발양해야 할것이다.

시문학에서는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우리 인민들의 념원과 의지, 신념을 비롯한 주도적인 감정을 서정을 통하여 느낄수 있게 간결하면서도 뜻이 깊게 노래해야 할것이다.

시행을 한줄로 련결시켜놓으면 하나의 산문문장이 되고마는 시나 사상적내용을 형상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강연제강처럼 직선적으로 해설한 시는 우리 근로자들의 풍부한 사상정서적요구를 도저히 충족시킬수 없다.

행복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는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에 대하여 노래할수 없으리만큼 직선적 설정으로 시를 꾸린다면 몇줄 안되는 서정시에 어떻게 깊은 사상을 담아낼수 있겠는가. 이렇게 사상이 로출되고 감정이 메마른 시일수록 분식되고 허무한 말마디를 많이 쓰게 되고 분량이 길어지게 마련이다. 우리 시는 짙막해서 외우기 쉽게 되면서도 시의 세계에 사람들이 깊이 끌려들어들 수 있도록 풍부한 련상과 표상을 불러일으켜야 하며 눈물이 나오리만큼 절절한 감동과 체험을 주어야 하여 두고두고 읽고싶게 인상에 오래 남게 되어야 할것이다.

아동문학에서는 언어표현과 내용에서 성인화경식을 철저히 극복하고 주체사상으로 교양육성된 새세대의 고유한 정서를 그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게 다양한 문학형태들에 담아 생동하고 재미있게 그려내야 할것이다.

그런데 사고가 단순하고 직관적이며 모험심과

모방성, 호기심과 행동성이 강하고 환상이 풍부한 어린이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지 않게 어른들이 느끼는 감정과 어른들이 쓰는 표현을 그래도 아동문학에 옮겨놓는다면 어떻게 될것인가. 그렇게 되면 그 작품은 벌써 아동문학의 고유한 특성을 잃어버린것으로 되며 아동들의 사랑을 받을수 없다.

어린이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게 쓴다고 하여 아무런 발견도 없이 상식적이거나 유치한것을 아동문학에 끌어들어서도 안될것이다. 아이적인것과 유치한것은 같은 개념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구별해야 한다.

작가들은 아동문학이라고 하여 절대로 험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시대 아이들의 세계에 더 깊이 파고들어 탐구하며 보다 생동하고 효과적인 형상과 생기발랄한 표현을 찾아내기 위하여 애써야 할것이다.

현실은 대중교양의 위력한 수단인 극문학창작에서도 새로운 혁신이 일어날것을 요구하고있다. 극문학분야에서는 《성황당》식혁명연극의 새로운 형식과 형상방법의 요구에 맞는 희곡작품을 많이 내놓아야 한다.

희곡작품을 쓴다고 하여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극작술의 요소들을 되살리는 경향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혁명연극 《성황당》은 세계적으로 퇴폐와 몰락의 길을 걷고있는 낡은 연극에 종지부를 찍고 현대적미감에 맞는 새로운 시대극, 립체극의 본모기를 보여주고 혁명연극의 새시대를 열어놓았다.

작가들은 《성황당》식혁명연극의 높은 사상에 술성과 심오한 철학성을 따라배우고 그 독창적인 형식과 방법을 희곡문학창작에 적극 받아들여야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새형의 극문학을 내놓을수 있다.

전체 작가들은 오늘 소설, 시, 아동문학, 극문학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문학을 더욱 발전시키는 문제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위업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전반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나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사상미학적과업으로 나서고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분발해야 할것이다.

우리 문학을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문학을 주체의 새 인간학의 높은 경지에 올려세워야 한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우리가 요구하는 인간학은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고 새시대의 참다운 인간전형을 창조하여 온 사회를 주체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이다.

우리 문학은 주체의 새 인간학으로 되어야만 문학예술전반의 발전을 믿음직하게 안받침할수 있고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사상미학적요구를 충족시킬수 있으며 그들의 생활과 투쟁에서 참된

교과서로 될수 있다.

우리 문학을 주체의 인간학의 높은 경지에 올려 세우려면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의의있고 철학적으로 심오한 종자를 똑바로 잡아줘야 한다.

우리 당에 의하여 처음으로 밝혀진 종자에 관한 사상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철학적기초로 하는 인간학의 근본에 관한 완전히 새로운 이론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종자란 작품의 생명을 담보하는 사상적핵이며 그 가치를 규정하는 결정적요인이다. 그것은 종자가 작품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명백히 제시해줌으로써 창작에서 사상에술성을 옹계 결합시키게 하고 속도전을 힘있게 벌릴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종자를 바로 쥐지 못하면 창작에서 인간학의 요구를 구현할수 없고 그런 작품은 읽을 재미도 없으며 문학작품으로서의 가치도 없다. 문학작품이 인간학의 경지에 오르자면 똑똑한 종자를 골라주고 거기서 이야기줄거리가 뻗고 형상의 꽃이 피도록 해야 한다.

지금 일부 작품에 이야기거리는 있는것 같은데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지 못하는것은 다 종자를 바로 쥐지 못한데 기인된다.

《피바다》나 《꽃파는 처녀》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이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위대한 송가로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사람들의 심금을 끝없이 울려주는것은 여기에 정치적으로 의의있고 철학적으로 심오한 인간문제가 종자로 심어지고 꽃피여져있기때문이다.

수난의 피바다를 투쟁의 피바다로 만들어야 한다는 《피바다》의 종자나 나라 잃고 가난한 인민에게 차례지는것은 고통과 슬픔뿐이며 투쟁만이 살길이라는 《꽃파는 처녀》의 종자에는 자주시대가 제기하는 절실한 인간문제가 얼마나 세차게 맥박치고있는가

우리 작가들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따라배우면서 마땅히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시대와 생활이 제기하는 의의있고 참신한 종자를 찾아내기 위하여 탐구에 탐구를 거듭해야 한다.

어떤 사회적문제, 인간문제를 종자로 잡는가 하는것은 언제나 문학의 교양적가치를 규정하는 중요한 문제로 되는것만큼 작가들은 당이 현시기 내세우고있는 초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문제를 종자로 선택해야 할것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위업을 다그치기 위하여 현시기 우리 당이 중요하게 내세우고있는 방침은 숨은 영웅들을 따라배우는 사업을 전당적, 전사회적 운동으로 더욱 확대발전시키는것이다.

숨은 영웅을 따라배울데 대한 당의 방침에는 사람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기 위한 사상혁명과 경제와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혁명, 당사업과 경제지도사업,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것을 비롯하여 현시기 우리 당이 풀려고 하는 중요한 문제들이 다 담

겨져있다.

그러므로 우리 작가들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의 의의를 깊이 학습하고 숨은 영웅들의 생활과 정신세계에 깊이 파고들어 새롭고 의의있는 종자를 잡아야 그것이 정치적으로 의의있고 철학적으로 심오한것으로 될수 있고 작품의 교양적가치를 높일수 있다.

우리 작가들은 우리 당에 의하여 새롭게 밝혀진 종자의 본질과 의의, 종자를 잡는 방법과 그를 형상으로 꽃피우는 방도 등 종자학설을 심오히 연구체득하여 창작에 구현함으로써 문학을 주체의 인간학으로 되게 해야 할것이다.

우리 문학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이바지하는 주체의 인간학의 높은 경지에 올려세우자면 또한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새 인간 전형을 창조해야 한다.

인간학의 기본은 성격을 창조하여 참다운 인간의 본보기를 내세우는데 있는것만큼 우리 문학이 참다운 주체의 인간학으로 되려면 아무런 인간 성격이나 창조할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 사람들의 구감으로 될수 있는 주체형의 인간 전형을 창조해야 한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주체형의 인간이란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수령님을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과 당에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싸우는 끝없이 충직한 공산주의자를 말한다.

정치사상적측면에서나 정신도덕적측면에서 주체사상의 요구를 투철하게 체현하고있는 주체형의 새 인간들은 당이 내세우는 로선과 정책을 절대화하고 그것을 어떤 환경속에서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참다운 혁명가들이다.

이들은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당과 수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수령님께서 바라시고 의도하시는 문제를 푸는것을 최상의 영예로, 최대의 의무로 여기고 10년, 20년을 하루와 같이 충직하게 싸움으로써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사업에 실속있게 이바지하고있다.

조국과 인민 앞에 커다란 위훈을 세우고도 그 어떤 명예나 평가도 바람이 없이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묵묵히 다 바쳐나가는 주체형의 인간들의 정신세계야말로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것인가.

우리 문학은 이처럼 고상한 정신세계를 체현하고있는 주체형의 새 인간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훌륭히 형상할 때에만 주체의 새 인간학으로 될수 있다.

우리 문학을 주체의 새 인간학의 높은 경지로 끌어올리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작품의 철학성을 보장하는것이다.



우리 당은 우리 문학에서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의 하나는 작품의 정치사상적풍격과 예술적가치를 규정하는 철학적깊이를 보장하는것이라고 밝혀주었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문학작품에서 철학적깊이란 종자의 철학적무게, 사상의 철학적심오성, 사회적문제의 예리성, 생활의 새로운 탐구, 깊이 있는 분석적인 세부묘사와 언어구사를 통하여 보장되는 창작과정의 총체를 말한다.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리론에 의하여 작품의 철학적깊이에 관한 문제가 력사상 처음으로 완벽히 해결됨으로써 문학작품의 정치사상적풍격과 예술적가치를 규정하는 새로운 문예학적개념이 밝혀지게 되었다.

작품의 철학적성, 철학적깊이에 관한 문제는 사상성이나 예술성과 같은 개념보다 포괄적이며 전일적인 성격을 띤 개념이며 작품의 정치사상적풍격을 규정할뿐아니라 예술적가치도 규정하는 구체적이며 형상적인 성질을 띤 미학적개념이다.

다시말하여 문학의 철학적성, 철학적깊이에 관한 문제는 그 어떤 사회학적개념이 아니라 종자, 사상, 문제성, 생활의 탐구 등 작품의 사상적내용과 분석적인 세부묘사와 언어구사 등 예술적형식의 가치까지도 규정하는 종합적인 문예학적개념이다.

이때까지 문예작품의 가치를 규정하는 기준은 주로 사상성과 예술성의 두 측면이었다. 문학의 철학적성, 철학적깊이에 관한 문제가 설정됨으로써 사상성과 예술성을 유기적인 련관속에서 하나로 통일시켜 고찰할수 있는 종합적인 평가기준이 새로 밝혀지게 되었다.

철학적성에 대한 문제는 종래의 문예학의 어떤 개념과도 대비할수 없이 다양하고 풍부한 특성을 가진 문예학적개념이다. 물론 지난날의 문학에서 간혹 철학적성에 대하여 말하는 때가 있었으나 그것은 주로 어떤 특정한 주제의 생활을 취급하는 경우를 넘두에 두었고 또 그나마 사회학적개념을 그대도 쓴데 지나지 않았다.

철학적성은 주체적문예리론에 의하여 우리 문학, 주체의 인간학의 본질적속성으로 되고 어떤 주제, 어떤 형식의 작품에나 다 형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는것이 명백히 밝혀지게 되었다.

철학적성이 보장되지 못한 작품은 시대적미감에 맞지 않으며 한번 보면 다시 더 보고싶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 철학적깊이가 보장된 작품만이 한번 보면 다시 보고싶고 불수록 새로운 뜻과 흥미를 느끼게 하면서 인간의 운명문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하고 큰 여운과 흥분을 불러일으키게 할수 있다.

철학적성에 대한 문예리론은 주체시대문학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문학예술창작이 제기하는 실천적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위대한 사상과 리론이다.

작품의 철학적깊이를 보장하는것은 인류철학사상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로 되는 주체사상을 사상리론방법론적기초로 하는 우리 문학 창작의 필수적요구이다.

주체철학은 력사상 처음으로 사람의 본성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줌으로써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근본문제,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려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옳바로 풀수 있는 열쇠를 주었다.

그러므로 우리 문학은 주체철학에 기초함으로써 사람의 본성으로부터 출발하여 현시대의 인간문제를 진정한 인간학의 경지에서 가장 심오하게, 철학적으로 밝혀낼수 있게 되었다.

작품의 철학적깊이를 보장하는것은 또한 주체의 기치밑에 력사발전의 새시대를 개척하며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위한 가장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을 승리적으로 수행하여온 우리 인민과 그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요구이다.

우리 인민은 참으로 류레없이 복잡하고 첨예한 계급투쟁을 진행하면서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풍부하고 심각한 체험을 겪어온 인민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과정에 인민들의 사상정신적풍모가 더욱 승고한 높이에 이르고 경제, 문화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기적과 비약이 일어나고있는 우리의 영웅적현실을 반영한 작품은 응당 사람들에게 커다란 사상미학적충동을 줄수 있도록 철학적으로 심오해야 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의 운명과 그 생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하는 철학적성을 보장해야 우리 문학은 사람들에게 게 참된 인생관을 주는 주체의 인간학으로 될수 있다.

주체적문예리론에 의하여 철학적깊이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뿐아니라 방도까지 환히 밝혀짐으로써 우리 작가들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높은 사상예술성을 가진 작품을 훌륭히 창작할수 있는 강력한 리론실천무기를 가지게 되었다.

우리 문학 주체의 새 인간학의 높은 경지에 끌어올리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문학의 내용과 형식을 주체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하며 사회주의 문학의 사상적순결성을 보장하는것이다.

주체문학의 사상적순결성을 보장하는데서 현시기 특히 중요한것은 자연주의경향과의 투쟁이다.

자연주의경향과의 투쟁을 옳게 벌리려면 그에 대한 인식을 옳바로 가져야 한다. 사회주의문학에서는 물론 조류로서의 자연주의가 공공연한 방법으로는 나타날수 없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사회주의문학에서 자연주의적 경향은 부르조아문학에서처럼 자연을 찬미하는 공공연한 방법으로써가 아니라 현실을 미화분식하고 과장하거나 형상적비유의 외피를 쓰고 사회주의사회의 현실을 외곡하는 방법으로 많이 나타난다는것을 가르쳐준다.

이때까지 사회주의문학에서 자연주의가 어떤 방법과 형태로 나타날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그 누구에 의해서도 밝혀지지 못하였다.

오직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리론에 의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문학에서 자연주의적경향의 표현 형태와 방법이 명백하게 밝혀짐으로써 우리 작가들은 창작에서 나타날수 있는 자연주의적 경향이나 요소를 제때에 예리하게 가려보고 그와 원칙적투쟁을 벌릴수 있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우리 문학을 그 어떤 잡사상에도 오염되지 않는 주체의 문학으로 더욱 찬란히 꽃피울수 있게 되었다.

우리 당은 이와 같이 우리 시대의 문학을 주체의 인간학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정치적으로 의의있고 철학적으로 심오한 종자를 골라잡을데 대한 문제, 주체형의 새 외각 전형을 창조할데 대한 문제, 철학적깊이를 보장할데 대한 문제, 자연주의경향과의 투쟁을 날카롭게 벌릴데 대한 문제를 강령적과업으로 제시하여주었다.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리론에 의하여 밝혀진 이 강령적과업들은 우리 문학을 주체의 인간학의 높은 경지에 올려세우기 위하여 우리 작가들이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투적기치이다.

우리 당은 우리 문학을 주체의 새 인간학의 높은 경지에 올려세우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여주었을뿐아니라 그를 실현하기 위한 방침을 명철하게 밝혀주었다.

우리 당은 우리 문학을 주체의 새 인간학의 높은 경지에 올려세우기 위하여 작가들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높일데 대한 방침을 내놓았다.

작가들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높일데 대한 당의 방침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를 구현한 독창적방침이며 문학창작의 직접적담당자인 작가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이바지하는 주체문학을 더 훌륭히 건설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주는 등대이다.

작가들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높이는것은 주체문학건설에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근본문제이며 우리 문학을 주체의 인간학으로 만들수 있게 하는 출발점으로 된다.

작가들이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이 높아야 의의있는 종자를 골라잡고 그 종자를 기초로 하여 형상의 꽃을 피우며 고상한 정신세계를 체현하고 있는 주체형의 새 인간 전형을 높은 사상에 술적수준에서 형상할수 있다.

만약 어떤 작품이 이야기의 깊이가 없고 분석이 약하며 깊은 사색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참다운 인간의 기사가 되여야 할 작가들의 정치적 식견과 안목이 높지 못한것과 관련되어있는것이다.

작가들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높이는것은 작품의 철학적깊이를 보장하기 위한 요구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작가는 자기가 아는것만큼 보고 느끼고 받아들이며 아는것만큼 표현하기때문에 작품의 철학적깊이도 작가의 준비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작가들은 작품에 대하여 에누리려 하는 경우가 있지만 작품은 작가에게 한푼어치의 에누리도 하지 않는다.

작가의 정치적 식견과 안목을 높이는것은 자연주의경향을 비롯한 온갖 반동적문예조류의 침습이나 그 사소한 표현도 제때에 예리하게 식별하고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림으로써 주체문학의 사상적 순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다.

작가들이 작품을 해부학적으로 분석해볼수 있는 예리한 정치적안목과 높은 식견을 소유하지 못하면 자연주의적경향을 가려낼수도 없고 부르조아반동문학조류의 침습을 반대하여 원칙적인 투쟁을 벌릴수도 없게 된다. 그러므로 주체문학의 사상적순결성을 보장하고 우리 문학을 주체형의 피만이 뚫어넘치는 주체의 인간학으로 되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작가들의 정치적 식견과 안목을 높여야 하는것이다.

우리 당은 작가들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결정적으로 높여야 할 근거를 과학적으로 밝혀주었을뿐아니라 그 구체적방도에 대하여 명확한 해답을 주었다.

작가들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높이는데서 그 중심을 어디에 두고 어떤 내용으로 학습하는가 하는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리론은 작가들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정치학습을 잘하여야 한다는것을 가르쳐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예술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예술일군들이 자기의 정치사상수준을 높이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정치학습을 앞세우고 강화하며 작가의 정치사상수준을 높일데 대한 방침은 혁명과 건설에서 사람들의 사상의식이 기본이며 결정적역할을 한다는 사상론의 원리를 문학창작에 구현한 방침이다.

작가들은 정치적식견이 높아야 언제나 예리한 정치적안목을 가지고 모든것을 정확히 판단할수 있으며 당이 요구하는 좋은 작품을 쓸수 있다.

작가들의 사상의식 즉 세계관은 창작의 전과정에 그대로 작용하는것만큼 높은 정치적식견을 가지고있지 못하면 시대정신을 옳게 체득할수 없고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변들의 본질과 의의를 밝혀낼수 없을뿐아니라 현실을 외곡하는데로 떨어

질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동적문예리론가들은 작가의 명백한 사상의식, 세계관은 현실을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반영하는것을 방해하고 작품을 객관적현실로부터 《유리》 시키며 작품을 《정치적 사상의 단순한 전성관》으로 만들게 한다는 황당한 소리를 쉰치고있다. 부르조아어용나팔수들은 또한 창작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사상의지와는 관련 없는 그 어떤 《선천적인 재능》이나 신비로운 《령감》이라고 하면서 작가는 사상이 나빠도 사실주의에 의거할 때에는 얼마든지 좋은 작품을 쓸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있다.

문학예술창작에서도 사상론을 내세우고있는 당의 방침과 문학창작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작가들의 사상의식이라는것을 밝혀주는 주체적문예리론은 창작에서 사상의식, 세계관의 역할을 표시하거나 거부하는 온갖 반동적문예리론에 대한 준렬한 파멸선고로 되며 사회주의문학의 당성을 옹호하고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에 이바지하는 혁명적문학작품 창작의 결정적요인을 밝혀주는 해불로 된다.

훌륭한 문학가는 언제나 그 시대의 선진사상을 옹호전파하는 위대한 사상가였던것만큼 사상을 떠난 작가란 존재가치가 없다.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리론은 작품의 정치사상성을 규정하는 요인인 작가의 정치적식견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해야 한다는것을 밝혀준다. 주체사상으로 무장해야 우리 시대의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을 세울수 있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창작할수 있다.

정치적식견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을 원리적으로 깊이있게 연구체득하여 자기의 뼈와 살로, 유일한 신념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 사상과 리론, 방법에는 주체문학건설에서 견지해야 할 근본 원칙과 방도로부터 창작실천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심오하게 밝혀져있다. 그러므로 작가들이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주체적문예사상과 방침을 깊이 체득해야 모든 복잡한 문제들을 올바른 혁명적 립장과 관점에서 정확하게 분석평가할수 있으며 창작에서 막히지 않고 길을 헛갈리지 않으며 훌륭한 형상을 창조할수 있다.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리론은 작가들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학습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작가들속에서 혁명적독서기풍을 세워야 한다는것을 가르쳐준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우리의 혁명적문학은 주체시대 인간들의 요구와 지향, 그들의 다양한 생활면모를 폭넓게 그려낼뿐아니라 인민대중을 우리 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에게 사회생활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지식

을 주어야 한다.

문학작품은 어느 한 부분, 어느 한 분야에 극한된 생활만을 취급하는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과학, 군사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와 련결된 산 인간과 그 생활을 종합적으로 전일적인 형상으로 취급하게 된다.

인민들은 문학작품을 낫잠이나 자는 대신에 심심풀이로 읽는것이 아니라 생활을 더 깊이 리해하며 주인공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따라배우기 위하여 읽는다. 이러한 작품은 높은 정치적식견과 함께 자연과 사회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생활에 대한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소유한 작가만이 창작할수 있다.

당은 작가들이 시대의 앞장에 서나가면서 생활을 선도하고 이끄는 기수로, 새것을 탐구하는 시대의 선구자로, 인민을 교양하는 교양자로, 인간의 기사로 될것을 요구한다.

남이 다 아는 뻔한 상식적인 세계를 펼쳐놓아서 작가 시대에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없다. 더구나 오늘 《전당, 전민, 전군이 학습하자!》는 구호밑에 온 사회에 혁명적학습기풍이 확립된 우리 나라에서 근로자들의 생활의 교과서로 될수 있는 인식교양적가치가 풍부한 작품을 쓴다는것은 험한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남보다 몇십배, 몇백배 더 깊고 넓게 학습해야 한다.

작가들은 하나를 알고 그 하나를 가르치려 하지 말고 백을 알고 하나를 가르쳐주는 진지한 창작적 자세를 가지고있어야 하나를 통하여 백을 보여줄수 있도록 생활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분석적으로 그려내며 독자들의 참된 교과서로 될수 있는 작품을 써낼수 있다.

작가들이 아는것이 많아야 상식적이며 빈소리를 없애고 한줄의 글을 써도 뜻이 깊은 글을 쓸수 있고 한마디 말을 하여도 씨먹은 말을 할수 있다.

작가들이 문학예술에 대한 지식뿐아니라 자연과 사회에 대한 풍부한 과학지식을 폭넓게 깊이있게 소유하기 위해서는 혁명적독서기풍을 세우고 책을 끊임없이 읽어야 한다.

작가들은 혁명적작품을 읽을뿐아니라 우리 나라의 고전작품과 세계의 고전적문학예술작품도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비판적으로 보아야 한다.

작가들은 누구보다도 열렬한 독학가, 정열가가 되여 여러가지 책을 끊임없이 읽어야만 폭넓고 깊이있는 지식을 소유하고 기발한것도 생각해낼수 있으며 시대와 인민이 바라는 새로운 문제를 대담하게 내세우고 그것을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독창적으로 풀어낼수 있다.

작가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그리고 온갖 기회를 다 리용하여 쉬임없이 배우고 또 배우으로써 정치, 경제, 과학, 문화, 군사, 도덕 등

사회와 자연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지식을 섭취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부문 전문가들도 무안해지리만큼 구체적으로 알도록 해야 한다.

인류의 정신문화가 반영되어있는 책은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생활의 말없는 길동무이며 훌륭한 스승인것만큼 작가들은 책을 보지 않고는 살아갈수 없으며 그 어떤 창작활동도 할수 없다. 시대와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학습을 실속있게 하지 않고 기성지식만 믿고 무턱대고 쓰기만 하는 작가의 작품에서 독자들이 배울것이란 없다.

우리 당은 작가들의 정치적식견을 넓히며 예술적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또한 현실체험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가들은 현실을 잘 알아야 하며 인민대중의 생활속에 깊이 파고들어가야 합니다.》**

작가들에게 있어서 현실체험은 혁명화의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

작가들은 노동자, 농민들의 생활속에 깊이 들어가야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그들의 무한한 충실성과 념원을 깊이 체득할수 있고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혁명화과정을 다그칠수 있다.

작가들에게 있어서 현실체험은 지식의 무궁무진한 원천이며 창작적재능을 꽃피울수 있는 토양으로 된다.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면 탁상우에서는 배울수도 없고 익힐수도 없는 다방면적인 새롭고 풍부한 지식을 많이 얻을수 있고 인민대중의 실생활을 그들의 정서와 비위에 맞는 예술적인어로 생동하게 심도있게 그려낸 사실주의적작품을 훌륭히 쓸수 있다. 현실체험의 빈곤은 작품창작에서 생활묘사의 빈곤을 초래한다.

들끓는 현실은 언제나 작가들에게 새로운 지식, 새로운 재능을 주며 작품의 내용과 형식들도 끊임없이 새롭게 갱신해주고 풍부히 해준다.

그러므로 작가의 창작적재능은 언제나 현실에 대한 다방면적이며 심도있고 폭넓은 체험과 생활에 대한 끊임없는 축적을 토대로 해서만 꽃필수 있다.

현실과 떨어져 탁상문학을 하면 창작적로쇠가 일찍 오며 열정도 식어지고 환상이 나래치지 않으며 재능도 무디게 된다.

현실체험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은 작가들의 혁명화과정과 생활을 사실주의적으로 반영한 주체의 새 인간학 창조사업을 유기적인 련관속에서 다같이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게 하는 독창적방침이다.

현실체험을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이다. 현실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것이

다 해결되는것은 아니다.

당의 의도를 잘 모르고는 현실을 정확하게 볼수없으며 우리 인민의 위대한 전진운동을 옳게 파악할수 없다. 생활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현실에 대한 우리 당의 혁명적립장과 과학적태도와 방법을 깊이 체득해야 한다. 현실체험을 강화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현실을 취재할것이 아니라 뜨거운 열정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체험하며 현실속에서 작품을 구상하고 완성하는 혁명적인 창작기풍을 세우는것이다.

작가들은 현실체험을 유람식으로 하거나 생활을 취재하여 안다는것만으로는 안된다. 작가들은 현실에 깊이 들어가 노동자, 농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그들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일하고 생활하며 인간생활과 생활현상을 종합적으로 체험해야 한다. 그리하여 자신이 체험하고 느낀것을 세상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고는 견딜수 없는 불타는 정열과 충동에서 붓을 들어야 하며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글을 써야 진정으로 시대의 숨결이 느껴지는 생동한 형상을 창조할수 있다.

작가들은 또한 들끓는 현실속에서 근로자들과 같이 생활하고 투쟁을 진행하면서 글을 써야지 어느 한때의 체험을 가지고 현실과 떨어져 책상머리에 앉아서 탁상문학을 해서는 비약적으로 전변되는 현실을 옳게 반영할수도 없고 창작적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창작을 계속할수도 없게 된다.

현실체험을 잘하기 위해서는 또한 뜨거운 열정과 심오한 창작적사색을 겸비해야 한다. 정열과 사색이 없이 현실을 대하면 비록 현실에 접근한다해도 생활을 뜨겁게 체험할수 없고 생활의 본질을 옳게 탐구할수 없으며 그것을 뜻깊게 반영할수도 없다.

현실체험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은 작가들을 사상미학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창작적로쇠를 방지하고 영원한 청춘의 기백으로 창작을 왕성하게 해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준다.

이 방침은 문학과 생활의 련계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혁명적작품의 사실주의적진실성과 인식교양적기능을 높이기 위한 길을 밝혀주는 지도적지침이다.

작가들의 사상예술적수준을 높이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창작적기량을 끊임없이 련마하는것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작가에게 있어서 창작적기량은 생명과 같은것이며 작가의 자질을 규정하는 기본징표로 된다.

창작적기량은 창작에서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을 결합하게 하는 주요조건으로 되니만큼 창작적기량이 낮은 사람은 참다운 작가일수 없다.

작가가 생활에서 절실하고 의의있는 종자를 잡

고 창작적열정에 불타고있다 해도 형상능력이 없거나 모자라면 자기의 형상의도를 감동깊게 실현할수 없다.

현시기 작가들의 기량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언어수련이다.

언어는 문학형상창조의 첫째가는 수단으로 되며 언어표현의 풍부성은 작가적기량에서 기본이라고 볼수 있다. 언어표현이 작가의 형상수준과 재간이 드러나는 기본분야의 하나인것만큼 작가들은 끊임없이 문화어를 많이 소유하며 현대적미감에 맞는 새로운 문체와 언어표현수법들을 적극

탐구하고 개척해나가야 할것이다. 그런데 문학작품의 문제가 신문기사의 문체와 구별할수 없을 정도로 특색이 없다면 그것은 작가가 언어의 명수로서의 자격이 없다는것을 말해준다. 작가의 창작적개성은 문제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나는데 언어표현이 빈곤하고 독창적인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런 작가가 어찌 독창성과 개성을 가진 작가로 될수 있으며 언어문화혁명의 선구자로 될수 있겠는가.

작가는 일생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어휘수첩같은것도 잘 리용하고 언어를 비롯한 문필기량을 련마하는데 정력을 바쳐야 한다. 여기에서 정치사상적준비에 선차적관심을 돌리면서 기량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잘 결합시키는 원칙을 옳게 견지하는것이 중요하다.

정치사상적준비에 선차적관심을 돌리지 않고 기교련마에만 치중하면 작가가 사회와 인민 앞에 교양적가치가 있는 작품을 내놓을수 없다. 시대와 혁명을 리해하지 못하는 작가는 높은 시대정신과 심오한 혁명사상을 체현한 작품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기때문이다.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리론은 문학작품의 사상예술적수준을 높이는데서 작가의 창작적사색이 중요하다는것을 가르치고있다.

철학적심도가 있는 작품은 깊은 사색을 전제로 하며 사색의 빈곤은 작품의 철학적빈곤을 가져오니만큼 창작적사색은 우수한 작품 창작의 중요한 담보로 된다.

창작적사색이란 사람의 의지와는 관계없는 그 어떤 신비로운 《령감》이 아니라 작가의 꾸준하고 인내성있는 탐구과정이며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의 반영인만큼 작가들은 언제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피라는 노력을 하며 끊임없이 사색하고 탐구하고 궁리해야 할것이다.

우리 당은 작가들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높이기 위한 방도로서 또한 창작과정을 혁명화과정으로 되게 할데 대한 방침을 내세웠다.

작가들은 개별적으로, 분산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저러한 책이나 작품에서 낡은 사상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 있으므로 자유주의와 공명심, 무규률성과 리기주의 등 낡은 사상과 생활양식에 물젖기 쉽다. 이런 조건에서 작가

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사업을 잠시라도 늦추게 되면 낡은 사상이 조장되게 되고 자기의 정치사상수준을 높일수 없다.

작가들은 창작과정을 혁명화과정으로 되게 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작품을 창작하고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높이기 위한 모든 사업을 자신의 사상의식을 개조하고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직성을 키워나가는 과정으로 만들어야 한다.

창작과정을 혁명화과정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창작과정에 혁명적조직생활을 더욱 강화하고 조직의 지도와 통제를 자각적으로 받는것을 제도와화하고 습성화해야 한다.

당의 지도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우리 문학을 한계단 추켜세우고 작가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무한히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교양육성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작가들은 언제나 당의 지도를 견결히 옹호고수하여야 하며 당의 지도를 성실히 받아들이고 당의 지도를 받기 위하여 스스로 힘써야 한다.

당은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우리 문학을 더욱 발전시키며 작가들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높일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방도까지 전면적으로 심오히 제시함으로써 작가들이 당사상사업의 전초선을 지켜선 문예전선의 초병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었다.

당의 이 방침은 우리 문학을 주체의 새 인간학의 높은 경지로 이끌어올릴수 있는 유일하게 옳은 휘황한 길을 밝혀주는 고무적기치이며 작가들이 창작과 학습, 조직생활과 현실침투사업에서 언제나 틀어쥐고나가야 할 항구적인 활동강령이다.

당의 문예방침은 창작활동에서 나서는 어떤 개별적인 문제나 일시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에 국한된것이 아니라 로동계급의 본성에 맞는 공산주의 문학건설의 전과정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 문제들에 과학적해답을 주는 불멸의 주체적문예강령이다.

당의 독창적문예방침이 밝혀주는 길을 따라 나갈 때 우리 작가들은 창작에서 그 어떤 편향이나 우여곡절도 범하지 않으며 확고한 전망과 뚜렷한 목표,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창작활동을 더욱 왕성하고 쾌기있게 진행할수 있다.

참으로 당의 문예방침은 작가들의 가슴에 억년 마를줄 모르는 깊은 산속에서 흘러나오는 샘과도 같이, 언제나 지칠줄 모르는 혁명적열정과 무궁무진한 창조적환상을 불러일으켜준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독창적문예방침을 유일한 사상, 리론, 방법론적 기초로 삼고 창작하는 우리 작가들처럼 행복하며

(53 페이지에 계속)

##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안정기

우리 당 제6차대회가 하루하루 가까와온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기치따라 혁명하는 끝없는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 온 나라 온 강산이 불도가니처럼 끓어번지고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운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력사적인 당제6차대회를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하여 혁명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퍼올리고있다.

이 땅 어데 가나 하나로 고동치는 주체형의 심장들이 당과 수령은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가장 숭고하고 가장 뜨거운 열전을 쏘아붓고있다.

보라! 천길 땅속에서 락원의 강산우에, 조국땅우에 열과 힘을 보태며 주체공업의 식량을 듬북이 마련해가는 우리의 탄부들을! ... 가장 어려운 돌과구를 스스로 말아나신 그들의 가슴속에는 오직 충성의 불길만이 타오르고있으며 굴진속도와 함께 막장길은 벌어져가도 력사적인 그날을 마중해 간다는 랑만적인 노래로 가득차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고 당이 가리키는 초소에서 꽃다운 청춘을 묵묵히 바치며 온갖 애로와 난관을 걸음마다 이겨내면서 현대기술의 높은 봉우리에 뚫아올라 주체조선의 영예를 소리높이 구가한 우리 시대의 숨은 영웅들은 또 얼마나 미더운가! 수령님의 따사로운 해발아래 이 땅에 꽃피난 무수한 백설화들... 그들의 불타는 심장과 맑고 깨끗한 혈관속에 그 무슨 티끌만한 공명이 있고 리해와 타산이 있었겠는가. 그들의 가슴에는 오직 《수령님을 위하여》, 《당을 위하여!》라는 하나의 생각밖에는 것들어있을 자리가 없다.

보라! 3년여세월, 전화의 불비속을 누비며 전승의 광장으로 곧추 달려온 로기관사가 오늘도 충성의 운전대를 그려안고 한톤의 짐이라도 더 끌기 위해 애쓰고 있지 않는가! 그들은 실고가는 렬차의 무게에서 조국의 번영을 온몸으로 느끼며 달리는 렬차의 속도에서 마중오는 조국의 래일을 눈썹리 뜨거웁게 바라본다.

어찌 그뿐이라! 고등중학교 졸업반학생들이 희망도 미래도 오직 당과 수령님께 기쁨 드리는 한길에서 찾고 학급전체가 농장으로 탄원하여 대지

에 뿌리내린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그들앞에는 대학의 문도 활짝 열려있었고 꿈많은 시절에 마음속에 그려두었던 일터들도 어서 오라 부르고 있었건만 주체농법을 꽃피우는 보람있는 투쟁에서 청춘의 희망을 찾았다. 해빛밝은 학창에서 과학기술의 문리를 틔웠고 새세대의 임무를 뜨거운 심장에 새겨안은 그들은 진심으로 땅을 다루고 씨앗을 묻고 애지중지 오곡을 가꾸어 당과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는것을 세상에 둘도 없는 행복으로 영광으로 여긴것이다.

이 모든것은 우리 시대가 낳은 보편적인 룰리의 반영이며 주체의 행군로우에 수놓아지는 아름답고도 변함없는 정신세계이며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거세찬 전진의 흐름이다.

쇠물을 곱절이나 뽑아내고 동터오는 로대우에서 평양의 하늘을 우리러 행복의 눈시울 적시는 용해공들을 보라! 아버지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자신이 한일을 마음속으로 보고드리며 삶의 보람을 한껏 느끼는 그들의 심정을 읽으라!

불야성을 이룬 밤바다어장에서 우리의 어로공들은 당대회에 선물을 마련해가는 기쁨으로 하여 바다처럼 심장이 끓고, 백두밀림의 벌목공들은 휘몰아치는 설한풍보다 기계톱소리를 충성의 노래소리로 몇배나 더 높이고있지 않는가!

그러니 당과 수령님을 위한 우리 인민의 열정을 어찌 말과 글로써 다 헤아릴수 있겠는가.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향도의 손길따라 전진하는 시대의 발구름소리는 강산을 뒤흔들고 그 길우에 피어나는 충성의 꽃들은 누리에 향기를 풍기고 그 자욱우에 세워지는 대건설의 기념비들은 세월과 더불어 찬연할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로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하여 우리 나라 로동계급과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신임과 지지를 얻었습니다. 오늘 전체 조선인민이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우리당에 의탁하고있으며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고있**

## 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따라 가는 길에 승리와 영광이 있음을 자각하였기에 걸어온 길은 멀고 걸어갈길 또한 간고해도 우리 인민은 순간의 흔들림도 담보도 없이 한몸바쳐 투쟁하며 앞으로 앞으로만 전진한다.

이 길만이 행복의 상상봉으로 오르는 지름길을 체험된 진리로 확인하였고 이 길만이 자신의 영예를 지켜나가는 유일하게 정당한 길임을 신념으로 간직하였기에 우리 인민은 물도 불도 헤아리지 않는다.

이렇듯 이 나라에 생을 둔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오직 《수령님을 위하여!》, 《당을 위하여!》라는 하나의 명백한 진리만이 살아 숨쉬고있다. 이 신념, 이 진리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으며 어떻게 자라나 활짝 꽃피날수 있었는가.

그것은 거슬러올라가 반세기-일제의 총검아래 우리 조국이 빛을 잃고 우리 민족이 망국노의 운명을 통탄하며 어둠의 광야를 헤매이던 그 세월에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 받든 그 력사의 날로부터 시작된다.

위대한 《E. C》(타도제국주의동맹)의 기발-주체의 기발이 이 세상 처음으로 빛을 뿌리며 솟아 오른 그 력사의 날로부터 우리 인민은 민족재생의 새길, 계급해방의 새길을 역세게 걸어왔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목숨으로 보위하며 그이의 뜻을 절대화, 신조화하며 준령도 폭동도 기꺼이 헤쳐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공산주의혁명투사 오중흥동지로부터 하나밖에 없는 청춘을 둘도 없는 조국을 위하여 아낌없이 바친 리수복영웅에 이르기까지 재더미를 털고 일어나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또다시 영웅조선의 본패를 보여준 전후복구건설의 간고한 그날로부터 사회주의공업화에로의 위대한 전변, 그리고 3대혁명의 기치높이 이 땅위에 대전설의 포성을 울린 기나긴 력사의 로정에 그 얼마나 많은 수령님의 전사, 당의 전사들이 아름다운 꽃송이, 충성의 꽃송이로 활짝 피어났는가.

이것은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따르는 영광의 길에서만 있을수 있는 위대한 승리의 력사이다. 우리 인민은 오늘 행복과 기쁨을 두고 일찌기 지너보지 못한 궁

지와 존엄을 두고 소리높이 자랑하며 그를 고수하기 위하여서는 그 무엇도 서슴지 않는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고 당을 《어머니》라 부르며 해와 달이 다하도록 수령님과 당중앙을 받들어나갈 열화같은 충성으로 가슴불태우고있다.

어버이수령님 계시여 세상의 모든 행복과 세상의 가장 큰 영광을 가슴벅차도록 지니고 사는 우리 인민들! 자신의 모든 운명을 위대한 수령님께와 영광스러운 당에 맡기고 혁명의 한길을 보람차게 걸어가는 우리 인민들!

백두의 기슭에서 닦을 올린 혁명의 배는 파도를 헤치며 힘차게 나아간다.

백두의 령봉우에 기발처럼 날리던 혁명의 봉화는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꺼질줄모르는 화불로 높이 솟아있다! 당제6차대회의 날이 가까이 다가온다. 승리의 언덕이 저기 보인다. 우리 혁명의 행군길에서 또 하나의 찬란한 리정표가 세워질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총진군의 발구름소리 더 높이 울리자!

어버이수령님과 은혜로운 당이 우리모두에게 안겨준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이며 하늘땅에도 비길수 없는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보답해가며 걸음마다 충성의 자욱을 뚜렷이 새겨가자!

채취와 대외무역, 수송...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불바람을 일으켜 온 나라, 온 전선이 부글부글 끓게 하자!

어머니 당대회에 천만가지 귀중한 선물을 마련해가는것은 우리모두의 의무이며 더없는 자랑이다.

이것은 또한 용감하고 슬기로운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의 시위로 되며 민족지상의 념원인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다져가는 의의있는 과제이기도 하다.

우리의 희망처럼 푸른 하늘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쁨처럼 만풍의 대지를 펼쳐주시고 우리의 념원처럼 찬란한 미래를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당을 위하여 한목숨 바친들 무슨 한이 있으랴!

당과 수령님의 손길따라 나아가는 이 길에 영광은 빛나라라! 우리의 행복도 아이들의 미래도 붉게붉게 꽃피나라라!

## 축원의 꽃바다

구희철

봄, 4월의 봄이 왔다.

봄이라도 만경대의 봄은 그 누구에게나 유별나게 환희로움과 아름다움을 주고 한없이 숭고하고 뜻깊은 계절로 느껴지는것이다.

산에도 들에도 길가에도 갖가지 꽃이 피어 꽃으로 뒤덮인 만경대! 계절은 있어도 봄을 모르던 인민, 꽃은 피어도 아름다움을 잊었던 이 강토, 반만년 오래인 민족의 갈망과 숙원을 안고 찬란한 주체의 태양이 이 강토우에 높이 솟아오른 만경대에 봄이 왔다.

피운 꽃바다, 안고가는 꽃바다 위대한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바라는 간절한 념원이 어리어 더 아름다운 꽃바다를 이룬 만경대의 봄, 거기에서 아름다운 꽃웃을 입은 사람들이 끝없이 흘러드니 만경대는 말그대로 꽃속에 둘러싸인셈이다.

우리 인민에게 오늘의 이 행복을 안겨주신 어버이수령님께 바치는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그대로 꽃처럼 피어 설레인다.

내 나라를 다시 찾아 오늘의 주체의 조국으로 이끌어주신 어버이수령님께 바치는 한없는 감사의 마음을 담은 꽃물결인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려는 높은 계급의식과 혁명적자각을 가지고 가렬적절한 전투와 행군, 흑한과 기아로 하여 제몸 하나 일으켜세울수 없는 준엄한 시련속에서도 <우리가 쓰러지면 조국은 영영 일어나지 못한다. 기운을 내여 기어이 조국으로 진군 하자!>고 서로 고무하며 용기백배하여 싸웠습니다.》**

항일의 불길 만리, 눈보라 만리를 헤쳐 조국해방을 이룩하시고 인민에게 참된 자주의 삶을 가져다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만경대고향집!

언제 어디에서나 나서자란 고향처럼 그 이름 정답게 불러보고 못잊어 찾아오는 만경대고향집, 만경대고향집은 우리모두의 마음속에 수령님의 자애로우신 모습과 함께, 수령님의 존귀하신 성함과 더불어 찬연히 빛나는 곳이다.

여기서 시작되어 여기에서 꽃피어난 조선의 이 봄 4월, 만경대고향집은 뜨거운 인민의 마음들이 피운 축원의 꽃바다우에 높이높이 받들리어있는 것이다.

꽃과 사람, 사람과 꽃을 분간하기 어려운 이 끝없는 꽃물결에 실리어 나는 이곳에서 일하는 김

정심동무와 이야기를 나누며 걷고 또 걸었다. 인사를 나누는지 얼마 되지 않지만 친절하고 인정이 깊어보이는 정심동무와 오래전에 알게 되었던 동무처럼 허물없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사람들의 끝없는 흐름따라 우리가 고향집 마당 가까이에서 잤을 때였다. 울바자기에 소담스레 피어난 한 꽃나무를 가리키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꽃을 좀 보세요. 얼마나 곱게 피었어요. 이 꽃이 목란꽃나무예요. 황해북도에서 사는 한 로인이 6년을 하루와 같이 정성다해 키워 4월 15일에 만경대로 견학오는 손녀에게 들려보낸것인데 이렇게 이제는 생가결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해마다 더 활짝 피어나고있어요.》

나는 뜨거운 사연이 담긴 꽃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활짝 핀 목란꽃송이들과 이제 망울을 터치기 시작한 꽃들을 뜨거운 생각에 잠기며 오래동안 바라 보았다.

참말로 만경대는 뜨거운 마음들이 피운 꽃속에 솟아있는 인민의 고향집인것이다.

어느 꽃나무를 보나 아름다운 마음들이 심은 깊은 사연이 깃들어있었다.

정심동무는 자기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꽃나무를 가꾸어 보내고 그것을 것처럼 소중히 안고와 심어 이제는 여기에 뿌리를 내린 꽃이 헤아릴수없이 많다는것을 이야기하며 만경봉으로 오르는 산기슭을 가리키며 말했다.

《어디 그뿐인가요. <배움의 천리길> 답사대의 나 어린 소년단원들이 옮겨다심은 나무들과 꽃들은 또 얼마나 많다고요. 저 들메나무밑에 심은 만병초도 그렇지만 산기슭을 뒤덮은 목란꽃들이 다 그들이 옮겨다 심은것들이지요.》

정심동무가 가리키던 쪽을 바라보던 나는 감탄을 금할수가 없었다. 그것은 그런 꽃나무가 이제는 한두그루가 아니라 수백수천그루를 헤아리기 때문이다.

한결음을 옮겨도 무심히 디딜수 없는 땅, 어느 한곳을 바라보아도 무심히 바라볼수 없는곳, 만경대는 아름다운 꽃속에만 떠받들린것이 아니라 그 꽃을 피운 인민의 마음속에 높이 떠받들리어 솟아있는 영광의 땅인것이다.

어느 바위쥬, 어느 길쥬, 어디를 보나 만경대고향집에 대한 인민의 뜨거운 사랑이 미치지 않은 곳이란 없었다. 우리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썰매바위 가까이에서 왔을 때 정심동무는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또 들려주었다.



《오늘 꽃이야기로부터 시작했으니 꽃이야기만 계속하게 되는구만요.》

《얼마나 좋습니까. 들려주는 꽃 이야기가 땅에 핀 꽃 이야기만이라면 몰라도 우리 인민의 뜨거운 마음이 담기고 그 마음들이 피운 꽃 이야긴걸요.》

우리는 서로 웃었다.

나는 썰매바위곁에서도 감동없이는 들을수 없는 이야기를 또 들었다.

썰매바위에서 대어섯겉을 떨어진 곳에 목란꽃나무가 자라고있었다.

정심동무는 이 목란꽃나무가 바로 일본청년주체사상연구소조원들이 기념식수를 해놓은지 벌써 몇해째 된다는것과 이 꽃나무를 영원히 잘 가꾸기 위하여 해마다 4월의 봄명절이 오면 찾아와 꽃나무에 북을 둔구어주고 간다는것이다.

이 꽃나무를 심어놓고 그 꽃송이가 늘어나는것이 자기들의 연구소조대렬이 날을 따라 늘어나는것과 같다고 하면서 찾아올 때마다 이 꽃나무앞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시를 랑송하고 떠난다는 일본청년주체사상연구소조원들, 실로 만경대는 온 인류의 축복속에 언제나 높이 받들려 솟아있는것이다. 그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것을 상징하는 꽃나무를 여기에 심어가꾸고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여기에 안고오고, 가장 뜨거운 충성을 여기에 남기고 가는것이다.

봄에도 붉은 적단풍, 그 언제 어디에 가나 사시장철 붉어있는 이 단풍나무처럼 수령님 위한 마음 변함없으리란 맹세를 남기고 심은 나무가 있

는가하면 몇년전 일본선박 《가이세이마루》선원들이 파도사나운 항로를 헤치고 안아온 감나무 두그루도 자라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주체사상만을 영원히 따라배우려는 열망을 이 두그루의 감나무에 담아 심은것이다. 그들은 과일나무중에서 감나무가 제일 오래 사는것중의 하나라는것과 감은 언제나 겉과 속이 다같이 붉다는것을 이야기하며 바로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자기들의 충성의 마음은 영원히 변함없다는것을 말하였다고 한다.

넓으나 넓은 바다에서 그 물방울 하나하나를 헤아리려면 끝이 없을것이다. 것처럼 꽃으로 바다를 이루어 만경대에서 그 하나하나의 꽃에 대한 사연많은 이야기를 다 들으려면 끝이 없을것이다.

만경대는 나서자란 고향이 서로 다른 우리 인민에게도, 대양과 대륙을 넘어온 온 세상 사람에게도 마음의 영원한 고향인것이다.

만경대는 조선인민의 아름다운 노래속에 세계인민들의 끝없는 경탄속에 높이 솟아 빛나는것이다.

위대한 력사의 봄, 어버이수령님 탄생하신 봄 4월이 있어 사람들은 삶의 봄을 맞았고 이 봄날처럼 우리 인민의 행복은 꽃피어나는것이다.

나는 하루종일 꽃속에 묻힌 길로 꽃향기에 취하여 걸으며 생각하였다.

만경대에 피어난 한송이 한송이 꽃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우러러 받드는 마음들이 그대로 여기에 축원의 꽃으로 피어나고 충성의 뿌리로 내려지는것이라고...

## 축원의 마음

리광근

내 마음

눈꽃이 맺히던 과일나무에  
봄을 불러 꽃망울을 터치리  
수령님 오신 길에 향기풍기며  
우러러 떨기 떨기 피어나리

여름날

해빛속에 무성히 우거져  
오신 길, 언덕우에 푸르려 설레이리  
걸으시는 그 길에 무거이 머리속이며  
내 마음 탐스러운 열매로 맺히리

가을이면

사시절이 여무는 가을이 오면  
속깊은 생각품고 아지를 드리우리  
환하게 웃으시는 그 영상 우러러  
내 마음 붉게붉게 무르익으리

아 봄가을로 날을 이으며

수령님을 길이길이 받드는 마음  
한해에도 또 한생에도  
계절없는 축원의 꽃으로 피고  
계절없는 기쁨의 열매로 주렁지리

# 사랑의 박우물가에서

윤좌근

경건한 마음 안고  
정가로운 박우물가에 섰노라니  
거울처럼 맑은 물결위에  
어려오는 그 영상

수정같은 물위에  
조용히 웃으시는  
인자하신 그 모습  
강반석어머님의 영상을 담아  
맑고 밝게 피어있는 샘물

가슴가득히 안기여오네  
김형직선생님의 가르치심 받으려  
찾아오는 국민회원들을 맞으시며  
한밤중에도 동이 이고 맑은 물 길으시던  
어머님의 그 지성

조선의 슬기와 용맹을 키우는  
명신학교 운동장에서 뛰놀던 학생들에게  
몇번이고 시원한 박우물 길어나르시던  
어머님의 뜨거운 사랑이 피어넘치네

한동이 물을 길으시면서도  
선생님의 지원의 뜻을 생각하시고  
한바가지 물을 뜨시면서도  
새조선의 앞날을 그려보시던  
어머님의 마음

김형직선생님의 뜻을 받드시며  
이슬에 젖고 땀에 절은  
애국투사들의 옷을 헤우시며  
언제나 마를새 없으시던 그 손길

생각하는 이 마음 젖어드네

저녁이면 마을녀인들과 함께  
가물거리는 등잔밑에 바늘질을 하시며  
한낮이면 언덕밭에 김을 매시며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던  
인자하신 그 음성 가슴뜨겁네

우물가에 집집에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며  
애국의 참 뜻을 깨우쳐주시어  
온 마을을  
김형직선생님의 지원의 뜻  
나라찾는 한길로 이끌어주신 어머님

박우물 박우물  
봉화리의 박우물  
어머님의 그 신념, 그 사랑이  
끝없는 샘물로 고이여  
끝없는 이야기 전하여주네

박우물 박우물은 깊지 않아도  
봉화산뿌리에서 솟아오르는 물줄기  
어머님의 깊고 넓은 사랑의 샘이 되어  
사시절 언제나 넘쳐흐르나니

아 뜨거운 마음안고 다가서는  
여기 박우물가에서  
사람마다 경건한 마음으로  
강반석어머님을 가까이 뵈오며  
인자하신 그품에 뜨겁게 안기네

# 벗이 많은 사람

박유학

밤 9 시가 되면 역은 조용해진다. 남행열차도 북행열차도 이미 지나간 뒤다. 이제부터 역은 한동안 편안히 숨쉴수 있는것이다.

누군가 문밖에서 화구문을 열어놓고 불판을 굽는 소리가 들린다. 방안은 화끈거리고 창문에선 물이 흘러내리고있다.

나의 앞에는 30 전후의 젊은 여성이 앉아있다. 그는 역의 초급당비서다. 나는 이곳 봉천녀성려객역에서 봉사사업을 어떻게 벌리고있는가를 취재하기 위하여 초급당비서를 찾아온것이다.

그러나 나는 별로 시원한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 당사업을 시작한지 두달밖에 안된다니 그럴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것만은 아닌것 같았다. 그의 얼굴에는 줄곧 근심이 어려있었다.

《밖에 눈이 와요? 바람도 불어요?》

그는 창문결에 앉은 나에게 자주 묻곤하였다. 불빛이 내비치고있는 창문에는 가벼운 눈송이들이 소리없이 부딪쳐다가는 어둠속으로 사라지곤 하였다. 그리고 이따금 창문이 덜렁거렸다.

《대합실엔 손님들이 있답니다. 난방설비가 좋지 못하여 불편이 많을거예요.》

나는 매일 신문에 실릴 기사때문에 마음을 놓을수 없었고 역의 당비서는 손님들의 일로 걱정을 놓지 못하는것이다.

신문사에서는 편집국장이 기다리고있다. 그리고 좋은 기사가 오기를 고대하고있는것이다.

문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똑똑똑 똑똑똑》 그것은 바람이 희롱하는것 같은 가벼운 손기척소리였다.

《들어오세요.》

당비서가 창문쪽을 보면서 응대하였다. 기척이 없었다. 그대신 뽐드득뽐드득 눈발는 소리가 났다. 다음은 유리창문이 약간 흔들렸다. 나는 누군가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는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러자 내 눈에는 유리창에 납작 붙은 얼굴이 띄었다. 그것은 사내의 얼굴같았다.

《예영이 어서 들어와요.》

당비서가 금시 활기를 띠며 소리쳤다.

창문에서 얼굴이 떨어졌다. 그 순간 나는 아주 이쁘게 생긴 처녀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당비서는 일어나 문을 열어주었다. 처녀가 새처럼 날아들었다. 방안에는 눈꽃이 확 날렸다.

《기자선생님이에요. 버릇없이.》

당비서가 처녀의 어깨에서 눈을 털어주며 나무

랐다. 처녀는 당비서의 뒤에 숨어버렸다.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열여덟 아니면 열아홉이나 되었을가?

당비서는 처녀가 기술학교를 졸업하고 역안내원으로 온지 한달밖에 안된다고 하였다.

《비서동지, 빨리 준비해요. 정순언니랑 순옥동무랑 먼저 다 가버렸어요. 참 한심하지요? 비서동지를 빼놓구 저들만 가다니...》

《아니, 무슨 일인데...》

《있었어요? 비서동지, 요즘 새로 찾아낸 옥천약수말예요. 그걸 손님들에게 공급하자고 비서동지가 말씀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비서동지를 빼놓고 저들만 가지 않았겠어요. 글썄 혼썰을 내주자요, 비서동지.》

비서는 웃으면서 나를 쳐다보았다. 나 역시 웃지 않을수 없는 일이었다. 순진한 어린 처녀는 무슨 일에서나 이신착척하는게 당비서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비서는 조금 난처해하면서 들릴락말락 처녀에게 속삭이는것이였다.

《어떻게 할가, 손님이 와계신데.》

비서의 망설임은 처녀에게서 활기를 걷어갔다. 그는 웃지도 않고 말도 없이 땅바닥만 내려다보았다. 거기서는 처녀가 밟고들어온 신발자리가 축축히 녹아흐르고있었다.

비서의 얼굴에는 한순간 측은한 빛이 스쳐갔다.

《그렇게 해요. 어서 준비해요.》

비서는 마음이 약한 여자처럼 가볍게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처녀의 기분은 순식간에 돌변하였다. 그는 해죽 웃고 들어올 때처럼 날쌔게 뛰어나갔다.

유봉숙비서는 덜컥거리는 문을 닫아놓고 다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랑해를 구하는 미안한 표정이 어려있었다.

《가봐야겠어요. 우리는 약속한게 있답니다.》

나는 당황해졌다. 취재도 집필도 래일까지는 끝내야 하는것이다. 당비서를 놓치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나는 긴장해졌다. 그러나 내가 미처 손쓸 사이도 없이 다시 문이 펄쩍 열렸다. 처녀는 털목도리와 숨저고리와 커다란 솜신을 안고 들어왔다.

《이걸 입으세요. 막 추워요. 코구멍이 딱딱 붙어요.》

새처럼 날랜 처녀였다. 두볼은 새빨강게 상혈되어있고 얼굴에는 눈녹은 물이 보석처럼 반짝거리

고있었다.

《예영인 그렇게 차려입구 되겠어? 저 바람소리를 들어봐요.》

바람이 눈가루를 몰아다가 창문턱을 후려쳤다. 마치 장난군사내애가 눈가래를 들고 눈을 퍼치는 것만 같았다.

《아이들하구 장독은 얼지 않는대요. 비서동지만 견디면 돼요.》

처녀는 다시 밖으로 뛰어나갔다. 불빛이 내비친 창밖으로 뒤걸음쳐 뛰여가는 처녀가 보였다.

《흥이 났어요. 우리 예영이가...》

유봉숙비서는 곱게 실눈을 지으면서 웃었다. 내가 보기에는 비서도 처녀 못지않게 흥분되어있었다. 숨저고리를 입고 털목도리를 두르고 숨신까지 신고나서 몇번 땅을 굴러보기까지 하였다.

참으로 이때의 나의 심정을 무어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신문사의 형편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나를 동정하지 않을수 없었을것이다.

하지만 비서는 벌써 자기 일에 바빠돌아갔다. 책상위의 서류들과 문건들을 재빨리 거두고나서 그는 허리를 굽히고 선체로 탁상일지에 급히 썼다.

《...려객지도원과의 담화는 래일로 미룰것.

철도국선동원강습에 옥심동무를 보낼것.

대기실 노래보급은 해옥동무가 할것.

그 다음은... 토의할 문제는? ...》 하고 《토의할 문제》에 두번 밑줄을 그어놓고나서 다시 《갓다와서 합의할것.》라고 썼다.

비서는 탁상일지에 연필을 올려놓고 허리를 폈다. 그의 얼굴에는 일이 가득차있었다.

《당비서사업을 처음 맡고보니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려객역에서는 봉사성과 문화성을 높이는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치셨답니다. 어떻게 하면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할수 있을가요?》

비서는 잠깐 말을 끊고 밖의 동정에 귀를 기울였다. 바람소리, 창문에 눈가루가 부딪치는 짜르릉소리, 그리고 어디선지 덜컹거리는 빈 물통소리가 들린다.

비서는 나지막하게 한숨을 쉬었다.

《갓다와서 이야기해드리지요. 기사동지, 우리 예영이가 또 들이닥칠텐데요. 저것 보지요. 물통소리가 자꾸 들리는걸, 저건 우리 합숙방의 뚜껑 달린 물통이랍니다.》

나는 할수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솔직한 말로 비서를 놓아주고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나는 신입당비서의 몇마디 말에서 벌써 무엇인가 중요한것, 당비서의 의식에 깊이 자리잡은 본질적인 그 무엇을 들여다본듯한 흥분을 느꼈던것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모태이고 움직이며 일이 시작

되고있다는것을 나는 확신하였다.

그러나 어찌하랴. 나는 이 당비서에게서 아무런 사실도 알아내지 못한채 돌아가게 된것이다. 나는 그때 대학을 갓 졸업한 기자였다.

나는 다소 억울함과 수치를 느끼면서 신문사로 돌아왔다. 그때의 나의 기분을 비행사들의 생활에 비유한다면 아마 추락된 상태라고 말할수 있었을것이다.

.....

그때로부터 일곱해가 지나갔다. 나는 유봉숙비서를 또다시 만나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그러나 어쩔수 없이 일은 그렇게 되어갔다.

유봉숙비서가 일하는 봉천역은 근위 1 급 2 중천 리마녀성려객역으로 되었다.

그리고 유봉숙비서는 국적으로 소문난 당비서가 되었다. 그러니 찾아오는 손님이 많아졌다.

내가 유봉숙비서를 다시 만난것은 어느 눈내린 날 한낮이었다. 포근하고 따뜻한 날씨였다. 처마 끝에서는 락수물이 떨어지고있었다.

유봉숙비서는 자기 사무실의 한쪽 의자에 허리를 구부리고 앉아 노란 색실로 안내원완장을 뜨고 있었다. 한사람은 의사였고 또 한사람은 어느 철도역의 역장이였다. 의사는 비서에게 《림상의학독본》을 넘겨주었고 역장은 어느 녀성의 소식을 전하고있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가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취재수첩을 펼쳤다. 거기에는 소식, 인상, 담화들이 적혀있었다. 나는 수첩을 간단간단 훑어보며 필요한 부분에 밑줄을 긋기도 하고 단편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어놓기도 하였다.

《떠나실 때 다시 들리시겠어요?》

문득 유봉숙비서가 묻는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역장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사람좋게 웃고있는것이였다.

《우리 부역장동무는 늘 비서동무 이야기랍니다. 늘 비서동무하구 함께 있었던 때를 추억하지요. 이젠 정말 우리 역에 좀 섭섭한 일이지요. 하지만 어떻거겠습니까? 나도 비서동무가 마음에 드는 걸...》

역장은 밖으로 나가면서 따라나서는 비서에게 그냥 말을 계속하는것이였다.

《손님이 많은건 복잡한 일이지요. 그렇지만 배우리 오는거야 어떻거겠습니까? 선한 사람을 박대하는건 죄가 된답니다.》

당비서가 웃으며 무엇인가 웅대를 하였으나 나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역장이 돌아가자 이번에는 의사가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나는 다시 취재수첩을 뒤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줄도 들여다볼수가 없었다. 의사의 이야기는 무시무시하고 뜻밖의것이였다. 그는 사람의 심장

이 갑자기 멎는것이 대개 밤 1시부터 3시 사이라고 하였다. 사람의 신경이 잠들기 말기 하고 육체적인장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때 심장의 박동과 순환계통의 파괴가 일어난다고 설명하였다. 의사는 며칠전에 심장이 나쁜 사람과 우연히 한 려관방에서 잠을 자다가 봉변을 당했는데 자기가 만약 의사가 아니었다면 그는 틀림없이 죽었을것이라고 하였다.

유봉숙비서는 공포와 존경이 어린 눈으로 의사의 그 진중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런 때의 구급처치는...》

의사는 설명하고 유봉숙비서는 요점을 적었다. 말이 끝났을 때 두사람 다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나 역시 막혔던 숨을 쉬었다.

의사는 몇대째 담배를 갈아불었다. 나는 말없이 그에게 불을 켜주었다. 그는 은연중 구면처럼 되어버린 나에게 사양없이 대하였다.

의사는 자기의 직업분야에 관심이 큰 사람이었다. 그는 역대기실과 같은 집합장소에서 지켜야 할 위생학적요구들을 거듭 설명하고나서 떠나갔다.

《구역담당의사인가요?》

나는 은근히 호기심이 북받쳐 물었다.

《손님이지요. 우리 역을 자주 지나다니군하는 손님입니다. 얼마나 우리 일을 잘 돕겠어요. 역에서는 위생선전을 하는 때가 많으니까요. 옷차림이나 공중도덕, 과학선전을 하는 때도 있어요. 학생들의 학습을 방조하기 위하여 수학공식이나 물리, 화학의 법칙들을 써붙이기도 한답니다. 애기 어머니대기실에서는...》

그러나 아쉽게도 나는 이야기를 더 들을수 없었다. ...

《비서동지, 저 새별에서 길동이 어머니가 왔어요.》

《아니 길동이 어머니가?》

유봉숙비서는 밖으로 달려나갔다. 마당에서 왁자하니 떠들며 돌아가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나는 좋지 한시간동안이나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책상우에는 그가 정성껏 수놓고있는 안내원완장이 놓여있었다.

참 생활은 얼마나 달라지는가? ...

그 언제인가 당사업을 처음 시작하던 때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놓고 모대기며 안타까와하던 유봉숙비서를 문득 생각하였다.

봉사성과 문화성!

나는 지금도 그가 흥분하며 안타깝게 외우던 두마디 말을 뚜렷하게 기억한다.

그때로부터 일곱해가 흘렀다.

무엇이 유봉숙비서를 이처럼 성장시켰는가? 그것은 내가 알듯도 하고 그러나 아직 채 알지 못

하고있는, 반드시 내가 알아야 할 그 무엇이기도 한것이였다. 나의 사색은 소란스런 분위기속에서 깨여졌다. 얼굴이 환히 밝아진 유봉숙비서가 들어선것이다.

《역에서 일하느라면 별의별 기쁜 일이 다 있겠지요.》

유봉숙비서는 여섯해전에 역일군들의 도움으로 첫아들을 낳은 어머니가 찾아왔다고 하는것이였다. 껍 드물게나마 대기실에서나 렬차에서는 뜻밖의 일이 있을수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구급차가 도착하기전에 역일군들은 산모에게 필요한 방조를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유봉숙비서는 조산원기술을 배워두었고 새별의 그 행복한 어머니의 첫 방조자로 된것이다.

나는 유봉숙비서에게 대단한 흥미를 느꼈다.

《비서동무, 그런데 아까 그 역장은 누굽니까?》

나는 아주 간간히 모든것을 캐물을 작정을 하였다.

유봉숙비서는 처음 한순간 어리둥절해졌다. 그러더니 《예, 그 역장동무말이지요.》 하고는 천천히 눈길을 떨구는것이였다. 그의 얼굴에는 련련한 그리움이 어리였다.

《우리 렬객지도원의 소식을 가지고 왔답니다.

지금은 갈매역 부역장으로 가있지요. 잊을수 없는 동무예요. 정말 잊지 못하겠어요.》

유봉숙비서는 문득 고개를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추억과 애정이 깃들어있었다.

《단발머리치너로 우리 역에 왔었어요. 당돌했었지요. 배운것대로 행동하는것밖엔 몰랐어요. 그 애는...》

그는 토막토막 끊기는 감격어린 어조로 말하는 것이였다.

《혹시 그 처녀가 아닌지?》

나는 문득 떠오르는 7년전의 그때 일을 되새기면서 물었다.

《뭘더라 이름이? 나의 첫 취재를 파탄시킨... 그 안내원...》

《아니!》

유봉숙비서는 갑자기 생각난듯이 기쁨에 넘쳐 부르짖었다.

《맞아요. 우리 예영이, 그 애, 그 애말이에요.》

나는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돌이켜보면 나에게 그것은 별로 아름다운 추억일수 없는것이다. 나는 그날 얼마나 면구하고 딱한 봉변을 당했는가?

《사실 비서동문 너무했었지요. 손님을 앓혀놓고...》

나는 지나간 회포를 나누듯이 그때 일을 생각하며 이야기하였다.

《어쩔수 없었어요. 우리는 참 일이 안되던 때였으니까요.》

비서는 그자신도 어찌할수 없었다는듯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는 녀성역이 갓 꾸러진 직후였어요. 안내원들은 어린 동무들이었고 객지도원도 경험이 없었어요. 당비서인 저자신조차 그러하지 않았어요. 손님들은 불편을 느끼기 시작했답니다. 가끔씩 청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신소대장에는 이런 끝조차 나타났어요.

《음료수통의 물을 떠서 해빛에 비쳐보니 그릇 주변에 기포가 붙은게 보이지 않습니다. 신선한 물이 아닙니다. 물조차 묵어서야 되겠습니까?》

물통은 화독염에 있었답니다. 물이 더워나면서 공기가 빠져달아났고 물맛조차 변한것이예요.그때는 안내원들이 정성이 없고 딱딱하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규정밖에 모른다는 불만이 있었지요... 그런데 역에서는 모든 일이 무난히, 레사롭게 흘러가지 않아요.

리해할수 없는 일이였답니다. 매일같이 정해진 차시간에 손님을 맞고 떠나보내며 그 봉사내용조차 똑같은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객역의 집무가 어느덧 실무에 빠지고만거예요. 참, 가슴아픈 일이 아닐수 없었어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우리 근로자들의 려행길에 조금이라도 불편이 있을세라 것처럼 녀려하시고계시는데... 전 그때 막막한 생각마저 들었어요. 모든 책임은 당비서에게 있었지요. 당비서가 사람들의 심장속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들을 수령님의 교시관철에 불려일으키지 못했다는 자책이 그냥 가슴을 허비고드는거예요. 저는 안내원들과 함께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들의 친한 벗이 되고 길동무가 되어 수령님의 교시를 하나하나 관철해나가자 이렇게 생각했었지요. 저는 수완도 방법도 없었답니다. 그저 자기 생각을 내놓고 의논해보았어요. 안내원들은 호응했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저는 실례인줄 알면서도 떠난거예요. 당비서를 믿고 찾아온 안내원의 그 마음을 저버릴수가 없었어요.》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순간에 솟구친 감격은 서서히 먼 추억으로 나를 이끌어가면서 하많은 생각을 불려일으켰다.

사연은 결국 그렇게 흘러갔는가? 그렇다면 나는 벌써 알아야 할것이 아니였는가? 그 밤에 당비서가 무엇을 하였는가? ...그리하여 나는 7년 세월이 지난 오늘에 와서 실패한 첫 기사의 후일담을 다시 듣게 되었던것이다.

× ×

...그들은 차장차를 타고갔다. 날은 추웠다. 눈은 몇치 않고 내렸다. 두 녀자는 서로 몸을 꼭 기대고 앉아 뽀뽀거리리는 바람속을 바라보았다. 검은 전주들이 뽀뽀 지나갔다. 굴곡이 보이지 않는 흰 언덕이 기차와 함께 줄달음쳤다.

눈내리는 별판의 여기저기에는 무리등처럼 엉

켜붙은 희끄무레한 불빛들이 보였다. 그것은 눈발속에 잠긴 마을이었다.

철길과 자동차길이 평행을 그은 구간에서 이따금 자동차의 불빛이 나타났다. 그것은 한순간 기차와 함께 달리기를 하다가는 잠간사이에 떨어져 어둠속에 사라졌다. 철도건널길마다에는 푸른 신호등을 든 감시원이 서있었다.

《비서동지 난말예요. 한번도 철도일군이 돼보려는 생각은 없었했어요. 나는 춤을 추고싶었거든요.》

처녀는 당비서의 얼굴에 더운 김을 끼얹으면서 속살거렸다.

《그런데 어떻게 철도로 왔을까?》

유봉숙비서는 처녀의 외투깃을 세워주면서 은근히 물었다.

《모르겠어요. 로동파에서 파견장을 주는대루 왔어요. 와보니 좋겠지요. 비서동지두 나처럼 왔어요?》

유봉숙은 소리없이 미소를 지었다. 차바퀴소리는 갑자기 높아졌다. 렬차는 다리를 지나고있었다.

《난 꿈이 있어 왔어요. 우리 청년철도건설자들은 이천-세포사이 철길을 놓았거든요. 자기의 땀과 정열과 청춘을 바친 철길과 헤어질수가 없었지요.》

차바퀴의 소음은 앞에서부터 작아졌다. 렬차는 다리를 벗어나기 시작한것이다. 마지막차량에서 소란한 소음이 와르릉 울리고는 똑 끊어졌다. 기차는 드디어 안도의 숨을 쉬듯이 짧게 기적을 울렸다. 이제는 마른 차바퀴소리가 단조롭게 들려왔다.

《말을 해요. 예영이 무슨 생각을 하는거예요.》

유봉숙은 추운듯이 몸을 움송그린 처녀의 등을 어루만졌다.

《공연한 소릴 했나봐, 난 창피해요. 정말이지 한번도 바라지 않던곳에 왔다는건 수치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 누구나 희망하는곳에서 일하는건 좋은것이지. 그러나 어디서나 마음을 불이 구 할줄 안다는건 그보다 더 훌륭해. 예영인 할줄 알아. 난 예영이가 부러워.》

처녀는 말없이 당비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예영이, 힘껏 일해보자요. 우리 객역의 임무는 첫째도 둘째도 손님들의 편의를 돌보는거예요.

우리가 봉사성을 높여야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모든것을 다 안겨주시려고 그토록 심려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이 그대로 가닿게 할수 있는거예요. 우리는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을 안고가는 빛발이 되자요.》

처녀는 어둠속에서 비서의 손을 찾아쥐었다. 바람받이에 앉은 비서의 손은 얼었다. 예영이는 그 손을 자기의 온기로 녹일듯이 입술에 가져다 호-

불었다. 유봉숙비서는 착한 동생의 시중을 받는 언니의 마음처럼 행복하였다.

(내가 앞으로도 예영이의 마음에 들수 있을까? 앞으로 이 밤처럼 당비서를 찾아올까? ... 이 한 처녀를 손잡아 이끌지 못한다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당비서가 되겠는가?)

처녀의 손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비서는 하염없이 생각하였다.

기차는 눈보라에 싸인 작은 역을 지나갔다. 역명판을 알아볼수 없었다. 그러나 처녀는 나직이 속삭였다.

《다음 역이지요?》

《그래 다음 역이야.》

그들은 약속역에서 내렸다. 약속터까지는 오리 길이 되었다. 달구지길과 제방길이 갈라지는곳에서 그들은 잠깐 멈춰섰다.

어디로 갈까?

유봉숙비서는 한발자국이라도 예영이를 쉽게 데리고갈수 있는 길이 어딜까 하며 생각하였고 예영이는 정순언니들과 맞닥들릴 길이 어딜까 하고 생각하였다.

(정순언니는 겁쟁이야. 제방쪽으로는 오지 못해.)

예영이는 정순언니를 혼내주고싶은 지점은 생각이 든것이다.

《비서동지. 달구지길로 가자요. 난 제방으로 못가겠어요.》

《그래 나도 제방길은 무서워.》

예영이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왜?》

《아니, 아무것도 아니예요.》

비서도 따라웃었다. 웃고나니 그들은 한결 더 마음들이 상쾌해졌다.

그들은 바닥이 고르롭지 않은 달구지길로 갔다. 걸기가 말쑥였다. 언땅에 자주 발부리가 걸채었다. 길도 나뻐지만 몸이 일어 자유롭게 걸을수가 없었던것이다. 그러나 차츰 몸이 훈훈해지자 걸음도 쉬워졌다. 이제는 발바닥에 밝히는 보송보송한 첫눈의 상쾌한 느낌까지 감촉할수 있었다.

황혼이 비친 석양이나 고요한 깊은 밤중에 첫눈이 내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대지는 더 풍만해지고 자연은 더 신비로와지고 마음은 더 유쾌해졌을것이다.

그들은 모든것이 그렇게 아름답고 환희에 넘치기를 바랐다. 그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바라시는 즐거운 밤길을 걸어가고있는것이다. 깨끗한 량심을 간직한 자기를 의식하며 충성스런 일에 손잡고 나선 다정한 길동무와 함께 꿈을 그린다는것은 참으로 행복이다! 당비서는 처녀들, 처녀는 당비서를 자기의 가장 가까운 벗처럼 생각하고싶었다.

앞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두사람이 마주오고있었다. 예영이는 당비서의 팔소매를 잡았다.

《정순언니들이 아닐까요?》

《글쎄.》

《정순언니예요. 이쪽 키작은건 순옥동무구. 혼내주자요, 비서동지.》

예영이는 좋아 어쩔줄 몰랐다.

《그렇가?》

《그래요, 어서요.》

《그래, 혼내주자요.》

비서도 호응하였다. 처녀는 깔깔거리면서 길옆에 었드렸다. 비서도 그옆에 었드렸다. 얼마나 순진하고 다감한 처녀시절인가! ... 유봉숙의 처녀시절도 그렇게 흘러갔다. 어느덧 그의 눈앞에는 잊지 못할 한토막 추억이 떠올랐다.

그것은 어느 가을밤의 일이었다. 도예술소편대가 봉숙이네 아래마을로 이동공연을 왔었다. 산골마을에는 드물게 차례지는 행운이었다. 봉숙이는 이웃의 친한 동무 이순이네 집으로 갔다. 이순이는 분침을 들고앉아 시간 가는줄 몰랐다.

《애, 빨랑빨랑 서둘러라. 좋은 자리를 잡아야 할게 아니니?》

봉숙이의 둔장질에 일어나기는 했으나 이번에는 옷맵시를 보느라고 또 시간 가는줄 몰랐다.

마을앞길로는 처녀총각들이 떼를 지어 밀려갔다. 총각들의 한패가 지나가면 처녀들은 바스라지는듯한 소리를 지르며 흩어졌다. 그렇지만 곧 처녀들의 유혹적인 노래소리가 울렸다. 그것은 젊고 즐겁고 은근하며 사연 많은 노래였다. 앞에서는 총각들의 담배불이 번쩍거리고... 다음은 그쪽에서도 좀 희떠운 노래소리가 울려왔다.

봉숙이는 안달이 났다.

《예, 나 먼저 가!》

봉숙이는 길로 뛰어나갔다. 앞선 동무들을 따라잡느라고 한참 뛰어갔다. 그러다가 이순이를 버리고 온다는 생각에 흠칫 멈춰섰다.

행복한 세계는 자꾸자꾸 앞으로 멀어져갔다.

드디어 아무도 없는 호젓한 길우에 이순이가 나타났다. 그 애는 애기처럼 아장아장 걸어왔다. 걸으면서도 맵시를 보는것 같았다.

《요 감쪽한것, 어디 혼나봐!》

봉숙은 화풀이를 할 생각이 들었다.

봉숙이는 살짝 길옆에 앉았다. 이순이의 살랑살랑 치마자락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애는 서너발자국 앞에까지 왔다. 봉숙은 흘쩍 뛰어나왔다.

《어마나!》

이순이는 풍당 주저앉았다. 혼비백산한 처녀는 정신없이 오던 길로 돌아섰다. 봉숙이는 뒤따라갔다. 일부러 발자국소리를 크게 내면서... 이순이는 노루처럼 날쌔게 뛰었다. 봉숙이는 절반도 따라잡을 재간이 없었다.

《이순아, 이젠 그만해 나 봉숙이야.》

봉숙이는 숨이 차서 소리쳤다. 그러나 놀란 이순이는 뒤따르는 발자국소리와 고탈소리에 더욱 죽을 힘을 다해 뛰었다. 봉숙이는 순식간에 동무를 잃어버렸다. 너무나도 뜻밖의 일이었다.

《겁쟁이, 바보.》

봉숙이는 울상이 되었다. 처녀는 아래마을에 내려갈수 없었다. 이순이를 쫓아버리고 혼자서만 좋은 구경을 갈수가 없었던것이다.

벌써 멀리 나팔소리가 울렸다.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따따.》

그것은 맑고 높은 트럼페트의 선율이였다. 부드럽게 대기를 울리는 북소리...그리고 간혹가다 《쿵창!》하고 멋지게 쳐갈기는 제금소리가 들렸다.

봉숙이는 길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눈에서는 눈물이 툭툭 떨어졌다. 참으로 얼마나 애석하고 불행한 밤이였는가! ...

그 밤을 생각하면 지금도 봉숙은 가슴이 찢어질듯하다.

이순이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있을까? 그 애는 지금도 그 밤에 당한 일을 기억하고있을까? 봉숙이는 일생을 두고 그날의 이순이를 잊지 못할것이다. 그렇게 정성껏 단장을 하고 옷이 구겨질세라, 애기처럼 아장아장 걸어오던 이순이를...

예영이에게도 이 밤의 일이 추억으로 남을까? 그리고 이 밤의 당비서를 어떻게 추억할까? 그 옛날 이순이를 쫓아버린 일로 가슴이 아프듯이 오늘의 이 예영이를 섭섭하게 한 일로 또다시 가슴 아프게 될 그런 일은 없겠는가?

길바닥에서 불꽃이 반짝하였다. 바람결에 불씨가 휩 날아갔다. 잠시후 또 한번 불꽃이 타올랐다. 그때 봉숙은 커다란 털모자를 쓴 웬 남자의 얼굴이 불빛에 드러난것을 보았다.

《어마나!》

예영이가 당비서에게 꼭 다가붙었다.

두 남자는 터덜터덜 앞을 지나갔다.

그들은 담배꽁초를 버렸다. 예영이의 머리맡에서 치직-하고 불이 꺼졌다.

《피 담배냄새!》

예영이는 못마땅한듯이 토달거렸다.

남자들이 지나간 텅 빈 행길은 몹시 을씨년스러웠다.

그들은 백금같이 함빡 눈을 뒤집어쓰고 기여울랐다. 몸이 푹푹 열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그들은 한바탕 소리내어 웃었다. 철부지소년으로 된것 같았다.

갑자기 처녀가 비서에게 무어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바람이 그 말을 휩 날려버렸다. 이번에는 당비서가 소리쳤으나 그 말도 바람이 삼켜버렸다.

처녀는 허리를 그러쥐고 깔깔대며 돌아갔다.

《달리자요!》

그들은 몸을 녹이려고 손을 마주잡고 뛰었다. 언땅을 때리는 신발소리와 유쾌히 떠드는 소리가 울렸다. 그들은 바람과 싱갱이를 하였다. 온 벌의 눈바람은 죄다 그들을 향해 몰려오는것 같았다.

당비서도 혈떡거리고 바람도 혈씩거리고 처녀도 혈떡거렸다.

그들은 마을옆을 지나갔다. 부락어귀에서 개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차츰 마을복판으로 기승스레 퍼져가면서 온 부락이 소란스러워졌다. 마치 녀자들이 달려가면서 몽둥이로 마을의 개들을 쭈셔대기라도 하는듯이...

마을을 지나자 다시 눈덮인 벌판과 동쪽과 나무들이 서있는 둔덕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작은 둔덕을 몇개 넘고 하얗게 눈을 뒤집어쓴 소나무밭을 지나갔다. 문득 그들앞에는 흰 물기둥이 솟아올랐다. 그것은 샘줄기였다. 바람은 샘줄기를 가지고 장난을 치듯이 사방으로 휘잡아돌렸다. 대기는 진동하고 머리우에는 물바래가 훑날렸다.

예영이는 환성을 지르며 샘가에 뛰어갔다. 눈속에 분화구처럼 패인 약수늪에서는 안개가 일어나고있었다. 싱그럽고도 약간 비릿한 해감내가 섞인 독특한 약수였다.

기름같이 미끄러워보이는 고요한 늪에서는 이따금 철썹철썹 눈이 무너져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늪주위에는 발자국자리가 나있었다. 물을 푼 흔적도 있었다. 예영이는 정순언니와 맞다들리지 못한것을 아쉬워하면서 물통을 내려놓았다.

비서와 처녀는 나란히 눈속에 무릎을 박고 엎드려 물을 푸기 시작하였다...

어느새 바람은 자고 눈이 멎었다. 하늘에는 별들이 돌아나기 시작하였다. 금조각을 휘여놓은것같은 찬연한 갈구랑달이 산을 넘어가고있었다. 그 한쪽 뿔은 산허리에 박혔다.

흰눈속에 묻힌 대지는 고요하고 운모의 주단같이 은은히 빛을 반사하여 안개가 서린듯이 몽롱하기도 하다.

그렇게 기승을 부리던 바람이 어쩌면 이다지도 기척없이 잠들수 있을까? 살을 에이는듯하던 대기는 또 어쩌면 이다지 푸근할수 있을까? ...물통에는 쭈르륵쭈르륵 물이 쏟아지고 녀자들은 황홀하게 자연을 탄상한다.

은은하고 신선하고 부드러운 밤이다. 그리고 이 밤에는 모든것이 신비롭다.

《비서동지.》

《응 말을 해요, 예영이.》

처녀는 꿈속에 잠긴듯이 달을 쳐다보며 말한다. 《저 달을 보지요? 구부러진 조각달말예요. 맑은 물에 빨래를 행구어 저 달의 뿔에 넣어 말리운다면 참 좋겠지요?》



비서는 말없이 처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없이 처녀의 손을 꼭 잡았다.

《비서동지!》

처녀는 비서의 가슴에 머리를 묻었다. 더운 불에서는 눈이 녹아 손등에 떨어졌다. 그것은 어쩌면 다감한 처녀의 눈물방울처럼 봉숙에게는 생각되는 것이었다.

《이 밤은 좋지요?》

《좋아요. 비서동지! 정말 잊지 못하겠어요.》

비서는 처녀의 머리 위에서 애듯이 눈을 털어주며 다정히 속삭였다.

《아버이수령님께 기쁨드리는 충성스런 일을 하는 순간이면 늘 마음은 이렇게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법이에요. 그리고 이런 순간이면 언제나 마음속엔 밝은 태양이 떠오른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은 우리들이 충성으로 우러르는 밝은 태양이에요.》

《비서동지!》

처녀의 목소리는 울먹울먹해졌다.

《전 언제나 아버지수령님께 기쁨드리는 아름다운 일만 할래요. 저의 소원은 어디서나 기쁜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자요. 예영이!》

비서는 다시 한번 처녀의 머리에 볼을 비볐다. 그는 목이 메어왔다. 과연 이런 순간을 위해 그는 처녀와 이 밤길을 걸은 것이 아닌가! ... चु고 즐겁고 생각 많은 이 가슴벅찬 밤길을! ...

비서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았다. 한없이 많은 별들이 머리 위에 뿌려져 있었다.

(저 반짝이는 하나하나의 별, 그것은 지구보다 더 큰 행성이라지... 그러나 우주는 그보다 더 광대해! 저 우주, 저 광막한 검은 공간...)

무엇때문에 이 순간 이런 생각이 떠올랐는지 유봉숙은 그자신도 알 수가 없었다.

...그들은 돌아갈 때도 화물차를 타고갔다. 역시 추웠다. 올 때처럼 서로 몸을 꼭 기대고 있었다. 뚜껑을 덮은 물통은 쿵쿵 앓은방아를 찼었다. 그들은 손을 엇바꿔가면서 얼음같은 물통을 붙잡고 갔다. 그래도 좋았다. 예영이는 채찍처럼 후려치는 찬바람속에 번쩍 머리를 높이 들고 《비서동지 누가 보아주면 좋겠어요. 장한데요.》하고 까불어댔다.

유봉숙비서의 생각은 사업으로 가득차 있었다.

(이제 토의해야 할 문제는? ...) 비서는 지금까지 끝내지 못한 사색을 줄기차게 이어오고 있었다.

긴요하고 실효성있는 문제들을 토론했어야 할 텐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성숙되고 있는 문제인가?

이 밤에 보고 느끼고 체험한것은 과연 무엇인가? 유봉숙비서는 흥분하였다. 그는 마치 탁상일지에 쓰거나 하듯이 또박또박 머리속에 생각을

적어갔다.

《...려객봉사에서 안내원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울것, 남예영, 오정순동무들의 봉사사업을 비서가 회의에 보고할것, 실효투쟁은 사로청에서 조직할것.

역장, 부역장, 려객지도원, 화물지도원, 려객사령은 한 초소씩 담당하여 도와줄것.

손님들의 신소, 청원을 매일 알아볼것.

밤교대 안내원들의 봉사규정을 다시 검토할것.

모든 동무들은 봉사성문제를 놓고 매일 자신들을 총화해볼것.

방송원, 직관원, 선동원은...》

즐거운 밤이다. 당비서는 처녀처럼 유쾌해졌다. 기차는 역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빨간 신호등이 마주 달려왔다. 그것은 주인을 기다리는 등불이었다.

《집으로 왔어요!》

예영이가 소리치며 일어섰다. 그러나 무릎이 펴지지 않아 곧드라졌다. 그들은 이발을 퍽퍽 쪼으면서 웃었다.

맷짠 날이었다. 옷에서는 눈가루와 서리가 떨어졌다. 기차에서 내려 대합실로 가는 사이에 물통에서 흘러내린 물이 솜옷에까지 얼어붙었다. 물통은 유봉숙비서가 이고갔다. 먼저 뛰어간 예영이는 밝은 대합실 유리창에 붙어서서 녀없이 들여다보았다. 먼저 도착한 정순언니들이 손님들에게 약수를 떠올리고있었던것이다. 손님들은 유쾌히 응성대며 돌아가고있었다.

처녀는 기세 좋게 출입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소리쳤다.

《우리 비서동지가 오셨어요. 약수를 이고 왔습니다.》

유봉숙비서는 그 자랑찬 환희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상하게 걸음이 휘청거렸다. 물통에선 약수가 출렁거리고 이따금 넘쳐난 물이 머리와 옷으로 흘러내렸다.

술렁대던 대기실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밖에서 더운 방에 들어온 비서의 얼굴에는 김이 서렸다. 그의 얼굴은 온통 물기에 젖어있었다. 그것은 김인지 얼음이 녹아내린 물인지 알 수가 없었다. 물통밑에는 흰수염처럼 고드름이 달려있었다.

《비서동무!》

사람들이 한꺼번에 비서를 둘러쌌다.

한 남자가 성급하게 비서의 머리 위에서 물통을 들었다. 그러자 고드름으로 얼어붙은 머리와 솜동복이 함께 올라갔다. 누군가 녀자의 목소리로 놀란소리를 쳤다. 모두 다가붙어 고드름을 뜯어내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은 거의나 떠받들다싶이하면서 비서를 화독앞으로 날라갔다. ...

참으로 행복한 순간이었다. 것처럼 청원과 신소

와 의견이 분분하던 역에서...

유봉숙비서에게는 이 환희의 순간이 어떻게 닥쳐왔는지 의식할수 없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바라시는 일, 이것이 우리 근로자들의 려행길에 그토록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준것이다.

당비서는 자기의 조용한 사무실에 앉았을 때보다도 이 뒤설레는 혼잡속에서 이상하게 당비서의 사업들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리고 그 선명한 생각들은 어째선지 가슴을 후덕히며 눈시울을 뜨겁게 하였다. ...

유봉숙비서는 잠간 말을 멈추었다. 그의 얼굴은 조용하였으나 눈가장은 붉어졌다. 나는 그때 어떤 표정을 하고있었던지 기억할수 없다. 다만 부스럭거리며 주머니에서 담배를 찾던 생각만이 떠오른다.

그는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벌써 오래된 옛날의 이야기예요. 예영이두 없구, 나도 나이를 먹었으니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지금도 자주 그때 일을 생각하군한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묻군하지요.

당비서로서 여러해를 살아온 지금도 처음 당사업을 시작하던 그때처럼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으려고 애쓰고있는가를 그리고 그때처럼 려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봉사일군으로서, 당비서로서 자기 할 일을 찾고있는가를?...

혹시 내가 어느덧 사람들의 머리에 올라서서 권세를 부리는 인간이 되지는 않았는지... 경험과 요령과 실무로 당사업을 대치하는 그러한 경향은 없었는지?... 그렇다면 그것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우리 당에 얼마나 크나큰 손실로 되겠어요. 제 마음이 어째서 이렇게 움직여지는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아마 무엇인가 미흡하고 해놓은 일에 대한 불안할 생각이 줄곧 저를 괴롭히고있는 모양이에요. 저는 능력이 부족해요. 할일이 많답니다. 늘 당앞에 사람들앞에 빚지고 산다는 생각만이 가득해요.》

그의 얼굴에는 또다시 그 언제인가 보았던 그 애정에 가득찬 표정이 떠올랐다.

《참 비서동무두...》

밝은 해빛이 방안에 비쳐들었다. 새들이 한무리 창앞으로 날아왔다. 그것들은 것으로 창유리를 두드렸다. 방안에는 비둘기만큼 커진 새의 그림자

들이 꼭 차서 돌아갔다.

밝은 하늘에 흰구름이 떠가고있었다. 그것은 어찌면 그리도 은빛인가, 눈을 감아도 그 흰구름, 맑은 하늘은 그대로 보인다.

밖에서 뽀드득뽀드득 눈 밟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먼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귀익은 음향이었다.

언제 내가 저 소리를 들었던가?...

뽀드득뽀드득 눈 밟는 소리... 그래 그것은 7년전 그날밤의 예영이 눈 밟는 소리다.

나는 의자를 밀치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목에 빨간 목도리를 두른 안내원처녀가 마당에서 뒤걸음질하면서 눈우에 찍히는 자기 발자국을 내려다보고있었다.

《우리 남실이아 찾아왔어요. 완장을 가지러 왔답니다. 한주일전에 들어온 안내원이지요. 얼마나 포부가 큰 처녀겠어요. 지금 영예군인, 애기어머니대기실안내를 맡았답니다. 국적인 시범단원지요. 할일이 많아요. 그러나 해낼거예요.》

유봉숙비서는 바늘이 달려있는 안내원완장을 자기 팔에 돌려보며 모양새를 가늠하였다.

《어떨가요? 이 완장이 마음에 들어할가요? 퇴짜나 맞지 않을까요? 예?》

나는 묵묵히 아무 말도 없이 앉아있었다.

비서는 하얀 이를 드러내고 실밥을 물어뜯으며 부푼 부분을 다독다독 손바닥으로 두드리기도 하면서 온갖 정성을 다하여 완장을 꾸미고있었다. 어제날 것처럼 진정을 다하여 예영이의 손을 잡아 이끌어줄 때처럼...

다시 뽀드득뽀드득 눈 밟는 소리...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취한듯이 그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예영이의 발자국소리로도, 남실이의 발자국소리로도 그리고 그 의사나 역장의 발자국소리로도 나에게는 들린다.

아마 저 소리... 저 발자국소리는 7년전 그날부터 당비서의 방 창문아래에서, 출입문밖에서 언제나 멎지 않고 들렸을것이다. 때로는 마른 나무잎을 밟는 발자국소리, 때로는 젖은 우산을 터는 성급한 소리로도 변하며...

앞으로도 저 소리는 들릴것이다.

아버이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는 숭고한 사업을 놓고...

당비서의 방 창문아래에서, 출입문밖에서... 한 번도 멀어지지 않고, 언제나 가까이!

## 위훈과 생활

석윤기

하늘높이 솟아오른 홀륭한 건물을 보면서 땅속 깊이 박힌 기초를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나 기초가 있는것은 움직일수 없는 사실이며 그 기초는 언제나 건물자체보다 먼저 생겨나게 마련이다. 인간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언젠가 한 로투사는 근거지 초시기에 대한 긴 회상담끝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들려준적이 있다.

《...우리가 야학에서 겨우 국문이나 깨친 수준인데 공청지부를 책임지라니 아찔해집니다. 못하겠다고 하니까 비판하더군요. 그러면서 조직에 의거해서 배워나가며 일하면 된다, **김일성** 장군님께서 이 조직을 통하여 우리모두를 혁명승리에로 인도하신다, 조직을 통하면 장군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고 또 장군님께 자기 생각을 반영할수도 있다, 그러니 뭐 무서울게 있느냐, 이런단말요. 조직선을 따라올라가면 결국 **김일성** 장군님의 지도를 받게 된다고 하니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 어디 말같이 쉽더라고요. 상부에 가서 지시를 받을 때는 그럴듯하게 생각되던것도 정작 동네에 내려와서 집행하자고 보면 지시와 꼭꼭 맞아떨어지지 않는게 불쑥 나지군한단말이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소. 그것이 모두 장군님의 뜻을 받드는 일인데 제 생각대로 망탕 해버릴수야 없지요. 밤길로 산을 타고 70 리를 부지런히 걸어갑니다. 어떤 때는 자는 사람을 두들겨깨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사람이 또 어딘가로 나가고 없어서 갔다는곳으로 찾아가기도 하면서 겨우 해명을 해가지고 돌아오면 날이 밝지요. 그런데 하다가 보면 몇참 못가서 또 걸린단말이요. 그러면 또 70 리를 올라가지요. 그때 이런 전화같은것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소, 맨 다리로 사업을 한셈이지요. 참 옛말은 옛말이웨다.》

그 소박한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렇게 조직에 튼튼히 의거해서 살며 싸웠기때문에 토스레 하나를 걸치고 자라난 어제날의 평범한 노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이 우리 시대의 가장 심오한 진리인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남먼저 체득하고 그것을 어렵고 복잡한 혁명투쟁의 매 단계와 국면에서 아무런 편향없이 빛나게 구현할수 있었던것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광범한 근로대중의 강철같은 단결과 조직을 전제로 한다. 그 어떤 특출한 개성도 뽄뽄이 흩어져서는 맥을 못추지만 개개로 볼 때 미미한 힘이라도 조직화되면 세상을 뒤엎을수 있다.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힘의 위대성은 이렇게 구현되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혁명을 령도하시는 첫날부터 사람들을 교양하여 조직에 묶어세우고 조직적으로 훈련시키는데 가장 큰 힘을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그런 로고우에 우리 당, 우리 혁명의 빛나는 승리가 수놓아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직생활은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교양의 학교입니다. 누구나 강한 조직생활을 통해서만 혁명적으로 단련될수 있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충실한 참된 혁명가로 자라날수 있습니다.**》

조직을 떠나서는 아무런 일도 이룩할수 없고 도대체 살아나갈수조차 없다는것이 장구한 혁명 실천과정에 우리 인민이 체득한 생활의 신념이다.

《안심하십시오. 나는 죽을것입니다. 그러나 조직은 살것입니다. 나의 재산의 전부인 2 원을 보냅니다. 조직의 자금으로 써주십시오.》

우리 시대의 심오한 진리와 숭고한 정신세계가 고도로 집약된 이 말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어머님께서 적들에게 체포되시였을 때 감방에서 조직에 통보하신 글말이다.

수천년 계급사회가 어지럽혀놓은 인간정신의 탁류를 헤치고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이 가셔내여 숭엄한 세계에로 이끌어주는 이 말씀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이 조직에 대한 태도에서 잘 드러난다는 심오한 진리를 깨우쳐준다. 김정숙동지께서 감옥의 모진 시련과 삼엄한 적경계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내보내신 돈은 불과 2 원, 그리고 그 말씀은 통털어 다섯마디뿐이였다.

그러나 그것은 위험에 처한 조직을 구원했고 사람들을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충성의 일념으로 교양하였으며 그들을 혁명투쟁에 힘차게 불러일으켰다.

우리는 훨씬 많은 돈을 구할수 있고 홀륭한 말을 얼마든지 모을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우리 혁명은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께서 조직에 보내주신 그 2 원의 돈과 다섯마디의 말씀을 무엇보다 귀중한 재보로서 영원히 간직할것이다. 그 2 원의 돈과 다섯마디의 말씀속에는 수십만리 풍운을 헤쳐왔고 또 헤쳐가야 할 우리 혁명의 먼 로정에서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성심을 비쳐주고 키워주는 깨끗한 마음의 샘이 있고 숭고한 정신의 요람이 있기때문이다.

한때 영웅이란 어디까지나 영웅인만큼 남다른

점이 있을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취재때문에 돌아다니면 별이야기를 다 듣게 된다. 영웅에 대한 이야기나 나올라치면 심지어 평소에는 뽀이나 쓰고 망탕 굴어나는 배짱군이 일단 유사시에는 영웅이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미신》을 들을 때도 있는것이다.

영웅은 갈망하면서 노력은 하기 싫어하는 사상 이 그러한 《미신》의 바탕에 깔려있다.

그러나 력사는 공정하여서 여태 망나니가 영웅 이 된 실례를 단 한건도 만들어주지 않았다.

나는 가끔 작품을 쓰면서 사람들의 성격과 그 운명의 곡절을 생각하다가 문득 두개의 박을 려상하는 때가 있다. 하나는 흥부의 박이요 다른 하나는 놀부의 박이다. 형제는 다같이 부러진 제비의 다리를 쳐매주고 제비가 은혜갚음으로 물어다 준 박씨를 심었는데 어찌하여 흥부의 박에는 금은보화가 가득하고 놀부의 박에서는 무시무시한 량반과 중, 남사당따위가 쏘어나온단말인가. 혹 작가가 공정성을 잃은것은 아닌가.

그러나 작가의 분석은 예리하다. 흥부가 제비의 다리를 쳐매준것은 제비를 위한것이이지만 놀부가 모방한 그 《선행》의 동기는 탐욕이었다.

더구나 놀부의 박에서 쏘아져나온것이 무서운 중에도 무서운 량반, 중따위였다는것은 의미심중 하며 우리로 하여금 자기 일신의 부귀와 안락을 위하여 남을 희생시키는자들에게 구원할수 없는 파멸을 선고한 작가의 공정성을 믿게 한다.

요즘 백설희, 김상련, 박영철, 장재산 등 숨은 영웅들의 이야기로 온 나라가 감동에 설레이고있다.

우리는 숨은 영웅들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무엇이 우리의 가슴을 그리도 세차게 두들겨주며 감동의 눈물로 젖게 하는가?

과학탐구의 길에서 성과를 올리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그마한 한알의 새 품종 씨앗속에는 실로 과학자의 피땀어린 탐구의 일생이 집약되어 있을수도 있다. 그것이 인간생활에 미치는 거대한 영향을 생각하면 그 한알의 씨앗이 가지는 의의는 더욱 커진다. 그러나 그것은 가시적이며 수자로 표시할수도 있다. 그렇기때문에 사람들은 자주 그 엄청난 수자, 그 휘황한 빛발에 압도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의 숨은 영웅들이 그야말로 남다른 영웅이며 영웅다운 영웅인것은 그 빛나는 위훈 자체보다 그밑에 깔려있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 혁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묵묵히 바치는 그 헌신성인것이다.

위훈을 세우는것은 쉽지 않다. 그것을 위하여 한 순간이 아니라 일생을 바친다는것은 더욱 어렵다. 더구나 그 모든것을 누가 보든말든, 알아주든말든 묵묵히 바친다는것은 참으로 험치 않다.

바로 그래서 그들을 숨은 영웅이라고 부르며 온 나라가 그 모범을 따라배우고있는것이다.

나는 때로 취재수첩을 들추어보다가 굉장한 위훈으로 이름을 떨치지는 못했어도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혁명위업을 위하여 허구한 날 변심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바쳐온 사람들의 숭고한 생활태도에 접하여 가슴뭉클한 생각에 잠기곤한다.

1975년에 한 광산에 갔을 때였다. 당창건 30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로력적성으로 맞이하기 위한 불꽃튀는 전투가 벌어져 날에날마다 새로운 위훈이 보도되고있을 때 한 막장에서는 신입당원을 받아들이는 세포총회가 진행되였다.

당창건30돐을 맞는 영광의 시기에 영광의 대렬에 들어서게 된 그 청년은 아버지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광산을 현대화하기 위한 수직갱건설에서 이름을 떨친 로력혁신자였다.

그는 당원들앞에서 감격어린 목소리로 말하였다.

《...저는 8년전에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 광산에 와서 몇해전까지만 해도 자기 혁명초소에 대해 영예감을 못가지고 이 산속에서 벗어날 궁리만 했습니다. 오랜 당원들과 사로청조직이 저를 교양하여주었습니다. 저를 비판도 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우리가 지켜선 이 초소가 아버지수령님께서 제일 귀중하게 내세우시고 믿어주시는 영광의 초소라는것을 타일려주었습니다.

저는 이제는 이 지하막장이 그 어떤 화려한 직장보다 제일 좋습니다. 그것은 이 갱도속에 해빛은 비쳐들지 못해도 위대한 수령님과 당이 자애로운 사랑의 빛발이 그 어디보다 제일먼저 비쳐들기때문입니다.》

청년의 입당청원은 엄숙한 분위기속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였다.

회의가 끝난후 나이 지숙한 입당보증인이 세포비서를 찾아왔다.

《내가 오늘에야 겨우 분공을 수행한셈인데 또 새 과업을 하나 맡겨주시우다.》

젊은 세포비서는 고개를 기웃거리며 말하였다. 《아바이,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런즉 비서동무는 잘 모르는 모양이군. 하기는 모를수밖에... 너무 오래된 이야기니까. 오늘 그 사람이 저도 말했지만 옛날에는 좀 철없이 굴었지요. 난장에 내보내달라, 직장을 옮기겠다, 이러면서 말썽을 피우는데 그건 우리 젊은이들이 사상적으로 자랄 때 걸리기 쉬운 몸살같은것이지요. 쉽게 치르는 사람은 쉽게 치려도 되게 걸리면 심하게 앓을 때도 있수다. 한번은 그대 세포비서와 그런 걱정을 하다가 나더러 한소대에 있는것만큼 그 친구를 말으라고 하더군요끼고다니며 바람간수랑 잘해주고 때로는 쓴약도 먹이고 이마도 짚어주고 하라는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 몸살이 오래 갔수다. 이제는 우리 당의 당원이 되었으니 내가 겨우 분공을 수행한셈이웨다.》

《그럼 이전 비서동무한테서 그런 분공을 받았습니까?》

세포비서는 감동되어 물었다.

《8년전이니까 전비서가 아니라 전전 비서한테서 받은것 같수다. 참 내가 당적분공을 잘못수행하다보니 그기간에 비서가 3대째 갈렸군.》

나는 바로 그 세포비서한테서 이야기를 듣고 그 로광부를 찾아갔다. 30년의 당년한과 40년의 갱내로동경험을 가진 그 오랜 당원은 그때 젊은 이들속에 끼여앉아 그날 작업에서 나타난 부족점을 비판적으로 총화하는 소대장의 열기띤 목소리를 신중하게 듣고있었다.

《우리가 잘못했지. 소대장의 말을 듣고보니 우리가 뒤겨두매를 좀 더 깨끗이 해서 넘겨주었다라면 다음교대가 막장을 더 내밀었을까 아닌가. 주인답지 못했거던.》

이렇게 그가 자책에 잠겨 혼자말처럼 중얼거리자 무엇인가 의견이 있을사해서 앉아있던 젊은 굴진공들이 모두 고개를 떨구고 심각한 표정이 되었다.

나는 그 로광부의 모습에서 우리 사회를 땅속 깊이에서 떠받들고있는 어떤 주추돌같은것, 위훈에 대한것을 련상하였다.

위훈은 비록 한순간에 세워진다 하더라도 그 사상정신적기초는 뿌리깊이 박혀있으며 그것은 성실하고 꾸준한 조직생활속에서만 싹트고 자라난다. 그렇게 마련된 기초가 매번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이나 위훈으로 빛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숭고한것이며 우리 당이 헤쳐온 위훈의 력사속에 갈피갈피 깃들여 빛날것이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적 강점지역에서 있는 일이다. 면당위원장이 인민유격대로 떠나가면서 한 당원을 적기관에 박아넣었다. 그 당원은 조직의 지시대로 적의 동태와 비밀을 묵묵히 수집해서 정해진 경로를 따라 인민유격대에 정확히 통보했다. 그에 기초해서 조직된 전투는 매번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그내막을 아는 사람은 면당위원장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면당위원장이 희생되었다. 그는 숨을 거두면서 뒤를 잊게 된 인민유격대 지휘관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으나 이미 혀가 굳어져서 말이 똑똑치 않았다. 그후 인민유격대 지휘관은 군대에 나갔다.

전쟁이 끝났다. 그 당원은 전승의 환희와 감격

(37페이지에서 계속)

궁지높은 작가는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을 구현한 당의 문예방침을 창작의 기초로, 창작전과정의 지침으로, 창작총화의 기준으로 삼는 우리 주체문학의 앞날에는 오직 더 큰 승리와 찬란한 개화발전만이 약속되어있다.

우리 작가들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이바지

속에서 적기관가담자의 루명을 쓰고 치욕의 나날을 보내고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증오의 대상이 되었고 자식들로부터도 리해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는 묵묵히 이 모든것을 받아들이었다.

어느날 리당에서 그를 불렀다. 리당위원장과 함께 한 군관이 그를 맞이하였다. 예견한바와 같이 두사람은 전쟁기간의 생활경로에 대해서와 적기관에 가담하게 된 동기며 거기서 한 일에 대해 캐여물었다.

그는 이미 희생된 한 당일군에게서 과업을 받고 적기관에서 활동한 내용에 대해 말하였다.

《그런 사실에 대하여 누가 보증할수 있습니까?》

군관이 이렇게 묻자 그는 얼굴에 자못 심각한 빛을 띠우더니 힘들게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이 보증합니다. 그 사람은 당조직의 책임자였으니까요.

마치 당조직은 모든것을 다 헤아려볼수 있다는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들었다는것을 터놓았다.

그제야 수수한 농촌당원은 눈물을 흘리며 자기는 그것을 믿었다고 말하는것이였다.

《그동안 정신적고통이 컸겠습니까. 왜 훌륭한 일을 하고도 그것을 해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당을 받드는 진심이면 뻔히 뭐 해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은 모를수 있어도 후엔 다 알게 될것인데...》

생활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든지 묻혀있다.

오늘 세상을 격동시키고있는 숨은 영웅들의 위훈의 밑바닥에도 조직에 대한 숭고한 태도가 레외없이 깔려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태도, 당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적극 참가하는 혁명적기풍, 당에 모든것을 의탁하고 당과 운명을 같이하며 당의 혁명적규률에 자각적으로 복종하는 립장, 이런 조직관념이 우리 당안을 지배하고 우리 혁명대오에 차넘치고있기때문에 우리 당은 필승불패이며 그속에 우리모두의 위훈도 영예도 약속되어있는것이다.

하는 주체문학의 건설자, 주체시대의 혁명작가라는 높은 정치적자각과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숭고한 의무를 자각하고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옹호관철함으로써 우리 문학발전에서 획기적전환을 일으켜나가야 할것이다.

## 남녘땅에서 울려오는 흙모의 노래

윤석범

아침의 밝은 해빛과 함께 집집의 문턱을 먼저 찾아드는것은 그날의 신문이다. 행복만이 차례지는 단란한 가정에서 매일아침 받아드는 신문은 그날의 첫기쁨이기도 하다.

오늘아침도 고등중학교 졸업반인 막내딸이 습관처럼 어느새 신문함에서 당보를 꺼내들고 《아버지, 신문 왔어요.》하며 다가온다.

나는 당 제6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으로 맞기 위하여 뚫어번지는 온 나라 곳곳의 새로운 소식들을 기쁜 마음으로 읽어갔다. 전문학교에 다니는 딸이 아침식사를 하자고 재촉한다. 그러나 나는 신문1면에 실린 어느 한 기사내용에서 눈을 떼지 못하였다.

내 청춘시절의 고역과 울분의 강이었던 한강에 깃든 가슴치는 가슴뜨거운 그 내용에서 생각은 절로 깊어졌던것이다.

거리와 창문가에 노래소리, 웃음소리 넘치는 이 행복한 아침에 나는 왜 하나의 짙막한 기사를 보고도 이처럼 깊은 생각에 잠기며 지난날과 오늘의 고향을 뜨거운 마음으로 더듬어보게 되는것인가.

신문에는 가난서린 한강가에서 어느 한 청년이 조국의 자주통일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을 동료들에게 해설해주면서 끝없는 흙모의 정을 담아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격조높이 불렀다는 사실이 실려있었다.

기사를 읽어가느라니 후두워오는 마음속에 30년전 일이 떠오른다.

언제나 내 가슴깊이 남몰래 간직하던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친한 동무들과 같이 부르며 걸어가던 해저무는 그 한강가의 모래불,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을 우러러 흙모하며 총칼이 살판치는 엄엄한 그 속에서도 이 노래를 뜨겁게 불렀던 동무들의 그날의 그 모습!

오늘은 바로 그날의 그 친구들이 어느새 반백의 흰머리를 강바람에 날리며 거기서 노래불렀을지 누가 알랴. 아니 세월은 흘러 그 친구의 자녀들이 거기서 그날의 아버지처럼 노래를 부르고있지 않을것인가.

그날의 그 친구들은 지금 거기서 어떻게 살고있으며 무엇을 하고있는지!

나의 눈앞에는 신념에 찬 가슴을 짝 펴고 노래를 부르던 그날의 그 영동조집 쇠돌이의 당당한 모습이 떠오른다. 바싹 마른 등살까지 벗기워 앙상하게 뼈만 남았어도 그 어깨를 기세차게 돋우세우던 띠꺼머리총각의 모습도 선히 어른다. 나의 귀전에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그가 부

르던 노래소리가 쟁쟁히 들려오는듯싶다.

그처럼 가까이 지내던 그들과 헤어져서 벌써 30여년! 그때 해저무는 한강가에서 서로 심장을 터놓고 함께 노래부르던 그 친구들이 지금은 벌써 귀밑머리가 희어졌으련만 아직도 짓밟히고 억눌리우고있을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듯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온 민족의 한결같은 숙망입니다. 조선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하며 절대로 〈두개 조선〉으로 갈려져서는 안됩니다.》**

한 혈육이 갈라져 30여년세월 서로의 안부조차 전하길 없는 안타까운 마음, 어찌하여 이 길이 막히었느냐, 언제이면 이 소원이 풀릴것이나.

그러나 조국통일의 념원으로 불타는 그들의 가슴에 언제나 뜨겁게 간직한 그 노래는 오늘도 이처럼 힘차게 울려오고있는것이 아닌가!

노래 한구절 한구절에 가슴뜨거운 선물을 담아, 그 한발자국 한발자국에 불같은 호소를 담아 싸우고있을 그들의 의롭고 슬기로운 모습들속에서 지난날의 쇠돌이와 띠꺼머리총각의 얼굴을 눈앞에 선히 그려보니 그 장엄한 선물이 삼각산 넘어, 원한의 분계선장벽을 넘어 더욱 나의 귀전을 친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이 노래를 함께 부르며 어두운 한강다리를 밤늦게 거닐었으며 삼엄한 종로네거리와 청계천골목길을 누벼다녔던가.

부르면 부를수록 마음 한없이 뽀뽀해지고 슬기로와지고 다시 승엄해지는 《김일성장군의 노래》이기에 단두대위에 올라선 최후의 순간에도 서울의 어느 한 철공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소리높이 불려서 원수들을 떨게 하였고, 《반공》을 선창하라고 강요한 끝에 쥐여준 원수들의 마이크앞에 선 남녘의 어느 한 농민은 그 노래를 절절하게 불러 만사람의 가슴을 흔들어놓았던것이다.

그것은 남녘겨레들의 충성의 마음, 막을수 없는 신념의 송가였다.

남녘의 겨레들은 지금 이 노래를 부르며 그 어떤 두려움도 모르고 이 노래를 심장에 간직하며 조국통일의 신념을 더욱 굳게 다지고있으리라.

오늘의 한강기슭 조그마한 빈민촌의 그 청년도 지난 조국해방전쟁때에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주신 땅을 받고 눈물을 흘리던 자기 선친을 생각하면서 그때에 배운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것이다.

그 노래를 부르면 《김일성장군님의 인자하신

모습이 환히 안겨오면서 답답하던 가슴도 열리고 이제 우리 세상이 반드시 온다는 믿음도 커지고 살아갈 힘도 생긴다.》고 하는 그 농민의 마음, 그 마음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하늘같은 은혜에 꼭 보답하리라는 신념이 아닌가! 그 노래를 부를 때 사람들의 가슴속에는 끝없는 희망과 신심이 생기고 강물처럼 심장속에 고동쳐흐르는 애국과 통일 의 불길이 솟는것이다.

그리고 아무런 근심걱정을 모르며 일하고 배우는 공화국북반부의 로동자, 농민,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한 행복한 생활을 남녘에도 어서 꽃피우고싶어 사뭇 가슴을 불태우고있는것이다.

그 신념을 안고 그들은 《**김일성**장군의 노래》

높이 부르며 어버이수령님을 한없이 흠모하고있는것이다.

그렇다, 이 심장의 노래가 어찌 그 몇몇사람들에게서만 불리워지는 노래이라, 학교와 병원에서도 바다의 배길우에서도 남녘의 그 어디를 가나 부르고 또 부르는 이 노래는 충성의 메아리로 울려퍼지며 만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한다.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동지를 통일의 광장에 높이 모시고 한강가에서 함께 노래하던 그 동무들도 남녘의 그 로동자, 농민과 지식인들도 온 세계인민들이 다 우러러부르는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우리와 함께 더욱 목청껏 부르고 부를 날은 머지않아 올것이다.

## 위대한 수령님께 경의를...

마하 아불 하싼

하늘높이 날으는 파랑새야  
저 멀리서 빛나는 별이여  
행복에 겨워 노래하는 못새들이  
위대한 수령님께 나의 인사를 전하여다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인민들의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 존경의 마음  
전하여다오

여러 세기를 거쳐  
세계는 허다한 영웅을 낳았고  
기나긴 세월과 더불어  
많은 영웅, 수많은 지도자들  
그 이름을 떨쳤어라  
하나 그 어느 세기, 어느때  
그 어느 나라가  
이처럼 이름떨치신 지도자  
이처럼 출중하신 장군님  
이러한 민족적영웅을 알고있단말인가!

세계는 아직 알지 못하고있어라  
세계혁명의 탁월한 수령님이시며  
해방의 구성이시며 선구자이신  
원수님과 같은 지도자들

위대한 수령님이시여  
조선인민은 당신만을 따르웁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  
아니, 전세계인민들은 당신만을 따르웁니다.

절세의 애국자,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여  
당신께서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개척자

조선민족의태양, 전인류의 태양이십니다  
당신께서는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치 높이 드신  
분  
자유의 서광 안아오신분  
혁명의 지도사상-**김일성**주의창시자이십니다  
당신께서는 제국주의를 때려부시고  
학명의 보루를 마련하신분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주권문제를 해결하시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신분  
사람들의 념원의 상징인 인민의 락원-  
사회주의성새를 일떠세우신분이십니다

온 세상 인민들  
아침저녁으로 당신의 존함 외우고  
수령님 우러러 노래부릅니다  
온 세계 인민들  
주체사상의 선봉자된  
그 영광을 안고 수령님을 흠모합니다.  
어버이수령님이시여  
세계인민들은 당신을 높이 모십니다  
세계적수령이신 당신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를 담아  
가장 경건한 인사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가장 간절한 소원  
혁명적념원을 담아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조국통일을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필자는 레바논 《**김일성**주의연구위원회》 녀성소조  
성원임)

## 축배 외 1 편

김경기

밖에선 명절의 함박눈이 내리고  
연회장은 흥성이는데  
아버이수령님께서 걸어가신다  
받쳐든 영광의 잔들에  
친히 자신의 잔을 일일이 대이시며  
정부일군들과 투사들 앞을 지나시여  
박사, 지배인, 장령들 앞을 지나시여

지금  
누구의 생각도 가닿지 못한  
보통로동자 용해공앞에서  
축배잔을 드시고 마주 서신다

몸둘바를 몰라하는 용해공에게  
들라고 어서 들라고  
용해공이 건강해야 나라가 튼튼하다고  
수령님 친히 축배잔을 기울여주시는데  
용해공은 들지 못하누나  
자꾸만 목이 메여와서...

온 연회장은 숨얼해지고  
용해공은 잔을 든채 어찌할바 모르는데  
뜨겁게 울리시는 수령님의 말씀

-용해공답게 들어야지  
강철 만톤이 모자라  
나라가 허리를 펴지 못하던 때에도  
동무는 당을 위해  
대담하게 쇠물남비를 기울이지 않았소!  
그래서 나라도 허리를 펴고...  
그런데 나는 동무와  
오늘 처음으로 축배를 드는구만-

사나이의 불을 타고  
쇠물같이 진한 눈물 흘러내린다  
사시절 불앞에서 일을 한다고  
시원히 몸을 식히며 일을 하라고  
베풀어주신 아버지 그 사랑,  
용해공들이 제일 힘든 일을 한다고  
누구보다 먼저

산업텔레비죤앞에 앉혀주신  
그 사랑, 그 은덕에 목이 메여서...

마시지 못했다  
시련의 나날에 영광의 해들에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신  
그 모든 사연이 잔속에 어려와  
용해공은 두손으로 잔을 받들었다  
그 하나의 잔속에  
어제도 래일도 끝없이 안겨지는  
크나큰 사랑의 바다가 다 비껴있어

감격의 나날은 수없이 보냈어도  
바쳐온 충성의 나날은 따르지 못했고  
베풀어주신 사랑은 대양에도 비길수 없건만  
부어낸 쇠물은 바다를 못이르고...

아, 그 사랑에  
붉은 쇠물을 철철 넘치도록 기울이라고  
조국은 용해공의 큰 손에  
묵직한 대형남비를 맡기지 않았는가

크나큰 감격에 어깨를 들먹이며  
이 순간 용해공은 잔을 들수 없어도  
아버이수령님을 위해  
로동계급이 한생 기쁨속에 들어올릴것은  
용해장의 대형쇠물남비이거니

숫구치는 걱정을 삼키며  
용해공의 가슴은 로처럼 끓어번진다  
-수령님이시여  
더많이 들어올리겠습니다, 쇠물남비를  
오늘에 받아안은 크나큰 사랑에  
충성의 한마음 쇠물의 바다를 담아

튀겨오르는 쇠물꽃을  
축원의 꽃보라로 뿌리며  
더 자주 기울이겠습니다, 쇠물남비를  
온 나라가 젊어지게  
내 조국이 튼튼해지게!



## 녀병사가 가꾼 꽃

꽃이에요  
눈내린 산기슭  
사격장에도  
녀병사의 가슴에 핀 명사수의 꽃이에요

꽃이에요  
아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려  
더없이 예쁜 처녀의 랑볼처럼  
아름답고 고운 꽃, 명사수의 꽃이에요

병사는 사격을 잘해야 제일이라고  
엄지손가락을 펴보이시던 수령님께  
얼마나 피워드리고싶던 꽃인가요  
수백개의 꽃다발을 받는것보다  
명사수의 꽃을 더 바란다시던  
자애로운 아버지수령님 앞에!

추운 겨울 눈꽃이 떨어질 때도  
비바람에 산꽃잎이 흩날릴 때도  
수령님께 기쁨을 꽃피워드릴 한생각에

남모르게 지내어온 나날  
근무에서 돌아온 휴식의 한순간도  
흘려내린 달빛아래 조성조문을 맞추며  
처녀는 겨눔눈우에 다 붙어있었어요  
날아가는 못새들도 하늘의 별들도  
굴러내리는 솔방울들도...

꽃이에요, 꽃이라도  
그날의 수령님 말씀을 새겨  
조국의 방선을 철벽으로 지키리라  
굳게 다진 녀전사의 맹세  
군복입은 처녀들의 가슴에 꽃으로 피어  
아름다운 꽃다발로 엮어졌어요

녀전사는 송이송이 꽃다발속의  
한떨기 꽃으로 향기풍기며  
아버이수령님 몸가까이  
우리러 설레이며 피어있어요

## 노래하라 원화벌이여!

박원식

들을 파도쳐 하늘가에 설레이고  
새들은 구름 넘어 기쁨안고 날으는가  
금나락 물결우에 떠실린 기계소리 웃음소리-  
저 멀리 이랑따라 눈길을 드니  
환희에 찬 내 마음도 벌우에 날은다

벌이여, 원화벌이여!  
내 가슴 얼마나 넓으면  
빛나는 그 자욱 안아볼수 있느냐  
벌가득 해살같은 미소를 보내시며  
우리 수령님 그날에 심어주신 황금의 나락을  
다 안을수 있느냐

어디서나 환하신 그이의 영상  
들관 가득 어러오고  
끝없는 금나락 설레임소리에도  
다정하신 그이의 음성 뜨겁게 울려와  
기쁨에 겨워 불을 적시는 이 마음

동지달도 깊어가던 차디찬 그 밤

여기 키낮은 초가집 명석우에  
이고장 농민들과 허물없이 마주앉으시여  
나도 여기 농장원이라고 하신  
아, 아버지 우리 수령님

그 누가 알았으랴  
전화의 날 포연서린 원화벌에 오시여  
손수 씨앗을 묻으시던 그 아침  
하나의 작은 소겨리반의 움직임에서도  
우리 농촌이 바라고 혁명이 바라는  
협동화의 새싹을 찾아보실줄을

그 누가 알았으랴  
불타는 대지우에 뜨거운 가슴가슴들에  
협동화의 씨앗을 심어주시던 그날  
그날에 벌써 수령님의 마음은  
꽃피는 이 나라 농장벌에 서계시였음을

아버이수령님께서  
여기 농장원명단 첫자리에

손수 존함을 올려주시고  
움터오른 협동화의 새싹을 안아키우시며  
이 벌에 찍어오신 불멸의 자옥자옥!

아, 우리 농민들이 가고 농촌이 가야 할  
영원한 행복에로의 지름길우에  
원화벌사람들을 선참으로 세워주시고  
은혜로운 농촌테제의 찬연한 빛발아래  
이 강산을 꽃피워주신 사랑이여

진정 그 사랑이 있어  
수천년 메말랐던 이 나라 대지우에

조선의 협동화의 새봄은 피어났어라  
비좁은 개인농의 지경을 무너뜨리며  
저 기쁨의 큰물결은 파도쳐왔어라

설레이라 노래하라 원화벌이여!  
수령님 서계셨던 이 발머리에서  
그날에 뿌려주신 그 씨앗이  
오늘은 온 나라 강산에 넘쳐나는  
끝없는 행복으로 영글었구나  
황금의 파도가 되어 하늘가에 나래쳐올랐구나!

## 어머니의 당부

첫 군복을 입고  
팔에는 큰 거울앞에서 웃는데  
몽클 가슴이 메여온다  
내가 첫 군복을 입고  
폭격속에서 주은 쪽거울에 비쳐보던  
30년전 그날이 문득 떠올라

나이기도 그때의 내 나이  
머리도 그때의 그 단발머리  
네앞의 원쑤도 그때의 그 원쑤  
네가 서야 할 초소도 바로 그 초소

나는 너를 낳아 사랑만을 준 어머니  
전쟁의 불비속을 헤쳐온 로병  
내 너에게 하고싶은 말  
가슴속에 차넘친다만  
군복 입은 너에겐  
많은 말이 소용없음을 나는 안다

군복을 입고 대오에 서면  
전사가 지켜야 할 군사규률도  
전사가 해야 할 일도  
몸에 쉬이 익히거니

첫 행군의 발바닥 물집은  
너의 분대장이 돌봐주리  
전우가 부모보다 소중한  
생활이 가르쳐주리  
어머니의 잔걱정이  
전사에게 무슨 도움이 되랴

너는 전사, 순간도 잊지 말아라  
이 군복을 왜 입었는가를  
이 군복밑에서 뛰는 심장은  
누구를 위한 심장인가를!

나의 청춘시절이 흘러갔고  
너의 청춘시절이 뿔뿔이 흘러가야 할  
그 바람세찬 초소에  
너를 떠나보내는 이 시각  
깊어가는 생각 끝이 없구나

이 땅에 첫 울음 울던 그때부터  
강보에 싸이듯 사랑에 싸여 자라란 너  
집 떠나  
아버이수령님 앞에 조국앞에  
첫걸음 떼거니

오늘에 사직한 너의 첫걸음이  
우리들의 행복의 요람  
아버이사랑의 품을 지키러 가는  
너는 **김일성**원수님의 영예로운 녀전사!

그 어느 순간에도 잊지 말아라  
하루의 군무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도  
천리행군길에 목에서 불이 일 때도  
눈보라치는 설령에서 홀로 한밤을 지새울 때도  
총 쥐고 네가 선 그 초소  
총 쥐고 네가 달려가는 그 길이  
수령님을 보위하는 제 1 선이라는것을  
수령님을 보위하는 전사로 네가 서있다는것을!

리계심

## 구름령

조재홍

1

송세우는 무엇인가 부드러운것이 얼굴을 간지럽히는바람에 잠을 깼다. 그는 낮을 쯤그리며 슬며시 눈을 떴다. 세살잡이 손자 복남이가 헛고사리처럼 포동포동한 손으로 턱이며 볼을 매만지며 카득카득 웃고있었다. 세우의 너부죽한 얼굴에는 빙그레 미소가 떠올랐다.

《오! 우리 장손.》

세우는 복남이를 끄당겨 품에 꼭 껴안았다. 그 리고는 방안을 둘러보았다.

창문은 흰하게 밝았다. 반쯤 열린 가운데문으로 밥끓는 냄새가 구수하게 풍겨들어왔다. 안해 오순덕은 어디로 갔는지 기척이 없었다. 이때 밖에서 《푸르릉!》하고 자동차발동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왔다. 세우의 입가에는 빙글썩 웃음이 피어났다. 보나마나 안해가 자동차를 청소하고 정비할것이었다. 엿저녁 세우는 련결차를 개조하느라고 공무직장에 가 일하다가 너무 늦는 바람에 자동차를 그냥 물고와 마당에 세워두었었다. 광산운수부에서 일하는 안해는 놀 이렇게 남편의 일을 돕곤 했다. 자동차기술도 이젠 남편못지 않았다.

세우가 제대되어 광산에 온지 스무해가 넘는 오늘까지 혁신자로 광산은 물론 온 도가 들썩하게 소문이 나게 된데는 안해의 이런 믿음직한 뒷받침이 큰 자리를 차지했다.

대학을 졸업한 만아들 길수가 탐측기사로 배치되어오고 며느리를 맞아들여서 식구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 최근에는 안해의 이런 손길이 더욱 다심해진것 같았다. 오늘아침도 여느때처럼 천천히 나가 운전대를 척 잡으면 될것이었다.

즐거운 생각에 잠긴 세우는 복남이의 코를 꼭 쥐여놓았다. 그러자 복남이는 뜻밖에도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리었다. 세우는 당황해났다. 별뻥 일어난 그는 복남이의 손을 흔들어보고 혀소리도 내면서 얼리느라고 부산을 피웠다.

《아니, 우리 복동이가 왜 우노?》

순덕이가 문을 펄쩍 열고 나는듯이 달려들어왔다. 그의 키는 보통이나 균형이 잘 잡혀서 기운차 보였고 동그스름한 얼굴에서는 두눈이 시원스럽게 빛났다. 어쩔바를 모르던 세우는 복남이를 그의앞에 밀어놓았다. 영문을 알아차린 순덕은 어치구니 없어 혀를 차며 나무랐다.

《아니, 그 집계같은 손으로 자동차 다루듯해서야 어디 아이가 견뎌내겠수.》

광산병원 소아과 준의로 일하는 며느리가 의학대학통신등교를 간후 자주 있게 되는 《다툼질》이었다.

순덕은 손이 어지러워서 손등으로 복남이를 안아들고 오동통한 볼에 입을 짝 맞추었다. 어떻게 해놓았는지 복남이는 비개인 하늘처럼 금시 기분이 명랑해져서 해해거리며 돌아갔다. 세우는 어이가 없어서 혼자 웃다가 작업복을 벗는 안해에게 던지시 물었다.

《어떻소, 련결차를 그렇게 개조하면 산골길에서 도 될수 있겠지?》

《모르겠어요. 괜히 먼저 시작한것 같아요.》

《무슨 소릴, 직장에선 좌상대접을 하는데 좌상구실을 해야지 막내가짓을 해야 되겠소.》

《이젠 늙었다는 생각도 좀 해야지 않아요.》

《나이를 먹는다구 마음까지 늙을가. 거 요즘 점점 별나진다?》

세우는 모를 일이라는듯 머리를 기웃거리다가 세수수건을 벗겨들고 부엌으로 내려갔다.

《예구, 속상해. 아무일이나 덤벙덤벙 뛰어들면 젊은이들이 욱해요.》

순덕은 새파란 비닐소레에 물을 가득 떠다놓고 장판울 닦으며 지청구를 했다.

세수를 하고 올라온 세우는 듣는체마는체 거울앞에 마주서서 머리를 빗었다. 어쩐지 몸이 무겁고 지긋지긋했다. 한잠 자고나면 기운이 부쩍 솟던 때는 정말 지나간 모양이었다. 그럴사하게 봐서 그런지 흰머리도 더 많아진것 같았다. 과연 나이란 속일수 없는것이였다.

《복남아, 마사프릴라. ... 여보 이젠 저걸 좀 치우라우요. 며느리보기가 부끄럽지도 않은지. 끝 끝...》

책상밀을 닦던 순덕은 손에 물이 묻어서 자기는 어찌지 못하고 턱으로 의자우에 올라앉아 노는 복남이를 가리켰다. 복남이는 손바닥만한 앓은 뱅이사진틀을 쥐고있었다. 그안에는 풀과 나무가지로 잔뜩 위장을 한 운수차결에 적십자표식이 또렷한 위생가방을 맨 단발머리 중사와 상등병견장을 단 세우가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이 들어있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한 종군기자가 전선신문에 내면서 찍어준것이였다. 어떻게 된 일인지 복남이는 술한 놀이감들을 다 내던지고 책상우에 기여올라가 이 사진틀을 내리워가지고 놀군했다. 며칠전엔 탁아소에까지 몰래 가지고가서 소문을 놓았다.

《그게 자랑스러운게지 응? 복남아!》

빙긋이 웃으며 복남에게서 사진들을 열러낸 세우는 어깨에 걸친 세수수건끝으로 유리를 잘 닦아서 다시 책상우에 있는 책장턱에 올려놓았다.

《은, 참 기막혀서...》

순덕은 걸레를 소래에 담아두고 헹하니 부엌으로 내려갔다. 이윽고 그는 치마자락에 젖은 손을 문대며 올라와 벽시계를 보았다. 그 순간 벽시계가 《땡!》 일곱시를 치고 밖에서는 창문을 드르렁 울리며 고동이 울렸다. 순덕의 얼굴은 일시에 이그러졌다.

《에그, 복남 애빈 또 안들어오는군. 에미 속타는 줄을 알기나 하는지...》

아들 길수는 벌써 닷새째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광물생산을 늘일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받들고 구름령너머 사슴골에 있는 광석밭개밭에 달라붙었다. 그는 아직 합속도 제대로 없는 현지에 내내 가서 살다싶이했다. 어제 오후 사무실에 피곳 나타난것을 보니 얼굴이 혈끔하게 되었다. 순덕은 가슴이 아팠다. 무얼 좀 해가지고 가서 생활을 돌봐주고싶었다. 그는 이젠 자기가 자식들과 령감의 뒤바라지를 해야 할 《할머니》라는것을 새삼스럽게 느끼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 숨찬줄을 모르고 해온 직장일이 바위가 막아선것처럼 아릅차보였다. 그는 부업반 같은데 념을 궁리를 했다. 그런데 성미가 피뻘한 령감이 어쩔지 문제였다. 지금도 자기와는 달리 《일하는 사람이 그렇지 별걱정을 다...》 하고 특내쪼더니 그냥 앉아 신문만 본다. 순덕은 오늘아침엔 속으로 벌려오던 말을 하리라 마음먹었다.

《한가지 의논할게 있는데...》

순덕은 남편앞에 살며시 앉으며 말꼬리를 끌었다.

《어허, 우리 마누라가 저렇게 얹전할 때두 있군.》

세우는 신문을 내려놓고 안해의 정색해진 얼굴을 들여다보며 모를 일이라는듯 머리를 기웃거리었다.

《저- 부업반에 념을가 해서... 집일두 많아지구 힘두 부치구...》

순덕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듯 더듬거리었다.

《말하자면 후방으로 가겠다는 말이지.》

세우의 표정은 일시에 굳어졌다. 그는 잠시 안해의 숙일사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전선길에서 처음 만난 그때부터 궂은일 마른일 가림없이 일해온 그, 언제나 명랑하고 생기가 있던 안해였다. 녀자들이 먼저 늙는다더니 과연 그런 모양이었다. 아직 판 생각을 해본적은 없지만 자기도 저렇게 마음마저 늙겠구나 하는 서글픈 생각이 문득 들었다. 마음이 허전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사

람의 생활이란 과연 이렇게 되는것인가싶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기는 너무나 힘이 들었다.

《실없는 소릴 말구 아침이나 차리라구. 출근이 늦겠소.》

세우는 갑자기 울적해진 기분을 털어버리려듯 움쭉 일어나 상을 가져다놓았다. 순덕은 무엇인가 더 말을 할듯 잠시 머뭇거리다 말고 부엌으로 내려갔다.

2

조회가 끝나자 널찍한 운수직장 마당에 나란히 서있던 3 톤급화물자동차들이 꼬리를 물고 광석실으러 사슴골로 떠나갔다. 돌아 20 키로메터나 되는 구름령 령길은 너무도 험하고 가파로와서 대형자동차들은 발을 붙일수 없었다. 그바람에 차재부와 후방부의 짐을 싣던 자동차들의 시세가 갑자기 올라갔다. 사기가 부쩍 오른 젊은 운전사들은 광산에서 제일이노라고 으시대던 대형자동차운전자들앞을 지나가면서 보란듯이 모자를 슬쩍 들었다놓곤했다.

세우는 뽕양게 달려가는 자동차들의 뒤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오늘아침따라 더욱 속이 좋지 못했다. 그는 련결차에 등을 기대면서 부시력부시력 담배를 꺼내물었다.

광산에서는 사슴골을 개발하면서 선광장까지 삭도를 놓고 광석을 날라올 계획을 했다. 삭도가 완성될 때까지는 구름령에 발을 붙일수 있는 자동차들을 총동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일부 속깊은 사람들은 련결차를 달아보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제한된 자동차대수로 날마다 늘어날 광석수송을 보장할수 없었던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침묵으로 대답했다. 구름령처럼 가파롭고 험한 길에서 련결차까지 달고 무거운 광석을 날라본 사람은 아직 없었던것이다. 할수없이 그대로 수송전투가 시작되었다. 세우도 이 수송전투에 참가하기로 되어있었으나 발동기중수리를 하느라고 한번도 사슴골 광석을 실어보지 못하였다. 운전사들은 거의 밤잠도 잇고 뛰었으나 사슴골광석더미는 날마다 높아만갔다. 자동차를 더 받아오든가 아니면 대형자동차들도 다닐수 있게 길따는 공사를 벌리자는 의견들이 여기저기에서 튀어나왔다. 누구보다도 바빠난 아들 길수도 그랬으면 하는 눈치였다.

《너두 당원인데 어려워두 제힘으로 할 생각을 해야지. 국가부터 쳐다봐서야 되겠니. 광산두 그렇지. 기본생산에,삭도공사에, 사슴골개발에... 고양이손도 바랄 형편인데 길따이를 또 어떻게 벌린단말이나.》

세우는 준절히 타일렀다. 다음 순간 그는 이것이 바로 자기자신에게 해야 할 말이라는것을 깨

달았다. 광석수송이야 생산자들이 아니라 운전사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게 아닌가. 련결차만 달면 문제가 해결될것이었다. 세우는 바로 자기가 지금까지 우유부단하게 행동하였기때문에 일이 복잡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자동차수리가 끝나자 지체없이 련결차를 개조하여 달고나섰는데 누구보다 먼저 기뻐해야 할 안해의 지지를 받지 못했을뿐아니라 직장에서는 후방물자나 실이라는 지령을 받았다.

어느덧 자동차들은 다 떠나가고 직장마당은 헛헛그렁해졌다. 세우는 한숨을 푹 내쉬고 적재함에서 등을 떼면서 이미 불이 죽은 담배꽂초를 뚝 내던졌다.

《그래 제대로 뭘것 같은가?》

세포비서 운범이가 너부죽한 얼굴에 우선우선한 웃음을 담고 자동차앞으로 돌아오며 물었다.

《오, 자넨가. 되겠지.》

세우는 반색을 하며 투박한 손을 썩썩 마주 비볐다.

《그래... 맘이 놓이는군. 한대 주게나. 인차 떠나려나?》

《여부가 있다. 후방부 마사원신세가 뻘었니까.》

《그것도 좋지. 전선에서야 그 아바이들이 얼마나 위신이 있었나 응?》

그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시수송을 보장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제대되어 이 광산에 와 자리잡은 가까운 사이였다.

《그럼 오늘은 내가 협조원이 돼볼가.》

운범이가 한눈을 찡긋해보이고는 어깨너머로 담배연기를 푹푹 날리며 운전칸으로 올라갔다. 세우는 그가 조용히 할 말이 있어서 그런다는것을 대뜸 알아차리었다. 그가 운전칸안으로 따라 올라가 문을 닫자 윤기흐르는 운전대며 유리웃기슭들에 댄 노란 뜨개장식을 찬찬히 바라보던 운범이가 정색을 하고 느닷없이 물었다.

《자네가 무슨 창고장자리같은데 돌 생각을 하고 있다는게 사실인가?》

《뭐? 누가 그따위 소릴 하던가!》

세우는 갑자기 눈이 둥그래져서 운범이의 손등을 탁 덮쳐주었다. 그의 불이 일듯 성이 난 눈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운범은 가볍게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럼 그렇겠지. 한대 그런 말이 돌아가거든.》

운범은 싱그레 웃으며 맛나게 담배를 피웠다. 그렇게 기뻐하는 운범이의 모습을 대하는 순간 세우의 가슴에는 문득 짙이는것이 있었다. 안해가 아침에 하던 말이 그와 련관이 있는게 분명했다. 세우는 운전대를 거머쥐었다.

(나살이나 먹더니 점점... 그제 지금 자식들을 생각해주는젠줄 아나부지.)

세우의 가슴속에는 노여움이 장대처럼 곳곳이

살아났다. 그러나 그는 그것 역시 자신에 대한 불만이라는것을 이내 깨달았다. 자기는 그래도 당 생활을 먼저 시작한 사람인데 제때에 일깨워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동요하는듯한 태도를 취하였던 것이다.

《비서동무, 생각해보니 그건 내 불찰이요. 점점 망령이드나보요.》

세우는 입술을 감쌀면서 아침에 있던 일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리고는 가슴이 저려서 덩덩히 창밖을 내다보았다.

운범이도 생각이 많은듯 담배만 빨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자네 말을 들으니 나도 생각되는바가 많네. 언젠가 우리는 자식들에게 열정을 물려주자고 약속을 했었지. 한때 뿔다가 마는 열정이 아니라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날을 따라 더욱 뜨겁게 타번지는 당원의 열정을 말일세. 그제 간단치 않구만. 바로 우리자신이 그런 모범을 보여줘야 하니까...

생명을 걸고 전시수송을 보장한 우리가 이제 와서 흔들리면 그 애들(채광기사인 그외 아들도 길수와 함께 사슴골에 가있었다.)은 더 일찍 주저앉아 할걸세. 그렇지 않나?》

운범은 세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웁은 말이야. 내 그것까진 미처 생각을 못했네. 새세대에 대한 책임성문제기도 하지.》

세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가볍게 머리를 끄덕이였다.

《우리 한번 저녀석들에게 <따라오너라!> 하고 소리쳐봅세. 아주머니한테두 울퉁하지 말구. 잘 얘기해주라구.》

《알겠네!!》

《그건 그렇구. 련결차로 정말 저놈의 령을 타고 앓을수 없을가?》

운범이가 턱으로 구름령을 가리키며 진지하게 물었다.

《자네두 그 생각이었나?》

세우는 기분이 확 밝아져서 운범이곁에 다가왔다.

《결심없이 수송전투를 하니말일세.》

《음... 광산에선 어떻게 하겠는지.》

《우리 운전사들이 하겠다고 나서면 다지. 광산당비서동지두 그러두만. 참, 자네가 련결차를 단 소리를 했더니 그렇게라고 하면서 여간 반가와하지 않습데.》

《그래...》

세우는 가슴이 몽클해졌다. 자기의 심정을 알아주는것이 진정 고마웠다. 한편 당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하고있다고 생각하니 기운이 났다. 세우는 광산당비서와 운범의 말을 통하여 당위원회에서는 벌써 구름령수송문제를 련결차로 해결하자고 결심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그러나 무력

대고 내리먹일수는 없었다. 운전사들이 신심을 가지고 나서도록 누구든 할수 있다는것을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하는 아름다운 일이었다.

세우는 그것을 자기가 맡아해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세포비서동무, 내가 그걸 하면 안될가?》

세우는 정색을 하고 물었다.

《뭘말인가?》

운범은 담배를 입에 물다 말고 세우를 마주보았다.

《누구든 련결차루 저 령을 먼저 눌러야 할게 아닌가.》

《참, 자넨 벌써 거기까지 생각했구만! 하지만 나한테 물어볼게야 있나. 하면 되는거지.》

《아니지. 이런 중요한 일은 정식 분공으로 되어야 책임성도 높아지구 더 분발하게 된단말일세. 어김도 있을수 없구... 그럼 당조직의 분공으로 생각하겠네.》

《알겠네! 당원들에게두 그렇게 말하지.》

《고맙네!》

세우의 표정은 전투명령을 받은 병사처럼 근엄해졌다. 운범은 신뢰에 찬 시선으로 세우를 바라보며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였다. 잠시후 결심한듯 기름내풍기는 손으로 그의 팔을 꼭 잡았다놓았다.

《자 그럼, 〈마사원아바이〉, 잘 갔다오라구.》

운범은 자동차문을 열고 젊은이들처럼 땅에 꺾충 뛰어내려서는 어깨너머로 담배연기를 푹푹 날리며 휴계실쪽으로 걸어갔다.

마음이 홀가분해진 세우는 그의 뒤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발동을 걸었다. 자동차는 활짝 열여젓힌 정문밖으로 기세좋게 달려나갔다.

### 3

(예구. 속상해. 웬일일가.)

아무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서 서성거리던 순덕은 부엌문을 열고 달빛이 허연 밖을 내다보다 말고 어깨들 떨구며 중얼거리었다. 방 안에서 벽시계가 종을 친다. 순덕은 사이문으로 기웃이 들여다보았다. 겨우 열한시다. 순덕은 한숨을 호- 내쉬고는 방안으로 들어가 남편이 써놓고간 쪽지편지를 다시 보았다. 분명 자기는 늦게 올지 모르니 먼저 저녁을 먹고 자라는 내용이었다. 순덕은 한숨을 호- 내쉬었다.

잘못이 있으면 차라리 욕이라도 할 노릇이지 이렇게 밀도끝도 없이 써놓고 훌쩍 가버리니 더구나 가슴이 죄여져서 마음을 놓을수 없는 순덕이었다.

순덕이가 오도카니 서서 검푸른 빛이 도는 창

문을 하염없이 바라보는데 복남이가 아래도리에 매달려있다.

복남은 앓은팽이사진틀(어느새 내리였는지)을 할머니의 눈앞에 내대고 토실토실한 손가락으로 짚으며 《할아버지, 요건 할머니》 하고 해해거리었다. 순덕은 저도모르게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어제저녁 늦게 들어온 남편이 자기를 불러앉히고 조용히 꾸짖던 말이 다시금 가슴을 쳤다.

《...그건 전시루 말하면 화선에서 도망치는거나 같은거야. 그러구두 부모구실을 한다고 말할수 있는가. 지난날 머슴군의 운명을 타고났던 우리가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으루 이렇게 잘살게 되었으면 단단히 채심을 해야지. 나이를 먹었다구 한때 뭇 좀 한걸 코에 내걸고 들어앉아서 박수나 쳐가지고서야 되겠소...》

가슴저린 말이였다. 그러나 억울한 점도 없지 않았다. 젊어서 부부간이 맞들고 일할 때와 지금은 사정이 달랐다. 아들과 며느리가 일을 하고 손자가 자라고 이제 《좌상》소리를 듣는 남편이 있고... 아무리 둘러봐야 가정의 《후방부》에 들어 앓을것은 자기밖에 없었다. 그들모두가 일을 잘하게 하는것이 자기의 의무이며 그들을 진정으로 위하는것이라고 순덕은 생각했었다. 순덕은 무엇인가 말을 하고싶었으나 그러기에는 남편의 표정이 너무나도 심각했다. 그는 그만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고말았다.

세우는 탄식비슷한 한숨을 내쉬고는 자기가 당조직에서

련결차로 구름령을 《점령》할 분공을 받았다면 서 움쭉 일어섰다.

그때 나간 사람이 아침에도 점심에도 들어오지 않았다. 알아보니 큰 령이 두개씩이나 있는 도소재지로 자체부짐을 실으려 자진하여갔다는것이였다. 무슨 일이나 한다 하면 몸을 돌보는 법이 없는 사람이였다. 근심과 불안이 가슴을 태우며 땀뭍이쳤다. 내내 전화통결에 붙어있던 순덕은 어슬턱에 남편이 돌아왔다는것을 알고 집으로 달려왔다. 그러나 마당에는 자동차가 련결차를 단채 서있고 집안에서 쪽지편지가 기다리고있을뿐 남편은 없었다...

순덕은 속이 화끈 달아서 밖으로 나왔다. 푸릿한 달빛이 좁고 긴 광산마을을 어슴푸레 비치였다. 앞산중턱을 가로질러 간 철길을 구르며 열론짜리 광차를 길게 단 전차가 한참이나 지나가더니 막바지에 있는 버럭더미에서 버럭쏟아지는 소리가 돌사태 무너지는것처럼 광산마을을 울리였다. 그 소리에 떠밀리우듯 회가루칠을 곁게 한 율타리안으로 운범이와 남편이 들어왔다.

《아주마이, 령길에서 해매는 수염난 새서방을 잡아왔습메-》

《예구, 아주버닌 만나문 그저...》

순덕은 입가에 어쭙은 미소를 그리며 눈을 흘기었다.

《아하, 이러단 생각해주구 뺨을 맞겠군. 허허... 내대신 이 새서방 불기를 단단히 쳐서 꼭 좀 제우슈. 난 겁네.》

운범은 순덕에게 한눈을 찡긐해보이고는 훌쩍 어둠속으로 사라져버리었다.

《체, 사람두, 한대 피우고나 갈게지.》

세우는 혀를 차며 부엌문앞으로 걸어갔다. 그의 뒤를 따르던 순덕은 깜짝 놀라서 멎어섰다. 남편이 왼쪽 다리를 눈에 뜨이게 절고있었던것이다. 정 피곤할 때면 전쟁때 부상당했던 자리가 저렇게 도져지군한다. 그러고보니 온통 먼지를 들쑤고 바지가랭이는 흙투성이였다.

(아니, 그 험한 령을 왜 걸어넘으며 저렇가.)

순덕은 먼지를 털어주고 세수하는것을 거들면서 가슴을 앓았다. 그는 할 말도 있고 알고싶은것도 많았으나 어떻게든 남편을 빨리 쉬우려고 애써 참으면서 저녁상을 물릴 때까지 말 한마디 시키지 않았다. 그가 자리를 펴려고 하자 세우는 손을 핵 내저었다.

《뒤두우. 령을 넘어보구 와야겠소!》

《네?! 거긴 또 해요...》

순덕은 깜짝 놀라서 오펙 멎어섰다. 그리고는 아래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면서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날이때까지 남편의 결심을 꺾어본적이 없었다. 한번 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해내고 야마는 사람이었다. 지금도 자기 힘으로는 남편을 붙잡아들수 없다는것을 직감적으로 느끼었다. 그래서 그는 운범이를 거들었다.

《그 몸으로 어델 간다고 그래요. 운범아주버니 두 신신당부했는데 ...》

순덕은 남편앞에 마주앉으며 간절하게 말했다.

《그렇수록 일을 더 빈틈없이 할 생각을 해야지.

래일 사람들앞에서 끝냈는데 미흡한 점이 있어서야 되겠소.》

세우는 빙그레 웃으며 안해의 얼굴을 마주보았다.

순덕은 대답을 못했다. 그는 래일 남편이 모든 운전사들 아니, 온 광산이 보는 앞에서 련결차를 달고 구름령을 넘는 광경을 상상해보았다.

어버이수령님의 현직교시를 받들고 당위원회에서 자체의 힘으로 사슴골개밭을 위해 조직하는 일인것만큼 실패라는것은 말조차 있을수 없고 일이 되어도 썩 잘 되어야 하였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는데도 저렇게 한몸을 그대로 내대는것이였다. 뜨거운것이 물큰 솟아올라와 목을 메웠다. 그러나 이 밤중에 남편을 혼자 내놓을수는 없었다. 그는 자기도 같이 가리라고 마음먹었다. 발탁 일어진 순덕은 이것저것 차비를 서둘렀다.

《아니, 당신은 웬일이요?》

세우가 부엌으로 내려가다 말고 의아해서 안해를 돌아다보았다.

《집에서 혼자 속을 태우기보단 차라리...》

순덕은 자기도 결심을 하면 어길수 없다는듯 얼굴에 결연한 빛을 띠었다.

《허허... 너편네들이란 참... 저 앤 어찌겠소.》

세우는 입맛을 다시며 눈으로 단잠에 빠진 복남이를 가리켰다.

《이렇게 안구 가면 되지요뉘.》

순덕은 복남이를 하룻에 꼭 싸안았다. 세우는 무슨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싱긋이 웃었다.

《더 의의깊게 된셈이요. 복남이까지 간다?!》

순덕은 방안을 한번 휘 둘러보고는 불을 끄고 나와서 운전칸에 올라앉았다.

세우는 복남이와 안해를 번갈아보며 빙그레 웃고는 발동을 걸었다. 이쪽은 경사가 완만하고 길도 비교적 좋아서 그들은 별로 힘을 들이지 않고 구름령을 넘어갔다.

자동차적재함과 뒤에 단 련결차에 광석을 무드기 실은 그들은 길가에 나란히 앉아 잠시 땀을 들이였다.

금가루를 쥐어뿌린듯 별이 총총한 하늘복판에는 둥근달이 등실 떴다.

달빛은 버럭과 광석을 허영게, 수림은 꺼멓게 비치였다. 구름령 어디선가 부엉이가 울었다.

《힘들지요?》

순덕은 아무래도 근심스러워서 물었다.

《앞서나가는 일이 쉬울수야 없지. 하지만 그대신 자랑스러운 법이라오. 자식들앞에서두 떳떳하구... 참 달두 좋군! 이런 때면 그때가 생각나군 하거던.》

세우는 감회깊은 눈으로 먼산을 바라보며 천천히 담배를 붙여물었다.

《그때라니요?》

순덕은 영문을 몰라서 검은 눈을 크게 떴다.

《탄약을 싣고 전선으로 달리던 날 밤말이요. 그 밤엔 당신이 왜 그리도 아름답고 역세보이던지...》

세우는 안해를 마주보며 빙그레 웃었다.

《에그 참, 별소릴다...》

순덕은 저도모르게 얼굴이 붉어져서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남편과 같이 달을 쳐다보았다. 그러자 가슴속에 고요히 묻혀 잠자던 그때의 일이 서서히 되살아나는것이였다.

소란스러운 밤이였다. 허공중 여기저기에 걸린 조명탄들이 어둠을 태우면서 하늘과 땅을 하얗게 비치였다. 컴컴한 산너머에서 철새없이 포탄이 넘어와 흩먼지기둥을 일으켜세우며 터졌다. 하늘을 구르며 미제침략군야간비행대들이 기관포탄과

폭탄을 퍼부었다. 폭음, 불구름, 화약내, 흠먼지...숨이 막히고 귀가 멍멍했다. 놈들이 전선과 연결된 이 길목을 짓부셔보려고 발악하는 것이었다.

호송간호원 오순덕은 신작로 옆 대기소에서 안절부절을 못했다. 방금 위생병들이 고지에서 얻어 내려온 부상병 여섯명을 야전병원으로 후송해야 했다. 언제 울지 모르는 위생차를 기다리기엔 그들의 상처가 너무 심했고 더구나 이 영웅전사들을 이 위험한곳에 한순간도 뒤돌수 없었다. 마침 이때 자동차 한대가 불비속을 뚫고나왔다. 순덕이가 막아서자 뜻밖에도 자동차는 순순히 멎어섰다.

혼자서 중상자들을 적재함에 태운다는것은 조련찮은 일이었다. 순덕은 좀 도와줬으면 싶어서 운전칸안을 결눈질해보았다. 운전사는 담배를 손바닥으로 감싸쥐고 뻑뻑 빨며 덤덤히 앞을 내다볼뿐 아는체도 하지 않았다. 한마디 하고싶었지만 운전사들이란 상등병견장을 달고도 처녀중사쯤은 우습게 안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만두었다. 그는 껌 돌아서서 이를 악물고 부상병들을 다 태웠다. 운전칸에 자리가 빈줄을 알고있었지만 기분이 상한데다가 부상병들 곁을 떠날수 없어서 적재함에 올라탔다. 그리고는 운전칸에 대고 엄하게 소리쳤다.

《가자요!》

자동차는 떠났다. 그런데 몹시 들추었다. 간혹 가다가 멈칫거리기도 했다. 순덕은 속이 상했다. 이런 길에서는 운전사가 신심을 가지고 가스답판을 지그시 밟아서 속도를 놓아야 덜 들추는 것이었다.

(헛내기구나!)

순덕은 생각하였다. 문득 그의 눈앞에는 얼마전 시보영화에서 한 용감한 자동차운전사의 모습을 보던 일이 떠올랐다. 너무 감동된 나머지 이름까지 기억해두었었다. 그런 씩씩하고 슬기로운 운전사를 만나지 못한것은 안되었지만 그런대로 참는 수밖에 없었다.

순덕은 야전병원에 부상병들을 인계하고 구급약품들을 보충하자 곧 전선으로 다시 떠났다. 승리의 그날까지는 휴식을 할수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길에는 들어오는 자동차뿐 나가는것이 없었다. 먼동이 터오고있었다.

이때 탄약창고가 있는 골짜기안에서 집을 잔뜩 실은 자동차 한대가 불도 켜지 않고 불쑥 빠져나왔다. 들어올 때 타고온 그 자동차였다.

실망한 순덕은 아래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면서 그대로 서있었다. 그런데 자동차가 저절로 멎어서고 문이 열리었다.

《타시오! 뒤에는 차가 없소.》

아무리 돌려봐야 정말 차가 있을것 같지 않았다

다. 할수없이 운전칸에 올라있던 순덕은 다시 한번 실망했다. 군복저고리를 벗어서 두무릎을 덮고있지 않는가. 이것은 초보적인 군사규정도 모르는(보이지 않는 때일수록 더 잘 지켜야 하는데) 무규률적인 행동이라고밖에 볼수 없었다. 순덕은 보란듯이 자세를 꼳꼳이 하고 앞을 내다보았다.그러다가 그만 깜빡 잠들어버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순덕은 날카로운 회파람소리에 놀라 잠을 깨었다. 계면쩍어져서 운전사의 얼굴을 훑듯 쳐다보던 순덕의 시선은 그대로 굳어졌다. 어스레해진 새벽빛에 드러난 운전사의 하얀 이마에 콩알같은 땀방울들이 맺혀있었다. 순덕은 그제야 운전칸에 가득찬 피비린내를 느끼었다. 불길한 예감이 든 순덕은 황급히 실내 조명등을 켰다. 먼저 눈에 띄운것은 무릎을 덮은 상등병견장달린 군복저고리였다.

운전사의 얼굴을 슬그머니 쳐다보았다. 가슴이 갑자기 활랑거리기 시작했다. 남자답게 선이 굵직한 얼굴, 깊은 사색에 잠긴듯 그윽한 눈매, 좀 앞으로 숙일사하고 운전대를 잡은 자세 시보영화에서 본 그 운전사가 틀림없었다. 두손을 꼭 모아친 순덕은 얼핏 돌아다보았다. 뒤벽에 걸어놓은 방독면 이름표에도 《송세우》라고 뚜렷이 적혀져있었다. 이 이름난 운전사가 이 밤엔 웬일인가?

순덕은 무릎을 덮은 군복저고리를 벗기었다. 순간 그는 《아!》 하고 외마디소리를 질렀다. 두다리에 개인붕대가 꼭 감겼는데 바지가팽이는 온통 피로 얼룩져있었다. 순덕은 무작정 자동차스위치를 켰다. 자동차는 길옆에 스프르 멎어섰다.

순덕은 상처를 풀어헤치었다. 포탄과편이 한 다리를 스치며 다른 다리와 장딴지를 꿰뚫었다.

순덕은 이런 그를 《헛내기》라고 속단했던 자신이 민망스러워서 얼굴을 들수 없었다.

《이 몸으로 떠나다니, 다른 차들도 있는데...》

《그들도 바쁘오!》

세우는 짤막하게 대답했다.

세우는 탄약창고에 닿자 눈을 좀 붙여야겠다고 하면서 짐을 다 실을 때까지 운전칸에서 나가지 않았다. 그러니 동무들도 그가 부상당했다는것을 알수 없었다. 정말 가슴속에 불같은 열정이 끓어번지는 불사신같은 사람이었다. 순덕은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는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를 비로소 깨달은것 같았다.

세우의 상처는 심했으나 순덕은 이런 불같은 전사를 되돌려세울수 없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게다가 벌써 잠을 깬 못새들이 우짖기 시작하였다. 휘뽀뽀 새날이 밝아왔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적기들이 날아들것이었다. 그전에 임무를 수행해야 그를 후송시킬수도 있는것이다.

순덕은 지체없이 구급처치를 했다. 하지만 신음



소리 한마디 없던 세우는 조향륜에 가슴을 대인 채 의식을 잃어버렸다. 피를 너무 흘린 것이었다.

순덕은 더 생각할새없이 자기의 팔에 주사기를 꽂고 피를 뽑아 그에게 수혈을 해주었다.

세우가 정신을 차렸을 때 순덕은 머리가 펑펑 돌아가듯 어지러운 중에도 자기가 세우대신 가스답관을 밟아줄수 있노라고 말했다.

《고맙소...》

세우는 여전히 상한 다리로 답관을 밟고 차를 몰아나갔다.

이때 순덕은 자기가 차를 몰지 못하는 것을 얼마나 안타까워했던가. 또한 이때 순덕은 간호원도 자동차 모는 기술을 익혀야겠다는 결심을 다졌다.

그후 순덕은 세우를 통해 자동차운전기술을 배웠다. 그런 중에 사랑도 싹텄다.

화선에 나와있던 중군기자는 그들을 자동차앞에 나란히 세워놓고 사진을 찍었다. 얼마후 사진은 전선신문에 커다랗게 났다. 그해 가을 순덕은 화선입당을 하였다. 정말 주저도 동요도 모르던 시절이었다. ...

《떠나볼가.》

세우는 담배꽂초를 땅바닥에 비벼꺼버리고는 움쭉 몸을 일으켰다. 그바람에 회상에서 깨어난 순덕은 급히 눈굽을 훑치고는 남편을 따라섰다. 그러다가 중기계들이 와르릉거리는 골안을 바라보며 주저하였다. 세우는 그가 길수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알았다. 입술이 마르고 눈이 커진 아들의 열정에 찬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뒤두우. 새 전선에서 큰결음을 떼고있는데...》

세우는 혼자말처럼 중얼거리며 호주머니에서 수첩과 원주필을 꺼내주었다. 수첩에는 구름령령길의 험한곳들이 수자와 지형지물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것을 만드느라고 밤중에 구름령을 넘나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순덕은 눈굽이 뜨거워졌다.

운전칸안에서는 복남이가 네활개를 펴고 자고 있었다. 순덕은 그를 모두어안았다. 그러자 바지 호주머니에서 무엇인가 바닥에 찰싹 떨어졌다. 세우가 발동을 걸려다 말고 집어들어보니 앓은땀이 사진들이었다. 세우는 빙그레 웃으며 순덕에게 넘겨주었다. 순덕은 사진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다가 앞턱에 올려놓고 두리번거리면서 중얼거리었다.

《원, 자식두, 예까지 가지고 왔구나.》

세우는 공구함에서 가는 구리줄을 얻어가지고 사진들을 떨어지지 않게 단단히 동여매놓았다.

길은 넘어울 때보다 더 가파롭고 험했다. 달구지나 다니던 길은 닳은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바

닥이 울퉁불퉁한데다가 어떤데는 자동차바퀴나 겨우 지나가는 좁은곳이고 또아리같은 굽이를 간신히 돌아서면 내려다보지만 해도 가슴이 섬쩍한 절벽이었다.

세우는 마음을 도사리고 앉아서 희미한 전조등 불빛에 흔들거리는 숨과 이마를 마주칠듯 다가오는 길을 내다보며 이따금 한마디씩 했다.

《48 이갈나무지점, 2 단으로 서서히 변속!》

순덕은 속이 한줌만해서 남편을 지켜보다가는 그 말을 그대로 수첩에 받아적었다.

자동차는 모지름을 쓰면서 힘겹게 령길을 톱아 올랐다. 어떤데서는 방금 맥을 놓을것처럼 흠칫거리었다. 세우는 점차 숨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었다. 안해가 손수건으로 실새없이 씻어주는데도 땀은 그대로 얼굴을 적시었다.

이윽고 자동차는 제일 험하고 가파로운 72 잣나 무지점에 이르렀다. 세우는 무겁게 내리쏘리는 자동차와 짐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지그시 가스답관을 밟았다.

《우두둑!》

자동차가 부서지는듯 몸부림치더니 덜컥 떨어 버리었다. 세우는 윈다리로 황급히 제동기를 움직였다. 그러나 자동차는 시시히 뒤로 밀리기 시작하였다.

순덕은 얼핏 옆을 결눈질해보았다. 밑은 아득히 깊은 낭떠러지, 잎이 활짝 핀 마가목우듬지와 희 검은 하늘과 달빛이 허연 건너편 산꼭대기만 보인다. 자동차가 절벽우에 등 뜬것 같은 조바심이 드는 순간 그는 남편이 윈다리를 절던 일을 생각하였다.

(다리가 말을 잘 듣지 않아서 저러는구나!)

순덕이는 수동제동기손잡이를 꼭 잡아당기었다. 자동차는 떴어섰다. 그러자 앞턱에 놓인 사진들이 눈에 띄었다. 풀과 나무가지로 위장을 한 운전 사절에 나란히 서서 찍은 단발머리 중사와 상등 병견장을 단 운전사!

(그런데 지금은 동요하고 물려서도 일없단말인가!)

부지중 이런 충격이 가슴을 울리받치었다. 언제부터 나이와 지난날의 공로를 앞에 내세우면서 젊은이들이 하는 일을 구경이나 하고 뒤바라지나 하게 되었는지 알수 없었다. 그의 아픈 가슴에 불을 다는듯 세우가 빙그레 웃으며 손을 밀어놓았다.

《그냥 후진을 하자구.》

세우는 침착하게 자동차를 뒤걸음질 시켰다. 자동차는 순덕의 주름간 마음에 다리미질이나 하는 듯 몇번 오르내리었다.

이윽고 세우의 환성이 터져올랐다.

《70 휘여든 봇나무지점에서부터 가속을 얻어가지고 2 단, 그다음 1 단으로 오를것!》

세우는 팔소매로 얼굴에 흐른 땀을 복 내리 씻고 한손으로 담배를 꺼내들었다. 순덕은 기쁨에 겨워서 입술을 감쌀며 눈을 습벅이다가 얼른 성냥을 켜대주었다. 세우는 담배연기를 맛스레 삼키면서 조향륜을 움직이었다.

령우에 올라서자 그는 지체없이 자동차를 돌려 세웠다. 순덕은 영문을 알수 없어서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한번 몰아보우.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할수 있는지 알지.》

세우는 복남이를 반아안고 조향륜을 넘겨주었다. 운전대를 잡자 순덕은 한창시절의 열정이 몸을 허공 떠 드는것을 느끼었다. 그는 숨을 한번 크게 쉬고나서 차를 몰았다. 자동차는 전조등불빛으로 벵이리며 숲이며 언덕들을 정답게 쓸어만지며 사슴골로 내리달리었다.

령밑에서 자동차가 돌아서서 령을 오르기 시작하자 세우는 수첩을 펴들고 지형에 맞게 수자를 불러주곤했다. 순덕은 그대로 운전했다. 전선에서부터 자동차기술을 애써 배워온 보람이 이제야 빛을 내는듯싶었다.

자동차가 큰 곡절없이 령우에 올라서자 세우는 팔목시계를 보았다. 령결차를 달지 않았을 때보다 시간이 약 20분간 더 걸렸을뿐이었다.

《됐어! 구름령이라구 령결차가 안될리 있나 응? 허허...》

세우는 안해의 손을 잡아흔들며 웃음을 터뜨리었다.

순덕은 손을 내맡긴채 그리도 기뻐하는 남편의 열정에 찬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 순간 남편에게서는 한창시절의 생신한 기운이 풍기는것 같았다.

순덕은 자기에게서도 산이라도 가슴으로 밀고나갈것같은 힘이 솟는것을 느끼었다. 이것은 《좌상구실》을 하려고 것처럼 애쓰던 남편이 안아온것이었다. 언제나 주저도 동요도 없이 기발을 들고 앞장에 서서 나가는 사람만이 식을줄 모르는 이런 열정, 이런 패기를 안고 살수 있는것이다.

순덕은 같이 살면서도 남편의 것처럼 웅심깊은 마음을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는것 같았다. 그에게는 환희에 넘친 남편의 음성이 전화의 그날 처음으로 자기의 이름을 부르며 영원히 이렇게 싸우자던 그 불같은 목소리로 들리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가슴속에 격정이 가득 차오른 순덕은 그때처럼 말은 못하고 속으로 부르짖으며 잠든 복남이를 꼭 껴안았다.

노루꼬리만한 여름밤은 서서히 물러갔다. 세우와 순덕은 새벽빛을 받으며 령마루우에 나란히

섰다.

검푸른 산허리를 명주필처럼 포근히 둘러감은 젖빛안개, 아득히 먼 산밑에서 번뜩이는 칙전못으로부터 시작하여 골짜기를 따라 우물구불 들어왔은 광산마을, 구름령밑에 충충 자리를 잡은 선광장, 골짜기막바지를 쿡 막은 버럭무지, 5전짜리만한 굴아구리들이 어슴푸레 내려다보이었다. 길수가 설계한 사슴골로천채굴장에서는 하늘땅을 뒤 흔들며 마당남포가 튀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이제 구름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새 광산지구였다. 삭도가 높이고 구름령이 번창해질 때까지 사슴골과 선광장의 혈맥은 령결차들 단 자동차들이 이어줄것이었다. 저절로 주먹이 꼭 쥐어졌다.

《저-, 아무래도 우리가 먼저 사슴골로 넘어가야 할것 같아요.》

순덕이가 복남이를 추슬러안으며 조용히 말한다. 세우가 무슨 소리냐는듯 돌아다보자 그는 이제 자동차들이 사슴골에 집중되게 되면 운수부에서도 누구든 먼저 가서 일을 해야 할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우자신도 역시 그래야 일을 더 할수 있었다. 길수는 이미 가있고 병원에서도 진료소쯤은 내와야 할것이었다. 세우는 그런 용단을 먼저 내린 안해가 대견스러웠다.

《사슴골의 첫 가정이라! 잘 생각했소. 빨리 가서 제기를 하라구. 나도 오늘 문제없이 사람들앞에 나설수 있다는 보고를 해야겠소.》

세우는 노래라도 부를듯 기분이 좋아졌다. 이때 복남이가 《할아버지 요건 우리 할머니》 하고 잠꼬대를 했다. 순덕은 이너석이 꿈에서까지 사전을 보는 모양이라고 웃으며 말하였다.

《그래 그 할아버지 그 할머니지 응? 하하...》

세우는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복남이의 오동통한 볼을 다독이었다. 그바람에 깨어난 복남이는 새까만 눈을 깜박거리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얼굴을 번갈아보았다. 자기를 곱다고만 하며 추슬리던 정갈하고 아늑한 방안이 아닌것이 이상한 모양이었다. 꿈에조차 꽃밭속에서 나비들과 함께 뛰는 지난밤 할아버지, 할머니와 아버지예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시작될지 알수 없었고 아직은 알바도 아니었다. 그는 동녘하늘을 불태우며 활짝 핀 아침노을을 보자 갑자기 좋아라고 웃어댔다. 순덕이가 내려놓자 그 자그마한 발로 차분한 풀잎에 함초롬히 댔힌 뽕오얀 이슬을 견어차며 노을을 향해 저만큼 달려갔다. 세우와 순덕은 마주보며 웃다가 따라가서 복남이의 손을 하나씩 잡았다. 타는듯한 노을빛이 그들을 붉게 물들이었다. 숲속에서 산새들이 우짖기 시작하였다.

## 나도 그 대오의 한 성원

한상호

미처 몰랐더라  
흙매질 곱게 한 방공호-우리 집으로  
밤마다 오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섯살 내 밥투정도  
웃음으로 받아주는 어머니가  
그럴 때면 왜 그리도 엄엄해보이는지

산너머 언덕에 못다물은 씨앗을 두고  
서로의 가슴 헤쳐놓고 토론하라도  
소잔등에 위장망 없고 령 넘어 가던 그들  
어쩌면 그리도 할일이 많았던지  
이른아침 깨일 뜯어 장독에 담그다도  
그들과 함께 어디론가 가시던 어머니-

나는 보았더라  
한톤짜리 폭탄이 길허리를 끊는 새벽  
파편 튀는 다리우에 높이 서서  
온 마을을 이끌어가는 그 사람들  
수수한 무명옷차림의 어머니와 그들에게  
내 모르는 그 어떤 힘이 있는지  
이웃집 할머니들이 아들의 편지를 들고  
왜 어머니부터 찾아와 기뻐들하는지

미처 몰랐더라  
저녁이면 마실은 내포래 아이들에게  
군감자를 벗겨주는 어머니와 그들에게  
내 모르는 그 어떤 힘이 있기에  
불이 이는 고지로 주먹밥을 나를 때도  
포연속 헤치며 총포탄 나를 때도  
그처럼 사람들이 파르고 우러러보는지

그 언제 어느때부터였던가  
쌍태머리 녀선생의 그 이야기 들으며  
나는 깊이 생각했더라  
사람들이 어머니를 친근히 부르던

세포위원장이란 그 말뜻을 되새겨보며  
나는 점차 알았더라  
그들의 가슴에 지녔던 당원의 그 힘을

철들며 더 우러러보이던 그 사람들-  
그리도 승엄해보이던 그 힘을  
내 군복 입고 화선입당하던 날  
높이 손들어주던 당원들의 뒤를 따라  
훈련의 돌격선에 뛰어들며  
아, 나는 진정 알았더라  
한번 지니면 그리도 빛나고 참된 힘임을

진정 알았더라  
평범한 사람들도  
그 대오에 발맞추고 숨결을 맞추면  
그 힘이 물불속도 헤쳐나감을!  
그들의 가슴에 지녔던 크나큰 그 힘이  
아, 수령님 이끄시는 불패의 향도력임을!

당이여, 그들의 가슴에 내 가슴에  
불타며 뚫어번지는 그 힘-  
가슴과 가슴에 뛰는 그 힘이 합쳐  
천리전야에 오탁을 키우고  
만리창공에 무쇠기둥 세우며  
노을 피는 강산우에  
그 얼마나 아름다운 전변을 펼쳤는가

당이여!  
그대의 힘을 지닌 그대의 전사는  
영광의 대오, 천만걸음에 발맞추며  
아, 그대의 부름에 불되어 달려가리라  
당이여, 수령님 이끄시는 그대의 전투력이  
세월과 함께 이 땅과 함께  
천백배로 더 역세지게!-

## 철의 대하여 흐르라

유성옥

아침노을 비낀  
저멀리 푸른 산밭  
파도치는 강물을 넘어  
밤이슬에 젖은 총창을 번쩍이며

굽이쳐가는 병사들의 행군대오  
맑은 해빛  
푸른 하늘

기름진 대지의 들향기  
아이들의 맑은 노래를 안고  
저벅저벅 걸어가는 병사들  
조선인민군, 철의 흐름이어

넘치는 힘과  
눈부신 위훈으로 자랑높은  
너의 시작은 어디  
끝은 어디더나

백두의 밀림에서  
그 첫걸음을 떼어주시고  
2월의 광장에서  
그 흐름을 이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을 따라  
눈길만리  
불길만리  
세차게 굽이쳐온 노도

불바다 불언덕을 헤쳐넘으며  
오늘에도 잇닿은 도도한 흐름  
바라보는 눈굽은 젖어들고  
가슴은 끝없는 궁지와 자부심으로 높뛰여라

영웅의 대오여  
너는  
이 땅우에  
인민의 참된 무력이 없어  
나라를 빼앗기고 짓밟혔던  
수난의 그 세월

피바다에 잠겨 몸부림치던  
민족의 피타는 열망을 안으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우리 수령님  
아버님께서 넘겨받으신  
두자루의 권총을 드시고  
거룩한 첫자욱을 옮기시던  
력사의 그날로부터  
줄기찬 흐름이 굽이쳤기에

귀중하여라 너의 흐름  
신성하여라 너의 흐름  
짓눌린 조선의 났을 흔들어 깨우며  
조선의 기상을 누리에 떨치며  
진군의 파도를 휘몰아간 대오

악착하게 앞을 막아서는  
미일침략자들의 철화속을 누비며  
피어린 년대를 넘어  
시련의 천만고비를 넘어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달려온

충성의 대하여

너의 흐름우엔  
연분홍 진달래 꽃잎우에  
맑은 눈이슬 떨구며 미소짓던  
유격대 너대원의 모습 어려있고  
장군님 만세를 높이 부르며  
수류탄뭉음을 안고  
적땅크를 맞받아나아간  
영웅전사들의 숨결 젖어있어라

너의 군기우엔  
위훈의 아름다운 별무리 비끼고  
너의 자욱마다엔  
이 나라 인민의 투쟁의 력사가  
오늘의 행복으로 만발하게 피어났거니

아,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진두에 높이 모시여  
무적의 힘을 지닌  
일당백 자위의 혁명무력이여

그이의 지략으로  
그이의 사랑으로  
슬기와 용맹의 나래를 펴고  
조선의 존엄을 떨치며  
끝없이 강대해진  
너의 흐름을 막을자  
이 세상 그 어디 있으랴

너는 이 땅우에  
빛나는 영웅서사시를 수놓은  
무한대한 힘의 격류  
이 땅에 꽃핀  
참된 삶과 행복의  
영원한 수호자

너의 도도한 흐름이 있어  
하늘은 푸르고  
노을빛 쇠물은 끓고  
금나락 설레이는 락원의 이 강산  
조국은 억세고 흔들림 없나니

혈전만리 걸어온길보다  
갈길이 더 많은 혁명의 길에  
흐르라 인민의 무장력이여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손길을 따라  
일당백 자위의 총검 높이  
대를 이어 노도쳐가는  
너는 자주 시대의  
가장 위력한 철의 대하여라

# 새땅의 노래

김진수

발목이 시도록 걷고걸어도  
떠나고싶지 않은 두렁이다  
돌아보며 안아보며  
기쁨에 목메이는 땅이다

두렁도 새로 매고  
물길도 새로 열며  
천만이삭들이 뿌리내릴  
부드러운 흙밭을 두손에 받쳐들고  
뜨거워지는 가슴에 젖어드는 생각이여

대풍이 들어 그저 좋다고  
흐뭇한 가슴 부풀기만 하던  
그 가을날  
그리도 기쁘시여  
풍년벌을 돌아보시던 어버이수령님

강기슭 진펄에 걸음 멈추시고  
깊은 생각에 잠기시여  
이 좋은 땅이 높고있다고  
빈땅의 크기와  
그우에 설레일 만풍년의 무게도  
함께 가늠하시며

동쪽밀으로 배수로를 크게 내면  
좋은 새땅을 얻는다고  
부침땅이 훨씬 늘어난다고 말씀하실 때  
누구도 몰랐다 그때까지는  
그 땅이 새땅인줄  
그 땅에 만풍년이 있을줄

가난한 조상들 땅이 그렇게 그리웠어도  
쓸모없다 버려둔채 돌보지 않던곳  
철없는 어린것들 갈피리 꺾어볼며  
웅덩이 더듬질에 잡은 고기 몇마리  
들고오던 기쁨이 고작이었다  
진펄의 물을 뜯는 송아지울음소리  
그것이 즐거움의 전부이었다

아 그날의 그 웅덩이 그 진펄은

영영 추억속에만 남기고  
강바람에 흔들리던  
성근 갈대가 아닌  
금나락 풍년이삭이 끝없이 설레일  
생각만 하여도 더없이 좋은 땅

위대한 수령님 찾아주셨구나  
현지지도의 길에 오실적마다  
차창밖으로 오래오래 바라보시던  
강변의 진펄  
산기슭의 풀섶

인민의 행복을  
이랑이랑 가꿔주시려  
조국땅 넓은 포전  
일일이 다 돌아보시고 또 보시며  
걷고걸으시는 수령님

이 땅  
갈대 성근 진펄우에도  
풍년이삭을 무르익혀주시려고  
바쳐오신 그 크나큰 로고속에  
찾으시여 안겨주신  
사랑의 새땅  
기쁨의 새땅

수령님의 그 사랑이 옅어져도 영글고  
수령님의 그 은덕이 만풍으로 설레일 새땅  
이 손으로 갈아엎고 기름지우며  
한생을 뿌리내려 살 터전이다  
대를 두고 대를 물려 후대들이 받아안을  
조국땅의 크나큰 또 하나의 재부이다

무르익어 설레이라  
사랑의 새땅 행복의 터전우에  
영원한 만풍년의 황금물결이여  
어버이수령님 사랑 넘치는  
드넓은 조국땅 그 어디에나  
빈구석 빈땅이 없구나

# 굴포의 처녀

정은섭

1

도래굽이를 끼고 달리는 북행렬차의 상급좌석에 한 로인이 반쯤 눈을 내리깔고 깊은 상념에 잠겨앉아있다.

도랑물도 절절 끓는듯한 삼복철이건만 회색양복에 넥타이를 맨 나이 지숙하고 점잖아보이는 로인은 어느 모로 보나 학자다운 풍모가 엿보인다.

그는 고고학계에 이름있는 학자 최학문교수다.

차창밖으로는 끝없이 설레이는 동해바다가 자태를 드러냈다.

좌! -기슭을 치는 파도소리, 뿔뿔 날아에는 갈매기들, 차안의 고성기에서 울리는 바다의 노래...

그는 몸을 일으켜 차창밖으로 머리를 들렸다. 팔계수같이 시원한 바다바람이 가슴에 훅훅 안겨든다.

이윽고 최학문은 눈길을 돌려 가방안에서 편지봉투를 꺼내었다. 도수높은 안경너머 편지의 곁볼을 쳐다보는 사색깊은 그의 눈은 생기로 번뜩이고 입가에는 맑은 미소가 어리였다.

(굴포리... 리오복이라, - 어떤 처녀일까?)

그는 속지를 꺼내며 펼쳤다. 벌써 여러번 본 편지이건만 볼 때마다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박아쓴 글자들이 살아서 움직이는듯 눈에 안겨든다.

《...선생님 저희들은 오늘 새땅찾기를 하던 도중에 옛날유물을 발견하였습니다.

저희들은 그 유물이 우리 고장에서 이미 발굴된 유물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청동기시대의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특히 발견된 유물에는 진흙으로 빚어만든 인형과 뼈로 만든 피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바로 십년전에 선생님이 우리 고장에 내려오시여 유적과 유물을 발굴하던 때의 일을 잊지않고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내려오시리라는것을 꼭 믿습니다...》

편지는 집단의것이면서도 리오복이라는 처녀의 것이기도 했다.

그는 또다시 생각에 잠겼다.

흙으로 빚어만든 인형이란 어떤것이며 뼈로 만든 피리란 어떤것일까? 그것이 과연 그들이 추정한대로 청동기시대의것일까? 만약 그것이 청동기

시대문화층의것이라면 오복이가 원시예술의 발전을 보여주는 값높은 유물을 찾아낸것이 아닌가!

차창밖으로는 피끗피끗 전주들이 지나갔다. 문득 그의 머리에는 우리 나라의 원시예술에 대한 연구사업으로 탐구와 사색속에서 모태기던 수많은 날과 날들이 떠올랐다.

세계인류의 가장 귀중한 보물로 널리 알려진 벽화를 그처럼 훌륭히 그려내고 정교한 조각품을 만든 고구려사람들의 경탄할만한 재능은 과연 무엇을 말하여주는가. 그것은 고구려사람들이 자기의 선조들로부터 비상한 예술적재능을 이어받았다는것을 증시하여준다. 그러나 이미 땅속에 파묻힌 그 훌륭했으리라 믿어지는 예술적재능이 담긴 유적과 유물은 좀처럼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따뜻한 배려속에서 온 나라 인민이 발동되고 유력한 과학진이 무어졌다. 대대적인 발굴과 연구로 상원의 검은모루에서 60 만~40 만년전으로 추정되는 동굴유적이 발굴되어 하부생신세의 자연환경을 리해할수 있는 수많은 포유동물화석이 나왔으며 구석기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석기들이 나왔다.

뒤이어 평양의 력포와 덕천의 승리산에서 10 여 만년전에 살았던 고인인 《력포사람》과 《덕천사람》의 화석이 발굴되고 이들보다 한계단 더 발전한 신인인 《승리산사람》의 화석이 나왔다. 구석기시대후기의 문화를 창조한 승리산사람은 신석기시대에 이르러 조선사람의 선조로 이행하였다.

이리하여 조선사람의 기원은 아주 오래며 조선사람은 바로 조선땅에서 발생발전하여 자기의 고유한 문화를 창조하여왔다는것을 세상에 자랑할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조선사람이 여기저기서 물려온 사람들로 이루어진 《혼혈족》이며 그 발생지도 아시아대륙의 북쪽 또는 남쪽에 있다는것을 날조하려던 부르조아반동학자들의 형형색색의 망설을 짓부셔버렸다.

최학문은 발굴된 여러 지역의 구석기중기의 유적들에서 벌써 예술적형상의 싹을 보여주는 검은색과 붉은색의 광물질물감조각, 치레거리, 돌에 쪼아새긴 무늬 비슷한것들을 발견하였다.

그는 구석기시대후기, 신석기, 청동기에 이르는 우리 나라 원시예술품들을 연구하는 과정에 이 예술품들에는 조선사람들만이 가질수 있는 독특한

한 민족적정서와 계승성이 반영되어있다는것을  
알아냈다. 연구결과는 날을 따라 무르익어갔고 그  
의 머리속에는 원시예술에 대한 론문의 체계들이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잡기 시작였다. 그러나 론  
문은 원시인들이 남긴 유적과 유물, 그들의 생산  
환경과 고용한 씨족적특성, 습관과 신앙, 구비전  
설, 신화와 가요에 근거한 정확한 판단을 요하는  
것만큼 섣뜻 손을 댈수가 없었다. 특히 원시예술  
의 진면모를 보여주는 특색있고 가치있는 유물이  
필요했다.

그러던 어느날, 최학문은 굴포리에서 보내온 편  
지를 받았고 이렇게 출장의 길에 오르게 된것이  
다.

굴포리는 그에게 인연이 깊은곳이기도 했다.

그는 바로 십여년전에 그곳에 내려가 원시시대  
유적과 유물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지금도 그때의 일이 눈앞에 선하다.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동변포호수다. 그 가  
운데 사랑목이 있고 굴양식작업반이 자리잡고있  
다. 작업반앞으로는 끝없이 설레이는 바다와 잠자  
는듯 조용한 호수를 경계지은 울퉁불퉁한 달구지  
길이 우암산으로 오불고불뻗어갔다.

그 옛날에는 이 호수가 바다였다고 한다. 수천  
년의 세월의 흐름속에서 바다는 밀려나가고 밋밋  
한 야산들로 둘러싸인 이 자라목같은 바다는 호  
수가 되어버렸다. 이고장 사람들은 젊은 혈기에  
넘치는 총각같은 바다와 자기의 아름다움을 속깊  
이 간직하고있는 처녀같은 이 호수를 사랑했다.

호수는 자기의 철철 넘치는 사랑을 수집은듯  
물에 담아 조금씩 바다로 흘러보내고 바다는 그  
사랑이 못내 그리워 기슭으로 밀려와서는 자기의  
품에서 고이 키운 여러가지 물고기들을 호수에  
보내준다, 바다와 호수는 이렇게 서로 사랑을 주  
고받으며 수천년을 살아왔다. 그래서 굴포의 사람  
들은 바다와 호수가 합쳐지는 이 자그마한 목을  
사랑목이라고 불렀는지도 모른다.

최학문은 이 사랑목에서 유적과 유물이 발굴된  
동산덕으로 가는 배를 기다리고있었다. 그곳으로  
가자면 오리나 되는 동변포호수를 건너야 했다.

그는 호수와 바다의 아름다운 경치에 넋을 잃  
고 의자에 앉아있었다. 바다바람이 가슴에 안겨들  
어 옷자락을 마구 휘젓고 비릿하고 향긋한 생굴  
냄새와 기관선의 경유냄새가 기분 좋게 풍겨왔다.

파도가 마당끝에 와서 처절썩! 할 때면 그에  
화답이라도 하는듯이 확성기에서는 관현악의 경  
쾌하고 부드러운 선율이 흘렀다.

사무실의 한 일꾼이 간물에 절고 다스러져 반  
질반질한 노를 어깨에 멘 로인 한분을 그에게 안

내했다.

《이 아바이가 그곳까지 모셔다드릴겁니다.》

최학문은 반갑게 인사했다.

《로인님, 수고하십니다.》

《먼길에 맥이 났겠소. 난 리삼덕이라구 부르  
오.》

로인은 곱삭은 농립모를 들었다놓으며 자기 소  
개를 했다.

《최학문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로인님께 많은  
수고를 끼치게 될것 같습니다.》

《당치 않은 말씀! 자 어서 갑시다.》

로인은 허연 채수염을 날리며 씨엥씨엥 앞장서  
걸었다. 그의 피춤에는 피리가 꽂혀있었다, 아마  
피리를 잘 부는 모양이었다. 등뒤에서는 노란이  
고기꼬리처럼 푸들거렸다.

그들이 나루터에 이르렀을 때였다. 해당화가 빨  
강게 피어난 둔덕에서 열둠살뽀얀 처녀애가 사  
냥총을 쥔 청년앞에 딱 버티고 서서 성이 난듯  
소리치고있었다. 그들의 머리우로는 갈매기가 떼  
를 지어 날아갔다.

《아저씨! 여기가 어디라고 총을 싸요.》

《왜 안되나?》

《안돼요. 지금은 갈매기가 알을 낳 때인데 놀래  
우면 되나요.》

소녀는 인기척에 놀라 핵 돌아서더니 《할아배!  
—》하며 엎어질듯 달려왔다.

《원 저런, 저게 내 손녀외다. 우리 고장에서 옛  
날유물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따라가보겠  
다구 하던걸 밀어버렸지요. 그랬더니 제가 먼저왔  
군.》

어느새 소녀는 그물앞에 마주섰다. 새처럼 조막  
만한 가슴이 팔딱팔딱 쾅다. 도마도처럼 빨강게  
익은 얼굴에는 아직도 가서지지 않은 노여움이  
풍겨있었다.

《할아배, 저 사람을 쫓아버려요.》

소녀는 사냥총을 쥔 청년을 가리키더니 인차  
해죽이 웃으며 《선생님, 안녕하세요?》하고 최학  
문에게 깍듯이 인사를 했다. 참 기특한 소녀였다.

로인은 노를 놓고 청년한테로 갔다.

《여기는 사냥터가 아니니 함부로 총질을 못해!  
썩 물러가게.》

로인의 성난 목소리가 찌렁찌렁 울렸다. 청년은  
비실비실 뒤로 물러났다. 그 모양을 바라보던 소  
녀는 좋아서 깔깔 웃어대며 남먼저 배에 올랐다.

뒤미처 그들도 배에 탔다. 그리고 새로 짓는 쥔  
소목장으로 간다는 중년의 사나이도 배에 자리를  
잡았다.

삼덕로인은 힘있게 노를 저었다. 배는 잔잔한

물결을 타고 가볍게 미끄러져갔다.

갈매기와 오리들이 한데 어울려 머리우에서 낮게 떠돌다가는 물위에 사뿐히 내려앉아 둥둥 떠다니기도 하고 먹물것을 찾아 물속깊이 사라지기도 하였다. 그때마다 그 자리에는 무수한 동그라미들이 생겨 끝없이 퍼져가는것이였다.

《로인님은 여기서 사신지 오래니까?》

최학문은 호수의 정적을 깨치기 저어하듯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기서 태를 묻고 여직껏 살았지요. 내 할아버지도 예서 살았구 그 조부도 <내 할아버지도 여기서 살았다>고 말하는걸 내 어릴적에 들었수다. 그저 제고장이 체일이지요.》

최학문은 로인의 말을 들으며 쪽빛하늘이 그대로 내려앉은 잔잔한 호수에 눈을 주었다. 호수는 이 땅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수백만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에 껴안고있으려만 묵묵히 입을 열지 않고있다.

소녀는 마치 그 입을 열어주려는듯 호수에 손을 잠그어 물을 마구 끼얹었다. 그러자 은비늘을 번쩍이며 팔뚝같은 물고기들이 쭈뼛 물위로 솟구치고 갈매기와 오리들이 배주위에 모여들었다.

《아바이, 이 호수에다 왜놈을 처박던 이야기나 좀 해주시우.》

중년사나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로인의 손에서 노를 빼앗으며 한마디 했다.

《하, 이 사람이 또 구차스럽게 노는군.》

《로인님, 어서 들려주십시오.》

최학문은 얼굴에 웃음을 담으며 청을 올렸다.

《거, 참...》

로인은 난처한듯이 곱삭은 농립모를 벗어 활활 부채질을 하며 한참이나 명상에 잠겨 호수를 바라보았다. 로인의 얼굴에는 점차 추억이 실리기 시작했다.

《이젠 잊음이 많아서... 그제 아마도 계미년(1943년) 한가위를 나흘 앞둔 가을이였수나.》

잊음이 많다고 했지만 리로인은 스물다섯해나 지난 그때의 일을 날자까지 잊지 않고있었다.

《아침에 선주님이 찾아와서 배에 나가시 말구 <한 손님> 들을 호수너머로 안내하라고 하지 않겠소. 노를 둘러메고 사랑목으로 나갔지요. 땀나무가 없다구 노친네가 청얼대기에 올 때 나무나 헤오자구 도끼 하나 쾅무니에 찼지요. 각반을 치구 짜개모자를 빼딱하니 쓴 왜놈 다섯이 나를 기다리고있지 않겠소. 나는 이놈들이 늪에 오리사냥아니면 호수너머 메짐승잡이라도 가는가부다 하고 생각했었수다.》

로인은 잠시 말을 끊고 주머니를 뒤지여 담배

쌈지를 꺼내었다.

소녀는 두눈을 울롱하니 뜨고. 뉘엿이 할아버지의 얼굴만 쳐다보고있었다.

최학문은 얼른 담배갑채로 내밀었으나 로인은 굳이 사양했다. 로인은 담배쌈지안에서 《볼로초》를 집어내여 큼직하게 말아피웠다.

《...나는 머리를 수긋하고 노만 저었지요. 나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제놈들끼리 지껄이던놈들중에서 족제비상을 한놈이 나보구 왜말을 아는가고 묻습데다. 알지만 모른다고 했더니 놈은 좋다고 내 어깨를 툭툭 치는것이 아니겠소. 당장 노대로 대갈통을 갈기고싶은 생각이 불끈 납데다. 어느새 배는 호심을 넘어섰지요. 바로 여기쯤 되겠는 지...》

로인은 옛일을 더듬는듯 노대를 멈추고 주위를 살폈다. 한눈에 동산덕이 보이고 그 옆에 등실하게 솟은 옛무덤이 안겨왔다.

《옛날에는 우리 고장 사람들이 이 호수의 맛좋은 굴과 저 옛무덤 그리고 후한 인심을 큰 자랑으로 여기고 살았수다. 그밖에 무슨 자랑거리가 있었겠소. 호심을 넘어서니 족제비상을 한놈이 나보구 또 묻습데다.

<저 묘지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아는가?> 고 하면서 옛무덤을 가리키지 않겠소.

<먼 옛날부터 있었소.> 하고 내뱉었지요.

대답해놓고 보니 정신이 펴쩍 듭데다. 이놈들이 분명 묘를 파러 가는구나. 배에 실린 곡괭이며 삽을 보는 내 가슴속에서 불이 황황 일지 않겠소.

천하에 악귀같은놈들, 백주에 남의 나라 선조의 무덤을 파헤치다니 ...

나는 놈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신경을 도사렸지요. 놈들은 조선사람을 일본사람으로 만들자면 저런 선조들의 무덤도 없애버려야 한다고 하지 않겠소. 그러면서 저렇게 생긴 묘를 파는 방법이며 여기 묘는 인가와 멀구 더우기 호수까지 있어서 마음놓고 팔수 있다고 하면서 묘에서 나오는 귀물들을 비싸게 팔아먹을 소리까지 짓어대며 좋아하더라말이요. 보아하니 도굴만을 업으로 삼는놈들갈지 않습데다. 더는 참을수가 없었수다. 혼자서 다섯놈! 무섭지도 않습데다.

나는 놈들을 향해 소리쳤수다.

<이놈들, 이 천하에 날강도같은놈들! 나라를 빼앗구 선조의 무덤까지 파헤치려는 귀축같은 놈들아!> 하며 노대로 놈들을 후려했지요. 단번에 두놈이 호수에 처박혔데다. 족제비같은놈이 삽을 들고 달려들지 않겠소. 탁! 노대가 부러졌수다.

문득 도끼생각이 납데다. 나는 날이—시퍼렇게 선도끼로 나무쥔듯이 놈들을 찍었소. 배마저 도끼



로 패서 호수에 버리구 기슭으로 헤엄쳐나왔지요. 동산덕에 오르니 집이 보이구 사랑목이 한눈에 안겨웁데다. 떠나자니 이 땅이 발목을 휘여잡아 차마 발길이 떨어지길하우.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며 갖은 고생을 겪다가 해방을 맞아 집에 오니 하, 글썄 노친네가 삼년상을 챙겨놓고 울지 않겠소.》

로인은 감개에 싸인듯 옛무덤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최학문은 선뜻 입을 열수가 없었다. 눈앞에 있는 옛무덤을 대하고보니 리로인에 대한 승엄한 감이 가슴에 안겨들어 목구멍이 알싸해났다.

소녀는 두눈을 감작거리며 할아버지의 얼굴과 옛무덤을 번갈아보며 그 무엇인가 가슴에 깊이 새겨두려는듯 입을 꼭 다물고있었다.

《로인님은 참 장하십니다.》

최학문은 리로인의 손을 부여잡으며 입을 열었다.

《당치 않은 말씀! 제고장을 욕되게 하는놈들을 그냥 뒤서야 되우다. 죽은 왜놈들은 물귀신이 돼서두 보는 재주가 있어 지금 이 땅을 본다면 아마 기절할거우다. 자, 보시우.》

로인은 프락포르가 줄지어 다니는 넓은 앞벌을 가리켰다.

《저 벌이 전에는 왁새풀만 무성하던 진펄땅이었수다. 그너머에 자그마한 수산협동이 있었지요.

어찌나 길이 나뻐던지 첫날새카지도 발을 벗고 시집은 그런 길이었수다.

그런데 수령님께서 글썄 인민들이 사는곳이라면 다 가봐야 한다고 하시면서 발목까지 적시시며 수산협동을 찾아주시지 않으셨겠소. 우리 고장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셨지요. 올해 정초에 애 언니가 그곳으로 시집을 갔는데 자동차를 타고 갔수다. 다리미질 한것 같이 반반한 세멘트포장길로말이우다. 상객으로 가던 이 늙은것이 주책없이 울기까지 했수다. 언제면 우리 수령님께 백성된 도리를 다 하겠는지. 자, 인주게.》

로인은 자리에서 성큼 일어나 중년사나이의 손에서 노를 앗아내어 힘있게 저었다. 어깨박죽이 세차게 굴돌거렸다.

어느 사이 배는 기슭을 가까이했다.

《아바이, 다 왔는데 좀 쉬어갑시다.》

중년사나이가 한마디 했다.

《그러세.》

로인은 선미에 걸터앉았다.

《아바이, 한국조 들려주시우다.》

중년사나이가 로인을 바라보며 또 한마디 했다.

로인은 빙그레 웃음을 지으며 머리를 끄덕이더

니 피리를 꺼내었다.

피리는 참대로 정성스럽게 만든것이었는데 랑 끝에 구리가락지를 씌웠다. 어찌나 달달을 냈는지 눈이 부시게 반짝거렸다.

《애, 막내야! 너 그 노래 알지?》

로인은 손너를 바라보며 눈을 끔쩍거렸다.

소녀는 최학문에게로 눈길을 돌리더니 어쭙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로인의 얼굴은 깊은 명상에 잠겨 굳어진듯싶었고 소녀의 질은 눈섭밑에서는 머루알같은 눈동자가 그윽한 정기를 내뿜었다.

이윽고 고요한 수면우에 청아한 피리소리가 흐르고 소녀의 애맑은 노래소리가 울려퍼지기 시작했다.

맑고 부드러운 피리소리에 뒤이어 힘있고 은은히 수면을 미끄러져가는 소녀의 노래소리가 따랐다.

굴포라 내 고향 십리 호수는

대대손손 키워준 젖줄기라네

올해도 굴풍년 물새도 반기는가

굴포라 내고향 살기 좋은 고장일세

최학문은 저도모르게 몸을 바로잡았다. 가슴은 달콤해지고 마음은 정든 고향의 머루나무 설레는 동구길로 줄달음쳤다.

로인의 피리소리와 소녀의 노래소리는 하나로 합쳐 점점 높아져가고 끝없이 폭이 젖었다.

최학문은 심장이 뒹굴고 차츰 눈물이 물켜오는 것을 느꼈다. ...

렬차는 질풍같이 계곡을 헤쳐나와 또다시 바다가를 끼고 달린다.

(리삼덕로인은 아직도 계실가? 막내라고 부르던 그 손너는 어떻게 됐을가?)

최학문교수의 마음은 렬차를 앞서 굴포로 달려고있었다.

## 2

읍에서 아침빼스를 타고 두시간도 못되어 굴포리에 내린 최학문은 리당을 찾아갔다. 때마침 사무실을 나서던 키가 크고 얼굴이 검실검실한 사십줄에 들어선 체격이 장대한 사람이 거쿨친 손으로 최학문의 손을 반갑게 잡으며 안내했다. 어글어글한 눈에 웃음을 담고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리당비서라고 자기 소개를 하는 그는 단번에 사람의 마음을 잡아끄는데가 있었다.

그는 기다린지 오래다고 하면서 말머리를 뻗다.

《…저녁무렵이었습니다. 협의회를 하는데 문두 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나지 않겠습니까. 미처 대답도 하기전에 문이 벌럭 열리더군요. 오복동무였습니다.

《비서동지! 큰…일 …났어요.》

처녀는 밀도끝도없이 숨이 차서 더듬거리며 겨우 입을 열더군요. 모두 눈이 휘둥그래져서 오복이를 쳐다봤습니다. 얼굴은 온통 땀이구 물주머니가 된 옷은 흠탕에 제발려 말이 아니더군요.

《웬일이요?》

내가 놀라서 이렇게 묻자 오복동무는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내용인즉 새땅찾기를 하던 도중에 옛날유물이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농치기 쉬운것을 글썽 오복동무가 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처녀는 작업을 못하도록 막아나섰지요.

그런데 곱슬머리청년이… 성미가 몹시 급한 동무인데 …》

리당비서는 하던 말을 끊고 얼굴에 웃음을 띠었다.

이때 책상우에 놓인 전화기가 자지러지게 울렸다. 리당비서는 수화기를 들더니 《…네, 래일 열시부터…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면서 수화기를 놓았다.

《군에서 청년분조장들의 경험발표회가 있다는군요. 오복동무를 참가시키려고 합니다. 그 동문일 잘하는 청년분조 분조장입니다. 자, 하나 드십시오.》

리당비서는 쟁반우에 놓인 참외 한개를 꺾아서 최학문의 손에 쥐여주었다.

들크무레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방안에 질게 풍겼다.

최학문은 다음 이야기들 기다렸다.

《곱슬머리청년이 <이것도 유물이란말이지. …그래도 작업이야 해야지 않겠소.》 하면서 삽을 들고 나섰지요. 오복동무는 <이 자리는 다치지 못한다.

학자선생님이 오시기전에는 절대로 팔수 없다>고 버티고 섰습니다. 그러자 곱슬머리청년은 한초가 새로운 이때에 언제 학자선생이 오기를 기다리겠는가, 동무때문에 시간을 지연시킬수 없다고 하면서 막 작업장에 뛰어들었지요. 오복동무는 자리에 벌렁 앉아버렸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공사책임자는 총각들을 몰아내고 작업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래도 오복동무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 20리길을 내쳐 뛰어왔더군요. 나는 협의회를 끝마치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유물은 옛날것이 분명했습니다. 곱슬머리청년이 혼썰이 났지요. 오복동무

한테 말입니다.》 리당비서는 껄껄 웃었다.

최학문은 가슴에 이글거리는 불화로라도 안은듯 뜨거워올라 그 무어라 할말을 고르지 못한채 입만 하 벌리었다.

운명을 좌우하는 판가리라도 하듯 총각들앞에서 유물이 담긴 땅을 안고 몸부림쳤을 처녀의 검붉게 달아오른 얼굴, 20리길을 단숨에 달려오느라고 땀과 흠탕에 범벅이 되었을 처녀의 불덩어리같은 모습, 드디어 곱슬머리청년이 물러섰을 때 환희와 생기에 넘쳐 자기가 지켜낸 유물을 바라보았을 처녀의 빛나는 눈동자…

끝내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당에 나선 그는 무춤 멈춰섰다.

《오복이!》하는, 너무나도 귀에 익은 듣기만해도 가슴이 뭉클 젖어드는 처녀의 이름을 부르는 다정한 목소리들이 들려왔던것이다, 그쪽으로 눈길을 돌린 최학문은 백양나무그늘밑에 한 처녀를 둘러싼 술한 청년들을 보았다.

빨간 수건으로 머리를 꼭 졸라맨 처녀가 수첩을 펼쳐들고 분조포전의 작황실태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어찌나 구체적인지 그의 말만 들어도 분조의 눈발이 눈앞에 방불히 떠오르는것이였다.

이윽고 처녀는 청년들을 둘러보며 오늘 해야 할일을 분공하기 시작했다.

《일기예보에 의하면 래일아침부터 비가 온대요. 오늘중으로 속골포전의 덧거름주기를 끝내야겠어요. 트랙포르는 석대가 나와요. 그리구 오늘저녁 텔레비에서 <산정의 수리개들>을 해요. 다시 한번보구 실효모임을 하자요.》

처녀는 이마를 타고흐르는 땀도 씻을 사이 없이 수첩에 무엇인가 적어넣기도 하고 두눈을 깜박이며 잠시 그 무엇을 생각하기도 하였다.

백양나무일사귀들이 던지는 그림자가 처녀의 닙알색 여름옷에 아름다운 꽃문양을 만들어놓았다.

불과 스무살안팎의 단발머리 처녀가 분조의 농사를 어찌나 세밀히 따져가며 작업조직을 하는지 여간 대견하지 않았다.

《저 동무가 바로 청년분조장 리오복입니다.》

리당비서는 미소를 지으며 처녀를 바라보았다.

《분조장동무, 학자선생님이 오셨소.》

순간 수첩장에서 눈을 땀 오복의 눈길이 최학문에게로 돌려졌다. 구슬알같은 두눈이 반가움에 넘쳐 반짝이고 가름한 얼굴이 순식간에 꽃처럼 활짝피었다. 발그스름하고 생기있는 입술, 도톰한 그 입술이 방ışı 열리더니 《선생님!》 하는 가벼운 탄성이 이외로 조용히 새어나왔다.

오복은 재빨리 부드럽고 젊음에 넘치는 걸음으로 최학문의 앞으로 달려왔다.

《선생님 오셨군요.》

최학문은 손을 내밀었다. 작은 두손이 그의 손을 꼭 그러잡았다. 최학문은 가슴이 뜨거워 아무 말도 못하고 처녀의 얼굴만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자, 그럼 오복동무! 선생님을 그곳으로 안내하오. 그리고 래일아침 군에 갈 준비도 하고... 선생님, 전 그만... 어느때든지 찾아주십시오.》

리당비서는 너그럽게 웃으며 사무실쪽으로 걸어갔다.

《선생님, 우리 비서동지는 유물이 발굴된곳에 올라가기까지 치게 하셨습니다.》

최학문은 오복의 말을 들으며 머리를 수긏하고 걸어가는 리당비서의 뒤모습을 오래동안 바라보았다.

《선생님, 배를 타고 가자요.》

《좋도록 하지.》

둘은 나란히 사랑목으로 걸어갔다.

왼쪽은 바다요 오른쪽을 호수다, 그 사이로 넓은 포장길이 우암산으로 뻗어갔는데 팽동한 물고기기를 가득 실은 자동차들이 문문 김을 피워올리며 질풍같이 달리고있었다.

10년전 삼덕로인과 함께 겨우 소달구지나 덜컹거리며 다니던 이 길로 걸던 일이 눈앞에 선하다.

길도 변하고 길동무도 변했다. 했으나 변하지 않은것은 이고장 사람들의 마음이라 할가.

그는 멀리 앞을 내다보았다. 푸른 하늘이 은빛으로 번쩍이는 호수와 맞붙은 사이로 굴파는 처녀들의 사돌선이 점점이 떠돈다. 처녀들은 모두 빨간 수건을 썼는데 그것은 마치도 아름다운련꽃들이 송이송이 피여 떠다니는것 같았다.

길가에 늘어선 백양나무잎사귀들이 해빛에 록주옥처럼 반짝이고 층층다락에 키높이 자란 강냉이들이 푸른 주단을 둘러친듯 호수를 포근히 안았는데 덧겨름주기에 바쁜 농장원들의 모습이 얼핏얼핏 보였다. 십년전이나 지금이나 호수는 자기의 철철 넘치는 사랑의 물에 담아 바다로 흘러보낸다.

최학문은 배에 올랐다. 뒤미처 자그마한 가방을 가지고 배에 오른 오복이는 선미에 앉더니 기관을 점검하고 스위치를 넣었다.

배는 가볍게 몸부림치며 물결을 차고 살같이 미끄러져갔다.

최학문은 놀라운 눈으로 오복이와 배를 번갈아 살폈다. 그러자 불시에 십년전 일이 떠오른다.

힘겨웁게 노를 젓던 삼덕로인의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듯싶고 그가 들려주던 이야기도, 청아한

피리소리도 그리고 손녀의 애맑은 노래소리도 귀전에 쟁쟁하다.

멀리 동산덕이 우뚝이 안겨오고 봉긋한 옛무덤이 보인다.

《선생님, 생각나세요? 배를 타고 이 호수를 건너시던 일이... 그때 전 단발머리소녀였구 할아버지는 왜놈을 까놓히던...》

《뭐라구?!》

최학문의 놀라운 눈길이 오복의 미소어린 눈길과 마주쳤다. 그는 배칸이라는것도 잊은듯 자리에서 불쑥 일어나 오복이 앞으로 걸음을 내짚었다.

그바람에 배는 균형을 잃고 좌우로 기우뚱거렸다. 오복은 황급히 스위치를 끄고 최학문을 붙잡았다.

《오복이!—》

《선생님!—》

그처럼 부르고싶었던 절절한것이 일시에 쏟아졌다.

그들의 머리우에서는 갈매기와 물오리들이 한데 어울려 울어에는 소리가 정답게 들려왔다.

최학문은 미소어린 시선으로 오복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짙은 눈썹밑에서 이슬에 젖은 머루알같이 까만 눈이 기쁨으로 반짝였다.

오복이는 통통한 두손을 무릎우에 올려놓은채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는 선생님이 떠나신후부터 땅과는 일이 조금만 생겨도 그곳으로 달려가시곤했어요. 이 고장의 지형을 봐서 아득히 먼 옛날부터 우리의 조상들이 살아왔을게라고 하면서 땅을 파도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조심히 파구 한줌의 흙이라도 비물에 씻겨 흘러가도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전 할아버지의 말을 명심하고 일해왔지만 아직도 이 땅의 값을 다 헤아리지 못해요.》

처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호심으로 배를 몰아갔다.

오복의 꾸밈없는 말은 최학문의 가슴을 뜨겁게 지지였다. 실로 오복은 자기가 사는 땅, 땅에 뿌리박고 자라고 일떠선 그 모든것뿐만아니라 땅밑의것도 귀중히 여길줄 아는 처녀가 아닌가.

또다시 배는 흥떡인다.

《그래, 중학교는 언제 졸업했나?》

《삼년이 됐어요.》

《왜 상급학교에 안갔나? 동무의 목청은 정말 고왔지.》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기도 하지만 저도 처음엔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졸업을 앞두니 마음이 이상해지지 않아요.》

그러던 어느날 전 우리반 애들과 함께 어버이

수령님께서 오르셨던 동산덕마루에 올랐어요.

끝없이 설레이는 바다, 거울같이 반짝이는 잔잔한 호수, 방목지로 무리지어 흐르는 젖소떼... 새 희망과 포부로 부풀어오른 우리들 가슴에 안겨드는 고향은 정말 풍만하고 아름다웠어요. 저는 바다와 호수, 젖소와 갈매기를 떠나서는 살것 같지 않았어요.

먼 옛날부터 살아온 선조들의 유적과 유물로 이름난 고장, 항일유격대원들의 조국진군의 발자취가 스며있고 조국개선의 첫 발자국을 내디딘 유서깊은 땅, 더우기 어버이수령님께서 온통 진펄이고 갈대와 왓새풀만 무성하던 우리 고장을 몸소 찾으시여 군을 종합농장으로 만들어주신 그 크나큰 사랑이 깃든 고향땅을 글씨 어떻게 떠난 단말이에요요.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대를 이어가면서 고향땅을 꽃피워 공산주의를 제일먼저 맞이해야 한다고 하시였는데...

우리들은 이 땅에서 탁아소때부터 우유를 먹고 철따라 교복을 타입으며 행복만을 알고 자라지 않았어요.

전 애들보구 말했어요. 우리모두 농장으로 진출하자구. 이젠 우리들의 땀을 이 고향땅에 뿌려야 할 때라고말이에요. 다른 애들도 찬성했어요. 그래서 우리반 28명이 모두 농장에 진출했어요.》

오복의 가슴은 세차게 오르내렸다.

굴파는 처녀들의 구성진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갈매기들이 깃을 치며 날아오르고 물오리들이 사뿐히 내려앉는다.

최학문은 더 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오복이가 3년간 이 땅에 구슬땀을 뿌렸다는것을 알았다.

그는 이제까지 보아왔던 갈매기며 물오리들조차 오복의 마음을 받아안은것 같아 무심히 볼수 없었다. 머리위에 펼쳐진 푸른 하늘도 처녀의 마음으로 하여 더욱 푸른것만 같았고 수초사이로 헤엄쳐가는 물고기도 처녀의 마음으로 하여 생겨난것만 같았다.

최학문은 달아오른 가슴을 식히려는듯 두손을 호수의 맑은 물에 잠그었다. 그는 자기를 억세게 틀어잡고 자기의 마음을 숭고한 세계제로 이끄는 처녀의 그 힘앞에서 자신에 대하여 생각을 하지 않을수 없었다.

처녀는 더욱 빠르게 배를 몰았다. 키가 굵을거릴 때마다 튕겨난 하얀 물방울들이 구슬알을 쥐여뿌린듯 반짝이고 배는 쏜살같이 미끄러져갔다.

배는 호심을 넘어서었다. 아담한 마을이 보이고 동산덕이 한눈에 우뚝이 안겨왔다.

동산덕, 이 높지 않은 언덕은 먼 옛날부터 있었다고 한다. 덕에 오르면 그 마루는 운동장처럼 넓고 평평하다. 이고장에 살았던 옛사람들은 이 덕에 올라 아침해돋이를 맞이하곤했다고 한다.

그들은 제일 먼저 아침해를 맞은 사람은 가장 행복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이 덕을 동산덕이라고 불렀는지도 모른다.

《선생님, 뛰어가자요.》

오복이는 배의 스위치를 끄고 선미에 앉았다.

배는 구슬같은 포말을 걷어안으며 속도를 늦추더니 물위에 등실 떠서 배전에 철썩이는 물소리와 소곤거리며 고요히 찾아든 정적을 씻고있었다.

최학문은 문득 고고학자는 시간대로의 여행가라고 하던 그 어느 소설의 한 대목이 생각났다. 그러자 그는 자기를 아득히 먼 옛날에로 이끌어가는것이 오복이가 아닌가싶었다. 아직 원근법도 모르고 시공간에 대한 극히 소박하고 유치한 인식밖에 가지고있지 못한 원시인들, 환상과 공상이 없이는, 더우기 정열이 없이는 그 원시인들의 생활과 예술에 발조차 들여놓을수 없는 그 세계에로 처녀는 오히려 자기를 이끌어가는것이 아닌가.

《아이, 물이...》

오복의 바쁜 소리에 생각에서 깨어난 최학문은 그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처녀는 가방안에서 물에 젖은 무늬고운 수건을 돌돌 말아 찢것을 급히 풀었다. 그것은 참피리였다. 오복은 물기가 번뜩이는 피리를 깨끗이 닦아내었다. 순간 최학문은 흠칫했다. 랑끝에 씌운 구리빛 가락지, 10년 전 삼덕로인이 불던 그 피리였다.

《아니, 그 피리가.... 나 좀 보자구.》

최학문이가 손을 내밀자 오복이는 그에게 피리를 넘겨주었다. 닦고 또 닦은 피리는 해빛에 눈이 부시게 반짝거렸다. 피리를 쥔 그의 손은 가볍게 떨리고 가슴은 물결치듯 오르내렸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피리를 넘겨주시면서 이제 옛날유물이 나오면 선생님께 편지를 쓰라구 하셨어요.》

오복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피여오르고 맑고 그윽한 눈에는 기쁨이 한껏 어려있었다. 그것은 진정 순박하면서도 강의한 처녀에게서만 볼수 있는 그런 기쁨이었다.

최학문은 몽클 가슴이 젖어들고 눈곱에 뜨거운것이 물켜오름을 금할수 없었다.

이윽고 최학문은 마음이 진정된듯 병긋이 웃으며 오복이를 바라보았다.

《오복이,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한곡조 불러줄수 없을가.》

《아이참, 전 아직 잘 불지 못해요.》

《그래두.》

최학문이가 간청하자 오복이는 하는수 없었던 지 피리를 넘겨받았다.

《아이, 어찌면 좋아.》

처녀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확 달아오른 얼굴로 어쩔줄 몰라했다. 그는 한참이나 피리만 매만지더니 결심한듯 도톰한 입술에 피리를 갖다대었다.

드디어 약간 떨리는듯한 그러면서도 마음을 그러쥘는 부드럽고 우아한 피리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갈매기들이 마치 피리소리에 이끌리듯 깃을 치며 날아들고 물오리들이 모여왔다. 굴파는 처녀들이 피리소리에 맞추어 부르는듯한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굴포라 내 고향 십리 호수는  
대대손손 키워준 젖줄기라네

최학문은 자기의 육십평생에 수많은 피리소리를 들었고 그것을 부는 사람들도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다 자기의 재능을 보여주는 기교였었다. 했으나 오복이가 부는 피리소리, 그것은 고향에 대한 자랑이었고 행복의 찬가였다. 그것은 고향에 대한 과거와 현재, 미래의 노래였다.

피리소리는 점점 높아져가고 폭이 저갔다.

### 3

호수건너 동산덕을 지나니 뉘엿한 벌이 펼쳐졌다. 넓은 물길을 사이에 두고 저쪽은 강냉이밭이 무연하게 자리잡고 이쪽은 젖소들이 풀을 뜯는 초원이다.

《저기에요.》

오복은 물길옆을 가리켰다. 갈대나래로 울타리를 친곳이 보였는데 방목공청년이 서성거렸고 그 옆에서는 밤색말 한필이 그들을 보고 코투레를 불었다.

물론 공사장으로 바삐 걸음을 옮겼다. 자그마한 도랑을 뛰어넘자 풀을 뜯고있던 젖소들이 기쁜듯이 영각을 뿔었다.

《잘 있었니, 얼룩아?》

오복은 재빨리 한웅큼 풀을 뜯어주고 잔등에 흰점이 박힌 젖소한테로 갔다.

《오복이, 물러서라구.》

최학문은 통방울같은 눈알을 굴리며 달려드는 소의 기상에 놀리워 바쁜 소리를 쳤다. 오복은 생긋 웃어보이더니 풀을 뜯는 소입으로, 다른 한손으로는 소의 이마를 다정히 쓸어주었다. 소는 긴 혀를 빼들고 손바닥에 놓인 풀을 당겨 맛스럽

게 삼켜버렸다.

《아이, 간지러워.》

오복은 두손을 맛비비며 짹짹 웃더니 소의 잔등을 쓸어주고 아쉬운듯 물려섰다.

《그러다가 소가 받으면 어쩔려구...》

《호호, 선생님두... 세상에 소처럼 영특한 짐승은 없어요. 소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곧 잘 알아맞히군해요. 사람들의 얼굴에 조금이라도 기분나쁜 빛같이 보이게 되면 사나와지고 대신 입에서 명랑한 노래라도 흘러나오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참 젖소는 령물이야,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줄도 알고 줄줄도 알거던요. 젖소는 우리 고향의 자랑이에요.》

최학문은 피나도록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우리의 조상들이 이미 4 천여년전부터 소기르기를 하였다는것을 알고있다. 그러나 소가 이처럼 령물이라는것을 모르고 살지 않았는가. 그는 오복이와 같이 이 땅을 대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한갓 손님으로밖에는 되지 않을수 없다는것에서 글썽으며 오복이가 그지없이 돋보이기만 하였다.

《선생님!》

오복의 다급한 목소리에 놀란 그는 자기앞에 깊은 흠채기가 있는것을 보았다. 그는 정신을 바짝차리고 오복의 뒤를 따랐다.

저만치 먼저 뛰어간 오복이가 방목공청년에게 무엇이라고 하니 청년이 밤색말쪽으로 걸어갔다. 등자에 발을 걸지도 않고 땅을 차며 몸을 날려 사뿐히 말잔등에 올라앉은 청년은 말고삐를 틀어쥐고 채찍을 내리쳤다. 말은 《호으웅!》 하고 갈기를 달리며 네굽을 안고 초원을 꿰질러 마을 쪽으로 달려갔다. 말과 청년은 순식간에 하나의 점으로 작아지더니 마을앞 숲속으로 사라졌다.

울타리안으로 들어가자 처녀는 보자기에 싼것을 최학문의 앞에 가져다놓았다.

《선생님, 여기서 나온 유물이에요.》

《그래.》

유물은 여섯점이였다. 붉은간그릇, 뼈숟가락, 조개로 만든 목걸이구슬, 팽이 그리고 그처럼 그의 가슴을 죄였던 흙으로 빚어만든 인형과 뼈로 만든 피리였다.

인형과 피리를 조심히 받아쥔 그의 손은 가볍게 떨렸다.

진흙으로 빚어구운 인형은 4000 여년의 세월의 흐름속에서도 자기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원시조각가는 진흙으로 사람의 모습을 소박하게 묘사해놓았다.

삼각형의 얼굴, 잘록한 목, 밋밋한 두팔은 원시

신앙의 반영으로 하여 사생적으로 형상되지 못하였으나 힘차고 대조가 뚜렷했으며 원시조각가가 로동속에서 느낀 미술적욕망과 그들의 생활이 깃들어 있었다.

최학문의 눈앞에는 남달리 예술에 취미가 있었을 원시인이 자기들의 대를 이어갈 후대들을 위해서, 아니면 사냥이나 농사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성을 쏟아부었으며 인형을 만들었을 그 나날이 방불히 떠오르는 것이었다.

최학문의 번뜩이는 눈은 빠르게 만든 피리에 가뒀었다.

순간 그는 아침이슬에 발목을 적시며 동산덕에 뛰어올라 부드럽고 청아한 피리소리에 맞추어 솟아오르는 태양을 맞으며 춤추는 원시인들을 보는 것 같았다. 그 피리를 부는 원시인의 눈은 얼마나 큰 생의 환희로 넘쳐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인형과 피리, 실로 이것은 우리 나라 원시예술의 장엄한 해돋이였다.

최학문은 문득 원시인이 만든 이 빠피리와 오복이가 넘겨받은 삼덕로인이 만든 참대피리가 동시에 머리에 떠올랐다. 아득히 먼 옛날과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가 곱을수도 또 어떤 다른 선으로도 될수 없는 가장 튼튼하고 굵은 하나의 선으로 련결되어있다. 그렇다, 조선민족은 바로 이 땅에서 기원하여 자기의 고유하고 찬란한 문화를 창조하였으며 동방문화를 꽃피워온 슬기로운 인민인 것이다.

최학문은 원시예술의 값높은 유물을 권것으로 하여 기쁘고 행복했다. 오복이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뜨거운 감동의 빛이 어리여있었다.

오복은 자기들의 발견이 최학문에게 만족을 가져다주었다는 것을 알았던지 기뻐 어쩔줄 모르며 유물이 놓였던 자리를 신이 나서 설명했다.

그들이 울타리밖으로 나섰을 때 멀리 들길로 말파리 한대가 먼지를 뽀얗게 말아올리며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선생님, 와요. 조사작업을 할 동무들이예요.》

최학문은 30대의 젊은 시절로 되돌아온듯 청년들과 웃고 떠들며 조사작업을 했다.

어느사이 바다는 금빛으로 출렁이고 누리는 노을빛으로 가득찼다. 목장으로 들어가는 젖소들의 영각이 들판에 메아리치고 들새들이 깃을 치며 숲속으로 날아갔다. 들크무레하고 향긋한 풀냄새가 물씬 풍겨왔다.

최학문은 흐뭇한 마음으로 말파리에 올랐다. 채찍이 허공에서 울자 말은 네굽을 안고 내뒀었다.

《천천히 몰아요.》

유물을 싣는 보자기를 꼭 그러친 오복이가 바쁜 소리를 쳤다.

《그렇지, 내가 유물을 첫날 새각시 모시듯 해야 된다는 것을 잊었구만.》

《하하하.》

유쾌한 웃음이 터졌다. 오복은 곱게 눈을 흘기며 그저 웃어버렸다. 최학문이라도 빙그레 웃음을 지었다.

《오복동무, 저... 이 마차바퀴말이요. 언제 어떻게 생기게 되었소?》

고수머리청년이 입을 열자 또다시 웃음이 짜그르르 했다.

했으나 청년들의 호기심어린 눈길은 일제히 오복에게로 쏠렸다. 처녀의 얼굴은 노을처럼 타들었고 가쁜 숨소리가 최학문의 귀에까지 들려왔다.

최학문은 고고학자나 그에 조예깊은 사람이 아니거늘 설명하기 힘든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가 하고 오복이를 쳐다보았다. 순간 처녀의 애원에 찬 눈길과 마주쳤다. 그러나 오복은 인차 고집스레 눈을 내리깔고 한참이나 생각에 잠겨있었다.

이윽고 그는 머리를 들고 청년들을 둘러보며 말하기 시작했다.

《인간이 세상에 갓 태어난 백만년전에는 이런 바퀴가 없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무거운 물체를 옮겨야 할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통나무같은것을 그밀에 놓고 밀어봤어요.

얼마나 쉽고 빨랐겠어요. 옛사람들의 무덤인 고인돌은 다 그렇게 굴대로 먼곳에서 옮겨온 것이예요.

바로 그 굴대가 발전해서 바퀴로 됐어요.》

최학문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오복이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무엇때문에 유물이 귀중함을 알아야 하는가요. 그것은 그 하나하나의 유물에 우리 선조들의 슬기와 재능이 담겨있기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나라는 선조들이 남긴 유적과 유물의 다양성과 풍부성 그리고 거기에 바쳐진 지혜와 고유한 정서로 하여 세계의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국제고고학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해요. 우리 나라는 동방문화의 발원지이며 고대강국으로서 우리 옛사람들이 창조한 훌륭한 예술은 이웃나라의 문화와 예술발전의 원동력으로 되었어요...우리는 자기의 고장을 잘 알아야 더 많이 일할수 있어요.》

처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다. 누구도 선뜻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 땅을 울리며 굴러가는

마차의 바퀴소리만이 가락맞게 들려왔다.

마을앞에 당도했을 때 리당비서가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마차에서 내리는 최학문을 부축하며 리당비서는 다정히 물었다.

《나가보지 못해 미안합니다. 그래 조사정형이 어떻습니까?》

《오복동무가 정말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국보적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요.》

리당비서는 여간 기뻐하지 않았다.

최학문은 부드럽고 따뜻한것이 가슴에 안겨드는것을 느끼었다. 그는 오복이와 같은 이고장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고향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누가 심어주었는가를 깊이 생각지 않을수 없었다.

리당비서와 헤어진 최학문은 오복의 손에 이끌려 그의 집으로 갔다. 옷방으로 안내된 그는 벽에 걸려있는 지도에 눈길을 멈추었다. 그것은 리단위로 행정구역이 표시된 커다란 군의 지도였는데 거기에는 해불, 동그라미, 오각별들이 그려졌고 그밑에는 날자들이 씌여졌다. 그는 한참이나

지도를 들여다보았으나 부호에 대한 소재가 없어서 도무지 무엇인지 알수 없었다.

오복이가 방안에 들어서자 그는 말했다.

《이걸 좀 설명해주요.》

그 말에 오복이는 생긋 웃으며 지도앞에 다가섰다.

《제가 그저 만들어본거예요. 해불표식은 어버이 수령님께서 우리 군에 오셨던 곳이에요.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군에 여섯차례나 오시여 스물세곳을 찾아주셨어요. 수령님께서서는 저희들이 집단적으로 농장에 진출한 소식도 들으시고 선물까지 보내 주셨어요. ...》

오복의 두눈에는 맑은 눈물이 피었다.

이윽고 마음이 진정된 처녀는 지도를 손으로 짚어가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삼각부호는 광산, 파란 동그라미들은 옛날 유적과 유물이 발굴된곳이고 요건 지금 우리가 발견한곳이에요... 이건 수산업업소, 이건 목장, 이건 지방산업공장들이예요. 정말 재미있어요. 이런 부호들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전 부호를 그려 넣을때마다 기쁨을 느끼고 더 많은 땀을 흘려야 하겠다는것을 생각하군해요. 이런 부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고향은 더 살기 좋은 고향으로 되고 공산주의는 가까와오구...》

처녀의 두눈은 미래에 대한 환희로 하여 불타는듯 이글거렸고 목소리는 열정에 넘쳐있었다.

천천히 지도에서 물러난 최학문은 밖으로 나왔다. 미역냄새를 안은 바다바람이 달아오른 그의 몸을 식혀주었고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었다.

붕! ~ 입항의 배고동소리가 정답게 들려오고 멀리 밤바다를 지키는 등대불이 배수리장에서 피어오르는 용접불꽃과 어울려 속삭이듯 반짝거렸다.

(아, 오복이는... 너는 이 굴포망의 과거와 현재, 먼 미래까지도 가슴에 안고 사는구나.)

다시 방으로 들어간 최학문은 푸짐한 저녁상을 마주하였으나 수저를 들수가 없었다.

《선생님, 이 굴회를 맛보세요. 동빈포호수에서 캐낸건데 우리 고장의 특산이에요.》

오복이는 향긋한 냄새를 풍기는 굴회를 리학문의 앞으로 밀어놓았다.

밤은 소리없이 깊어갔다. 패종이 열두점을 때린 지도 이속했지만 아래방에서는 농업기술을 토론하는 오복이네들의 말소리가 도란도란 들리고 잠을 모르는 바다가 호수와 속삭이는 찰싹찰싹 소리가 간간이 들려왔다.

최학문은 오복이가 만든 지도를 배경으로 책상 위에 놓인 인형과 삐피리에 눈을 준채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리에는 상상으로 빚어낸 원시피리수의 모습이 떠올랐다. 언제인가 그의 꿈에 수천년의 어둠속을 헤쳐나와 미소를 지으며 나타난 일도 있는 원시피리수, 단두형의 머리에 약간 좁고 끝은 이마를 가진 조선 옛사람형의 생기있고 명랑한 청년이 지금 또다시 그의 앞에 나타나 피리를 분다. 원시피리수는 자기의 피리와 재능을 후대들에게 물려준다.

후대들은 보다 더 훌륭히 생활을 반영한 예술을 후대들에게 물려주고...

그리하여 피리의 주인은 바뀌고 또 바뀌어 어느 덧 삼덕로인이 되고 드디어 오복이가 방긋 웃으며 나타나는것이였다.

그 모습을 경건히 지켜보는 최학문의 가슴은 차츰 걱정으로 끓어올랐다.

(이 땅에 인류가 생겨 정녕 그 언제 그 어느때 고향을 가슴에 꼭 그려안고 썸처럼 쉬임없는 정열로 고향을 살찌우며 굶힐줄 모르는 투지로 고향의 존엄을 버리는 오복이를 낳은 오늘과 같은 시대가 있었던가.)

최학문에게는 오복이와 함께 보낸 오늘 하루가 생생히 되살아났다. 그가 펼쳐준 새라 새로운 세계들은 얼마나 값높게 가슴속에 새겨지는것인가. 최학문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멀리 등대불이 반짝였다. 그는 자기옆에 오복이가 서있

는것 같이 느껴졌으며 저도모르게 머리가 수그러졌다.

《오복동무, 동무는 지금 진정으로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할 때만이 우리가 딛고선 땅, 그것 없이는 살수도, 행복할수도, 혁명할수도 없는 이 땅의 값올다 헤아려볼수 있다는 진리를 만사람에게 가르쳐 주고있소. 그렇소. 우리는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기에 이 땅의 진값을 알수 있었고 우리민족의 유구성과 단일성을 온 세상에 선포할수 있었으며 자기의 고유한 예술을 가지고있다는것을 확증하였소. 난 다시금 이 진리를 터득케 한 동무에게 감사를 드리고싶소...》

오복이를 향해 이렇게 마음속으로 속삭이는 그의 귀전에는 《오복이—》 하며 다정히 부르던 청년들의 목소리가 쟁쟁히 울리는듯싶었고 작업조직을 하던 모습이며 이제 군안의 청년분조장들앞에서 경험을 토론할 모습이 차분히 안겨들었다. 그러자 수많은 오복이들이 그의 앞을 지나가는 것이었다.

이때 아래방에서 피리소리가 들려왔다. 최학문은 생각을 가다듬고 피리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밤의 고요를 깨우며 새날을 불러오는 피리소리, 청아한 그 소리는 최학문을 먼 미래에로 이끌어갔다.

이제 한세기, 아니 천년이 지난다고 하자. 그때에 살게 되는 우리의 후대들은 오늘 우리 시대를 영원히 잊지 않고 따를것이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태어난 주체시대인간들이 이룩한 그 모든 창조물에서 이 땅의 값을 진정으로 헤아릴줄 아는 첫 인간들을 보게될것이 아닌가!

며칠후 최학문교수는 조사사업을 마치고 출발의 길에 올랐다. 이른새벽이었다. 밤새 내린 단비를 머금은 들판은 푸른빛속에 잠겼는데 향긋하고 쓸쓸한 풀냄새가 질게 풍겨왔다. 들새들이 포르릉포르릉 깃을 치며 날아올랐다.

최학문교수는 배웅나온 마을사람들의 맨앞에선 오복의 손을 쥐고 놓을줄을 모른다. 그 뒤에선 리당비서도 서운한 표정을 짓고있었다. 갈매기들도 석별의 정을 안고 아오아오 하며 낮게 떠돌았다.

《선생님, 잠간 해돋이를 구경하고 떠나세요.》

오복의 나직한 목소리는 가볍게 떨리었다.

《그러자구.》

최학문은 그들과 함께 동산덕에 올랐다. 모든것이 발밑에 있었다. 파도소리만 세차게 들려올뿐 바다는 젖빛안개속에 묻히어 아직 분간하기 힘들었다.

이윽고 한줄기 빨간 금이 하늘과 바다를 찍 잘라놓았다. 그러자 바다는 쇠물처럼 끓고 하늘은 빨갭게 타올랐다. 그것은 점차 진하게 그리고 광활하게 퍼져갔다. 드디어 수평선위에 둥근해가 솟았다.

《선생님, 해가 솟았어요.》

《정말 장쾌하구만.》

최학문교수도 탄성을 올렸다.,

오복이는 태양의 빛살을 한몸에 그리안을 듯이 두팔을 벌렸다. 그의 온몸은 그대로 불덩어리처럼 타올랐다.

《선생님, 이 해돋이를 제일먼저 맞이한것은 우리들이 아닐가요.》

《그래.》

최학문은 오복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공산주의해돋이도 우리가 제일먼저 맞을거요.》 리당비서는 애정에 넘치는 미소를 담고 그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최학문은 땅에 뿌리를 내린듯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가슴은 바다처럼 부글부글 끓어번지고 있었다.

태양은 더 밝게, 더 뜨겁게, 더 찬란하게 대지를 비추어주었다.

그는 이 아름답고 살기좋은 고장에 영원히 뿌리를 내리고싶은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이제는 헤어져야 했다.

《선생님!...》

《잘 있으라구, 오복이!》

최학문의 목소리는 갈리었다.

그는 발걸음을 옮겼다. 왼쪽은 바다요, 오른쪽은 호수다. 호수는 자기의 철철 넘치는 사랑을 수집은듯 물에 담아 조금씩 바다로 흘러보내고 바다는 그 사랑이 못내 그리워 기슭으로 밀려와서는 자기의 품에서 고이 키운 여러가지 물고기를 호수에 보내준다.

정다운 사랑목과 동산덕이 멀리 보이고 오복의 모습이 우뚝이 안겨온다.

바다와 호수는 오복의 마음인양 앞서달려가며 정답게 길안내를 해주었다.